



11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11호

(루계 517)



◆◆◆◆◆◆◆◆ 차 례 ◆◆◆◆◆◆◆◆

새 비날론숨 피어나던 아침에 (외1편).....	4
순천의 카바이드불물아	4
백두산	5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6
하나의 구호를 보시고도	7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8
해빛처럼 노을처럼	9
내가 피우는 꽃	9
주체시대 문학예술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	10
《우로 봤!》	32
봄하늘, 봄종다리 (외1편).....	41
봄과 처녀.....	41
내 고향은.....	42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관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	43
내 삶의 청춘은... ..	48
병사의 땀방울.....	48
락수물소리	49

삶의 위치	50
투사의 마중과 배려움을 받으며	57
어느 겨울밤에	58
《승리의 날 다시 만나자》	61
동지	62
꽃놀이	62
한여름의 이야기	63
백두산 만병초 (외2편).....	64
장백의 소나무	64
화전골 물레방아	64
개발지로 떠나며	65
작품창작과 문화어	66
이 노래 따라부르며	68
림진강하류에서	69
그날을 기다려요 어머니	71
통일의 렬차는 달린다.....	72
파도 높아지는 때이면.....	73
꽃은 피고피리라	74
내 아들이 부른 노래.....	75
평범한 성격속에 체현된 조국애에 대한 생동한 형상.....	77
장벽은 무너져야 한다.....	79
나의 아버지는 락동강에 있다.....	80

새 비날론숨 피어나던 아침에 외1편

현창성

10월의 아침해빛 파사로웁던

첫 조업의 날

수령님 서계시는 방사직장 한끝에서

건조기는 흰 숨을 피워내고있었다

그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었다

저마다 가슴속에 소중히 지녔기에

삼년세월 헐치 않은 낮과 밤을 이겨내고

바라던 행복을 안게 해준 꿈이었다

새 비날론숨, 눈부신 꽃숨

기쁘시여 기쁘시여 몇송이 손에 드신

그이를 우러르는 건설자들

모두의 가슴들은 뜨거워올랐다

새 비날론숨, 눈부신 꽃숨

쉬임없이 피어나고 피어나는데

그이를 우러르는 건설자들

목이 메여, 목이 메여 말 못하고 섰는데

얼마나 바라던 행복이던가

세해전 런포벌에 비내리던 그날부터

수령님을 첫 숨앞에 모시고 서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왔던가

인민에게 새로이 차례질 기쁨을

몸소 드신 숨에서 헤아리신 수령님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환히 웃으시었다

흑한속에 기둥이며 탐들을 세워갈 때

삼복더위속에 배관들을 늘어갈 때

기뻐하실 수령님을 우러러 그려보며

마음으로 안아보던 행복이었다

젖어드는 눈시울 습벽이며

건설자들모두가 따라웃었다

세상이 부럽도록 지구가 들썩하게

온 나라가 따라웃었다

순천의 카바이드불물아

백광을 뿔으며

불꽃보라 날리며

폭포치는 불물

순천의 카바이드불물아

어찌하여 즐거워만지느냐

환희로이 부푸는 가슴

어이 진정할길 없느냐

피여날 일만가지 기쁨

너를 보는 이내 마음

너 불물에 어려있어서이나

온 나라에 넘쳐날 웃음소리
펼 펼 끓는 그속에서 들려와서이나

그렇구나, 그 기쁨, 그 웃음을 위해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사랑으로
인민의 슬기와 창조의 넋을
너에게 깃들게 하여주시였거니

하좋은 가을날, 첫 조업의 날에
몸소 찾아주신 그이앞에서
감격에 겨워 류출구를 터치며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 불물아

너의 아름다움
하늘중천 무지개에 비기랴
수억만 별들이 다 모여

가사

사시절 흰눈을 머리에 이고
누리를 굽어보는 세기의 성산
백두산 천지에 태양 빛나니
한나산마루에 안개 걸힌다
아 어디서나 보이는 백두산이여

이 땅에 뻗어내린 천만산악은
백두산 우러러 떠받들었고
이 나라 슬기론 아들딸들은

꼭포쳐내리는듯

아, 인간이 불물을 끓여 수천년
너처럼 아름다운 불물이 있었더냐
우리 식으로 끓여낸
순천의 카바이드불물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다가서시여
보안경너머로 보아주신 불물
너는 진정 우리의
조선의 카바이드불물이여라

궁지로 부풀어오르는 가슴
바이 진정할길 없구나
두어라, 내 천년토록
이 기쁨에 취해 살고싶어라

백두산

문의호

그대를 우러러 신념다진다
아 어디서나 보이는 백두산이여

주체의 붉은기 여기 휘날려
세상에 자랑높은 제일봉이다
빛나는 향도성 여기에 솟아
인류의 영원한 희망봉이다
아 어디서나 보이는 백두산이여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아브둘라흐 무함마드 엘비

동방의 나라 조선의
위대한 **김일성** 주석
불멸의 주체사상 창시하셨네
자주적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안겨주고
진정한 삶의 길을 밝혀주는
인류의 위대한 사상을

×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혁명은
식민지민족해방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한 혁명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열어놓은 혁명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새 생활을 창조한 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소한 길을 훌륭히 개척
해나가는 혁명

×

혁명과 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창조물들은
주체사상의 고귀한 열매
하여 세계인민들은 말한다
《조선은 사회주의의 모범》
《조선은 기적으로 빛나는 나라》

×

19세기 중엽
유럽에 배회한 공산주의의 《유령》
그때로부터 100여년의 세월이 흘러
사회주의는 엄연한 현실로 전변되었다
그러나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진리성이 확증된 주체사상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5대륙 방방곡곡에
그 빛발 찬란하여라

×

력사의 새 시대 밝혀준 주체사상
인류의 심장을 사로잡았다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
주체사상에서 고무를 받고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의 발걸음 다그쳐라

×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
력사의 반동들
예속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들
력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리려고 시도한다
하나 이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우려는
어리석은 행동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는 불멸의 주체사상은
창조와 건설의 실천적무기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사상
혁명의 위대한 교과서

×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는 주체사상
인간의 완전한 해방과
인류의 참다운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영원히 빛나라!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필자는 민주예멘 혁명철제품공장 부지배인,
기사임)

하나의 구호를 보시고도

1974년 9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승용차가 동평양쪽을 향해 옥류교우를 달리고 있었다.

그이께서 현지에 긴급한 용무가 계시어 가시는 길이였다.

그런데 차가 옥류교를 거의 건넌을 때였다.

줄곧 바깥을 내다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갑자기 운전수에게 차를 멈춰세우게 하시였다.

운전수는 영문도 모르고 제동기를 밟았다.

차는 다리 한끝에서 멎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운전수의 의혹어린 눈길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곧바로 대동강유보도로 내려가시는것이였다.

운전수는 그제야 짐작되는것이 있었다.

대동강의 동쪽대안에 그즈음 새로 세운 대형구호가 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충성의 구호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 구호를 보시고 급기야 차를 세우게 하였던것이다.

유보도에 내려서신 그이께서는 구호를 한자한자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그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바라보던 운전수는 문득 마음속으로 그이께서 매우 만족해하시리라 생각하였다.

한것은 그 구호가 그때 수도시민들의 한결같은 자랑이기때문이었다.

사실 그 구호는 규모만 보아도 어느 한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직관물》이라고 선전하는것보다도 매 글자의 크기가 거의 두배나 되며 그 구

호의 폭이 또한 수백미터에 달하는 매우 큰 직관물이었다.

그러기에 그 구호를 세운 해당 부문 일군들은 물론 그것을 보는 수도의 근로자들도 지금까지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설치한 모든 구호들가운데서 그 구호가 가장 우람하고 잘 된것으로 여기고있었다. 운전수의 생각도 바로 그랬다. 그래서 그는 그이께서도 틀림없이 만족해하시리라 앞질러 짐작했던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속단인줄을 그는 며칠 후에야 깨달았다.

며칠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사업에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다시 동평양강안을 찾으시였다.

전날처럼 구호를 한자한자 세심히 뜯어보시던 그이께서는 아무래도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시는듯 이번에는 옥류교우에 오르시여 그것을 오래도록 측면으로 부감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운전수를 향하여 본평양강안으로 가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얼마후 승용차는 본평양 강안에 멎었다.

차에서 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강안 유보도를 천천히 거니시며 동평양대안의 구호를 정면으로 건너다보시였다.

옥류교에서 대동교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구호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아무래도 구호를 좀 고쳐 세워야겠다고 하시면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고나서 글자를 더 크게 하고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며 더 정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래야 사람

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지니도록 하고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충성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 일군들의 얼굴에는 시종 자책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그들은 비로소 직관물을 크기로만 가려보던 잘못된 생각을 깊이 뉘우쳤으며 도시직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대동강 량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천천히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는 돌아가자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빨리 갈수 없겠는가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운전수는 마

음의 충격이 너무도 커서 아무런 대답도 올릴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모시면서 매일, 매 시각을 뜨거운 감동속에 보내는 그였다.

그러한 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또하나의 고매한 품모, 아무리 급한 길을 가시다 가도 또 아무리 일이 바쁘시여도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는 사업과 관련된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하나의 구호일지라도 그냥 스쳐지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족점을 바로잡아주시고서야 마음놓으시는 더없이 고결한 품모에 접하였으니 어찌 가슴이 달아오르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이윽고 차는 떠났다.

승용차는 방금 살수차가 물을 뿌린 수도의 거리에 두줄기 바퀴자리를 생생히 찍으며 급히 달려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안와르 피트라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은 전진하는 혁명투쟁에서
조선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상징

우리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탁월한 지도자
빛나는 향도성

당신은 인민의 스승으로
위대한 사업을 펼쳐가시거니
우리모두 높이 찬양하노라
당신의 현명한 명도를

민족의 운명
근로대중의 번영
인민의 단결
모든것 당신의 어깨에 지워져있거니

이 세상 모든 인민들
어디서나 당신을 따르노라
당신은 이 세상 인민들의 희망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빛나는 향도성이여라

(필자는 파키스탄신문 《데일리 장》
부주필임)

해빛처럼 노을처럼

유국진

얼마나 아름다우나
얼마나 황홀하나
내 집의 창가에 만발한
붉고붉은 **김정일화**

해 뜨는 아침이면
해빛을 불러 불타고
해 지는 저녁이면
노을을 불러 불타는 꽃

안아보면 좋으나
쓸어보면 좋으나
마음속 생각마저 물들어주는
아, **김정일화**

만민의 축원 안고
붉게 피는 꽃
뜨거운 그 열정 가슴을 불태워
내 마음도 함께 붉게 피는 꽃

철따라 꽃은 피고
철따라 꽃은 저도

가사

이 꽃은 영원히 지지 않으리
내 심장에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려

하늘땅 끝없이 넓고넓어도
천만심장 한모습으로 불태워주는
꽃중의 꽃
김정일화!

키워준 그 사랑 한없이 뜨거워
베풀어준 그 은덕 한없이 고마워
꽃을 안고 축원의 노래를 안고
친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나니

아, 위대한 향도의 해발
그이를 따르는 세상 끝까지
이 꽃은 만발하리라
세월을 넘어 활짝 피어나리라

해빛처럼 밝고 노을처럼 불타는
이 해빛 이 꽃을 안고 내가 산다
이 노을 이 꽃을 안고 인민이 산다
아, **김정일화, 김정일화!**

내가 피우는 꽃

조윤행

하늘중천 아슬한 벽체우에서
사시절 피우는 용접의 불꽃
밤하늘엔 불보라 펼치여주고
한낮에도 눈부신 빛을 뿌리네

그윽한 향기는 풍기지 않고
순간에 사라진다 탓하지 말아

이 불꽃 피는곳에 기념비 솟고
이 불꽃 피고피면 락원이 솟네

꽃피날 새 거리 그리여보며
심장으로 피우는 열정의 불꽃
새집들이 그날엔 꽃보라 되고
락원의 창가엔 웃음꽃 되리

주체시대 문학예술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발표 30돐에 즈음하여-

하정웅

지금 온 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발표 서른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주체시대의 위대한 문예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전진하는 우리 시대와 문학예술의 호상관계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약동하는 현실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과 새 시대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천리마정신이 구현되어있는 현실생활속에 깊이 들어가는 문제 등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주체시대의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역사적인 문헌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에서 천명된 심오한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독창성은 지난 30년간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이 걸어온 자랑스런 로정에 의하여 힘있게 확증되고 있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

문학예술창작에서 시대와 문학예술의 호상관계를 훌륭히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창조적생활을 힘있게 형상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문

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입니다.》

시대정신을 구현하는것은 주체적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는 특히 혁명과 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역사적시기에 더 중요하게 나선다.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되던 시기 우리 인민은 남이 십리를 달릴 때 백리를 달리는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이룩하고있었다.

세계를 경탄시킨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시기에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변혁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쌓은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발생된 합법칙적현상이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시종 일관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근로선의 위대한 승리였다.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 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였으며 시대를 앞당겨나가려는 천리마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의 신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대를 주름잡아 나가려는 이 불같은 지향과 열정, 전투적기백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도도히 굽이쳐가는 우리 시대의 벽찬 흐름을 옹계 보여줄수 없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는 그 모든 세기적변혁과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의 힘의 원천을 정당하게 보여줄수 없다.

우리 인민의 이 지향과 열정을 그리지 않고서는 또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문학예술로 될수 없다.

문학예술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시대에 대한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적립장과 관점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시대를 열렬히 옹호하고 긍정하며 그것을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들임으로써만 시대의 요구

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시대정신을 구현한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와 우리 인민의 생활을 열렬히 긍정하고 옹호하여야 시대의 기수로서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릴데 대한 사상은 실로 시대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관점과 립장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주체적문학예술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독창적이며 심오한 사상은 우리 당의 문예방침에 빛나게 구현되어 오늘 커다란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 선차적인 주목을 둘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현대성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명백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문학창작에서 현대성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 창작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는것이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시대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큰 사상미학적영향을 준다.

오늘의 현실을 훌륭히 반영한 작품은 그 주제의 적극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그리고 그 형상의 친근감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지난날을 그린 작품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하는것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의 창작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에 복무하면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격동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이 제도를 더욱 옹호하고 끝없이 사랑하며 이 땅우에 행복한 새 생활을 펼쳐주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또한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교양적기능을 강화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천리마기수들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영웅들이며 당의 참다운 혁명전사들이다.

천리마기수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교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천리마현실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시대의 전형인 천리마기수들의 형상을 창조할수 있는 생활적소재를 수많이 제공하였다.

단편소설 《길동무들》의 주인공 오명숙, 《백일홍》의 주인공들인 현우혁부부 등은 천리마운동이 낳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전형들이다.

이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인간성격을 통하여 우리 문학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임무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질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시신 중요한 내용의 다른 하나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적내용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데 대한 사상이다.

사상성을 높이는것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상적 량식을 주며 혁명화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혁명적인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그들이 지닌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미학적요구로 하여 사상적대응이 심오하고 풍부한 문학예술작품을 요구한다.

우리 인민은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하는 작품보다도 사람들의 진정한 참된 생활과 위대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반영한 문학작품을 더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사상적내용으로 충만된 혁명적시대이며 사람들에게 강한 사상미학적충격과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시대이다.

오늘 들끓는 우리의 현실처럼 사상적으로 심오하고 생활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종자를 작가들에게 제공하고있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사상성을 높이는것은 혁명적인 우리 시대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문학작품창작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또한 작가들이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당정책이 구현되고있는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있는 거대한 혁명적전환들의 폭과 깊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니고있는 우리 문학의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하여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혁명

가들의 생활이 아무리 심오하고 의의있는 종자를 안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 들일수 있는 안목과 그것을 형상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작가들에게 없다면 그 종자는 실제상 아무런 의미도 가질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만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그 높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훌륭히 그려낼수 있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으로 될수 있다.

작가들은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잘 알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성심과 그들의 념원과 지향,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수 있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완성하고 풍부화해나갈수 있다.

또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과 생활해야만 깊이있고 다방면적인 새롭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수 있고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길동무로 될수 있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간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생활을 파고든다는것을 말하며 그래야 우리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할수 있다.

단편소설 《해주-하성서 온 편지》, 《령북땅》, 서정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 등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에는 한결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현실생활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옹호의 열정이 힘있게 흐르고있으며 우리 시대를 뜨겁게 안고 숨쉬는 심장의 맥박이 세차게 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밖에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문제,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인민대중교양에 리용할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현실주제작품창작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는 우

수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장편소설 《평양시간》, 《생명수》, 《백양나무》, 《로동가정》, 《축원》, 《야금기지》, 《탄부》, 《청춘송가》, 《뜨거운 심장》, 《철의 신념》, 《빈터우에서》, 중편소설 《불바람》, 《병사의 고향》, 단편소설 《자기 위치 앞으로》, 서정시 《나의 조국》, 《행복한 인민의 나라여》, 시초 《강선의 붉은 하늘아래서》, 서정서사시 《탐사대원의 일기》, 가사들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주체의 요구대로 조선은 나아간다》, 《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 앞으로》, 동요 《저 하늘이 높다 해도》 등 수많은 장중편소설들과 시, 가사, 아동문학 작품들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전성기 우리 문학의 발전면모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 끝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충성의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된것이다.

서정시 《주체의 태양》, 《아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헌시》, 《조선의 영광》, 《불멸의 선언》, 《백두의 새날》,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녕이 바다여》, 서사시 《수령님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이여》, 《불타는 해》, 가사들인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수령님 밤 이 편 깊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김정일화》, 《빛나라 정일봉》 등 수많은 작품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감정이 숭엄한 정서속에 힘있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후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주체적문제강령이다.

이 위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오늘 우리 당의 문예방침에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발휘하고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주체시대의 새로운 인간전형들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첫 생활

김철준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1월, 랑림산맥의 한줄기인 오류산령길로는 한대의 화물차가 힘겹게 움직이고있었다. 이전에는 다만 주변농가들에서 가끔 땀나무를 해실은 달구지들을 몰고다닐뿐이던 좁고 울퉁불퉁한 령길은 지금 거침없이 불어치는 정월의 눈보라속에 파묻혀 자취조차 희미하였다. 역한 휘발유내가 짙 들어찬 자동차의 운전실에는 조향륜을 잡은 사십대의 사나이와 이십전의 젊은이가 앉아서 긴장한 눈길로 앞을 주시하고있다.

문득 앞길에 커다란 구덩이가 나타났다. 길절반을 가로지르다싶이한 그 구덩이를 조심스럽게 돌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차는 눈속에 구겨박힐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층 더해지는 초긴장속에서 몸까지 웅송그리고 차의 움직임에 신경을 썼다.

(미끄러지지 말아야겠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옹지!...)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세찬 눈보라가 앞을 가리웠다. 귀가 맞물리지 못하여 찌그덕거리는 운전실의 틈새기란 틈새기로는 눈가루가 마구 쏟아 들어왔다. 차전체가 전율하듯 부르르 떨었다. 원경수는 어느새 식은땀이 내뻘 이마를 쳐들고 조향륜을 쥔 한택영을 넘겨다보았다.

원래 이런 날씨에는 자동차운행을 극력 피했다.

그러나 아침에 택영은 날씨가 궂은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발대책임자 최민국에게 탄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경수는 그러는 택영을 처음에는 의아하여 쳐다보았으나 인차 먼 산발을 바라보는 그의 침울한 눈길에서 속대사를 읽을수 있었다. 경수는 군말없이 택영을 따라 눈보라속에 나섰다.

기우뚱거리던 차가 눈보라속을 뚫고 간신히 구덩이를 극복하자 경수는 후— 한숨을 내쉬었다. 정전직후 3개월반 운전수양성소를 졸업한 그가 이 삼천탄광 운수직장에 배치받음지도 벌써 두달이 되어온다. 그런데 탄광에는 아직 차가 많지 못하여 그는 지금까지도 한택영의 교대운전수로 립시 임명되어있다. 그들은 얼마전부터 탄광에서 근 록십리 떨어져있는 오류산골짜기에 새로 개발되는 갱전설에 동원되었다.

지금은 자체와 공구들을 실으려 탄광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제 령길을 내려 차가 합지골이라 부르는 골짜기초입에 이르면 한택영은 차를 세울 것이다. 왜?... 나홀전 그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

었다.

...합지골초입에는 전쟁전에 찍어놓은 원목더미들이 눈을 뒤집어쓴해 임자없이 무져있었다.

어느날 한택영은 그곳에서 차를 멈췄다. 그는 주머니에서 삼지를 꺼내 천천히 엽초를 말아피우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독한 담배연기속을 뚫고 나무무지들을 바라보는 택영의 눈에서는 어떻다고 딱히 찍어 말할수 없는 이상한 빛이 번뜩이였다. 그 어떤 모순된 감정에 모대기는지 그의 담배권 손이 초조하게 떨렸다.

《왜 그래요 형님?》

원경수는 자기보다 거의 스무살이나 우인 택영이를 그저 형님이라고 불렀다. 택영은 슬며시 눈길을 떨구더니 부지중 큰숨을 들이쉬는것이였다. 이제는 눈만이 아니라 온 얼굴에까지 피로운 빛이 확연했다. 엄지손가락만치나 굵게 만 엽초를 련이어 들이빨더니 또다시 눈길을 들어 원목더미를 바라보았다.

경수는 도대체 의미를 짐작할수 없는 택영의 침묵한 얼굴과 필시 어떠한 련관이 있을지도 모르는 원목무지를 번갈아보면서 이윽고 또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한숨만 쉬는거예요?》

그러나 택영은 여전히 대꾸없이 담배만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들이빨뿐이였다. 피곤이 폭 실린, 일편 공허해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의 동정을 끄는 눈... 언제 꺾였는지 모를, 마치 검은돛바늘처럼 삐죽삐죽 돌아난 구레나룻이 한 벌덜인 검스레한 볼편을 푸들거리면서 택영은 무슨 말인가 할듯했으나 종시 입을 열지 못한채 마라초의 마지막 연기를 확 내뿜었다.

그날저녁 뜻밖에도 택영은 합숙에 찾아와 긴말없이 경수를 이끌고 집으로 갔다. 탄광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쟁시기의 반토굴집은 어른 두셋이 들어앉기에도 비좁았다. 아래목에서는 배도 미처 가리지 못한 대여섯살 나보이는 사내녀석들이 (후에 알고보니 년년생들이였다.) 피기없는 얼굴들에 입을 벌린채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단칸집의 한쪽 구석에 대충 꾸려놓은 부엌쪽에서는 한택영의 처가 웬일인지 앉은 자리에서 해쓱한 얼굴에 죄스러운 웃음을 어설프게 그리는것이였다. 웃목에는 (손바닥만한 방 안에서 사실 아래 웃목 할것도 없었다.)전쟁관에서 유일하게 남은듯한 낡은 껌짝이 놓여있었고 그우에 얹박한 이불

한채가 없혀져있었다. 그밖에 집안에는 별로 눈에 띄우는것이 없었다.

한택영은 구석에서 밥상을 끄당겨놓고 껌짜문을 열더니 한되들이 소주병을 꺼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올려보내는 음식접시 서너개를 상우에 올려 놓았다. 고추빛이 거의나 보이지 않는 흰 김치 한사발과 방금 가마에서 쪄낸 염장고등어 몇토막이 전부였다. 그리고 뜬내가 확 풍기는 보리밥이 각각 한그릇씩...

《뭘 차린건 없어도 한잔씩 하자...》

《아니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게 이렇게...》

《무슨 날? 허허... 아무 날도 아니지. 그저 내가 경수와 한차를 타는지도 달포가 넘었는데 우린 아직 이렇게 마주 앉아보질 못했지...》

택영의 웃음소리가 웬일인지 속이 빈것처럼 쓸쓸하게 들렸다. 그는 손님더러 마시라해놓고는 혼자서 연거퍼 잔을 비웠다. 안주도 집지 않고 그냥 담배만 지독스레 피워댔다. 어느덧 술기운이 오르자 드디어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야기는 뜻밖에도 전혀 왕청같은 시작을 보이는것이였다.

《이보게 경수, 이게 우리 집 사는 꼴이야. 나는 왜정때부터 운전수노릇을 해오는 사람인데 본시 이고장 태생은 아니지. ... 전쟁전까지는 모친이 주막집을 경영한 덕에 꽤나게 살았어. 어떻게 돼서인지 전쟁때두 초모에서 면제되어 군수공장차를 끌었지. 그러다가 정전이 있기 바로 몇달전에 모친은 폭사했구 저 사람은 (택영은 머리를 돌려 부엌 아궁앞에 앉아있는 처를 가리켰다.)다리 한쪽을 잃어버렸네그러. ... 그래 화김에 그고장을 뜨고 말았지 ...》

원경수는 놀라움에 커다래진 눈으로 새삼스레 아궁앞의 녀인을 돌아보았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 왜 오늘 꼴짜기에서 차를 세웠는지 아는가 말이야? 경수는 아직 총각이니 다는 몰라. ... 오늘 저녁 이 음식들이 우리 집에서는 큰 량식이야. 너편네와 애녀석들은 노상 죽으로 살지. ...》

그런데 엇그제 우리 모친하구 왜정때부터 면식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자네 처지가 정말 안됐군. 내 자네 모친을 봐서라두영 모른체할수 없지. 얼마 안되지만 이걸루 애들 옷두 사입히고 량식보탬이나 하게.》하면서 쌀 한배낭과 돈을 주고 갔어. ... 그 사람도 몇달전에 여기로 옮겨와 읍거리에 자그마한 제제소와 목공소를 차려놓고 널판지며 각재들을 팔기도 하고 이불장이랑 밥상따위들도 만들어 팔고있네. ... 그런데 어제 다시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 《날 좀 도와주게. 자네가 다니는 그 합지골초입에 전쟁전 나무무지들이 있지 않나. 오가는 길에 그걸 한두 차만 좀... 지금은 나무값이 급값

일세. 사망에서 목재를 요구하고 밥상같은 하찮은 가구류들도 수요가 엄청나지. 말하자면 우리 목공소가 호경기를 만났단 말일세. 그런데... 원목이 딸리네. ...》

나도 처음에는 안된다고 딱 잡아땀으나 그 사람은 계속 간청하더군. <전쟁전 나무들인데 임자 없는건 둘째치구 거기서 몇대 뽑아낸다고 큰일나겠나? 대신 임자에게는 내가 값을 후히 치르지.>

자, 경수 어떡하겠어? 난 내 한몸때문에 그러는것두 아니야. 저 불쌍한것들이 다 내팔에 매달려있어. 저것들이...》

한택영은 옷자락을 활짝 열어젖히고 또다시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수는 그 무엇에 꼭 짓눌리우기라도 한듯 꼼짝할수 없었다. 머리속이 웅웅거리고 방안의 모든것들이 검질기게 두눈으로 파고들었다. 피기 없는 아이들의 여윈 몸뚱이며 배도 가리지 못한채 쓰러져 자는 모습, 문안에 들어서는 경수를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구슬픈 웃음을 가늘게 띄우던 해쓱한 녀인의 얼굴, 비좁은 방안의 유일한 물건들인 낡은 껌짜과 흰 이불...

이튿날 한택영은 꼴짜기초입에서 다시 차를 세우고는 천천히 나무들을 싣기 시작했다. 경수는 아무말없이 한동안 차안에 앉아있었으나 이윽고 나와서 거들어주었다. 마음속에서는 어울려지지 않는 두갈래의 감정들이 서로 엉켜들며 좀체로 안정할수 없는 두근거림을 가져다주었으나 어쨌든 그날은 한차 실어다 읍거리의 목공소주인에게 넘겼다. ...

오늘은 두번째였다. 아침에 눈보라가 일기 시작하건만 그냥 떠나자고 고집하던 택영의 눈길에서 경수는 그 심중을 느낄수 있었다. 굵이굵이에돌아내린 령길을 벗어나자 마침내 합지골초입에 들어섰다.

《형님, 이번까지만 하고는 그만들시다.》

차가 멈춰서자 경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며 이렇게 말했다. 했으나 택영은 아무 대꾸없이 침울한 눈길로 여기저기 쌓여있는 원목무지우에서 하얗게 일어나는 눈보라를 점도록 바라보는 것이였다.

오류산일대는 원래 무인지경이였다.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이곳에서 탐사와 시추를 본격적으로 벌리더니 석탄의 질과 채굴조건이 대단히 좋은 여기에 큰 탄광을 건설하려고 시도했으나 얼마 못가서 패망하는바람에 개발하던 갱구들을 모조리 폭파해버리고 달아났다. 해방후에는 삼천탄광에서 여기에 손을 뻗었는데 뒤미처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통에 중단되고 말았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복구에 드바쁜

속에서도 탄광에서는 오류갱건설에 무심하지 않았다.

당위위원회에서는 오류갱개발을 정식 당결정으로 채택하고 우선 선발대로 오십여명을 먼저 파견했다. 그 책임자로는 제대군인이며 6갱당세포위원장인 최인국이 임명되었다.

원경수는 최인국에 대해서 아는것이 별로 없었다. 그저 나이가 한택영의 동년배라는것, 53년도 9월에 제대되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집이 매우 세다는 등 정도의것이였다. 대신에 그는 천성적인듯 언제나 검푸른 얼굴에는 웃음을, 입에는 익살을 담고다니는 소문난 락천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들이 처음 만나던 날 그는 경수에게 《여 총각, 처녀 소개해달라나?》 하고는 이어서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임자 장가가는데서 제일 중요한게 뭘지 아나?》 하고 물으며 눈을 꿈쩍하지 주위에서는 폭소를 터뜨렸고 그바람에 경수는 대뜸 얼굴이 숯불처럼 시뻘개지고 말았다.

어느날 그는 몹시 앓았다. 그전날 밤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떨리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일했는데 (그는 밤늦게까지 택영을 도와 나무짐을 싣고 부리우고 했던것이다.) 새벽에 잠자리에 들자부터는 참을수 없는 두통과 오한과 열이 온몸을 휩쌌다. 아침에 탄광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었으나 경수는 택영에게 오늘은 차를 타고싶은 생각이 없으니 남아있겠다고 말하고는 (그는 최인국에게도 택영에게도 아픈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귀틀집숙소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쓴채 누워버렸다. 모두들 일터에 나간 뒤여서 텅 빈 방안에는 숨죽인 고요만이 떠돌고 이따금 마당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심심풀이로 들려올 뿐이였다. 열이 점점 오르는지 경수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팔다리며 모든것들이 몸에서 떨어져나가는듯한 진통에 그는 모지름을 썼다. 문득 눈물이 솟아올랐다. 부지불식간에 고독감이 의식속으로 갈마들면서 뜻밖에도 눈물이 나왔다. 이 외진 산골에서, 누구의 파스한 손길도 없는곳에서 아픔에 시달리는데 들리는것은 오직 바람소리. ... 어머니가 그리웠다. 형님이 그리웠다. 집에서는 그가 이렇게 앓을것 같으면 온 식구들이 불안속에 서성거리며 경수를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은 아픔이건만 경수는 고통속에 찾아드는 외로움이 견딜수 없이 서글렀다.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눈썹은 빠드득 소리가 규칙적이면서도 경쾌하게 들려오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걸어오는 사람의 자태며 심리가 눈앞에 보이는것 같았다. 이윽고 출입문이 벌럭 열리며 뜻밖에도 온통 눈을 뒤집어쓴 최인국이 들어서는것이였다. 첫 순간 경수는 몸의 아픔도 잊고 아연해

지고 말았다.

《그래 총각, 뭘가? 감긴가?》

신발을 벗지 않은채 온돌바닥에 걸터앉으며 던지는 최인국의 물음에 경수는 대답을 안했다. 인국은 자기의 큼직한 손바닥을 몇번 옷자락에 문대더니 제격 경수의 이마우에 올려놓는것이였다.

《이크, 이거 열이 대단하군, 큰일나겠는걸...》

최인국은 그길로 부엌으로 내려가 더운물 한사발을 떠들고 올라왔다. 그리고 바지주머니에서 주둥이를 비끄러맨 병 한개를 꺼냈다.

《여 총각, 왜 몸이 이렇게 불덩이가 되도록 말을 안했어. 제길... 그러나 걱정할건 없어. 이쯤한 고열도 못이기면 무슨 사내겠어. 자, 이건 진짜 산골이다. 아침에 네 얼굴색이 심상치 않아서 얻어왔지. 더운물에 한사발 타서 꼭 마시고 땀을 꼭 내면 거뜬해질게야!...이런걸 군대에서는 첫 전투세테라구 하지...》

최인국은 물사발에 병속의것을 말끔히 쏟은 다음 손가락으로 빙빙 저으며 말했다.

《...경수,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참고 견디지 못할 일은 없어. 지금 우리가 겪는 고생이 몹시 힘든것 같아도 전쟁에 비하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자, 마셔라!...》

경수는 자기앞으로 내민 사발을 열결에 받아들면서 저도 모르게 눈곱이 뜨끔해지는것을 느꼈다. 한순간 강한 회오리바람처럼 온몸을 감싸는 짜릿한 걱정해 휩싸인채 그는 자신을 건잡지 못했다.

《형님, 고맙...》

경수는 말끝을 채 이을수 없었다. ...

오류갱건설공사는 처음부터 어려웠다. 그들의 손에 있는것은 갓 복구된 탄광공무직장에서 버려내기 시작한 삽, 곡괭이, 함마, 정대가 전부였다. 최인국은 사람들을 두조로 나누어서 한조는 착암기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수굴로 갱도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다른 조는 전주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 옷변전소까지 연 사십여리에 구멍이를 파고 전주목을 들어세우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한길씩 쌓인 눈을 헤치고 언땅을 우등불로 녹여가면서 곡괭이로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듯 땅을 쪼아냈다. 산에 가서 전주목을 끌어내는 일도 험치 않았다. 산발을 뚫아올라 가슴을 치는 눈속에서 한대 두대 나무들을 끌어서는 바줄로 비끄러매고 사람이 끌었다. 불과 며칠사이에 숨저고리의 어깨가 모두 해지고 덧기운 자리들이 유표했다. 때로는 비탈에서 미끄러져 원목과 함께 사람이 산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눈판이여서 충격이 덜했지만 그렇게 넘어지면 다시 제힘으로 일어나기가 조련치 않았으며 더우기 그 산비탈로 또 기여올라가 나무를 끌어내려면 허기지고 추위에 시달린 몸이 움

직이지도 않았다. 식사는 언제나 감자와 밀을 마구 섞은 밥에 염장고등어와 염장무우가 기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으나 그래도 첫 새벽부터 어두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군말없이 작업들을 해나갔다. 그리고는 저녁이면 귀틀집의 온돌바닥이 들쭉하게 불을 때고 들어앉아 며칠에 한번씩 경수네가 탄광에서 날라오는 신문도 읽고 우스개소리도 하면서, 때로는 노래가락도 뽑으며 결코 우울속에 날을 보내지 않았다.

원경수도 차가 뛰지 않는 날에는 샅이나 곡괭이를 메고 전주공사장으로 나갔다. 그들은 그사이 합지골에서 두번 더 나무를 실어냈다. 그런데 며칠전 누구에게선가 얼핏 들은 말에 의하면 합지골의 그 원목무지는 전쟁전에 도 국영목재공장에서 접수해놓고 미처 운반해가지 못한것인데 어쩌면 불원간에 거기서 사람들이 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때문인지 경수는 나무를 실을 때면 마치도 끈덕진 무엇이 목덜미에 늘어붙어 못건디게 끄당기는것 같은 거북스러운 느낌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더 손을 대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곤 했으나 드문히 한택영의 집에 들릴 때마다 피기없는 어린것들과 앓은 걸음을 치는 녀인의 모습을 보고는 또 다른 목소리로 자기를 꾸짖었다. (너는 그래 사람이 아니다. 그 불쌍한것들을 위해서 그 까짓 나무 몇대가 뭐라고 그러느냐, 량심?...그 보다는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한택영이 안다고 하던 그 목공소주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값을 치르곤했다. 그리고 저녁 한끼를 잘 얻어먹고 나올 때면 주인은 경수의 주머니에도 그의 뭍으로 돈을 찢러주곤했다. 그러나 경수는 그 돈을 모두 택영이에게 넘겨주면서 속으로 (그래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인가?) 하고 자문하곤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길에 축이 난 자리가 확연한 나무무지들을 볼 때면, 또 오류산골짜기에서 보잘것없는 식사를 하면서도 힘겨운 작업들을 해나가는 최민국이네들을 볼 때면 웬일인지 방금전까지도 든든하던 마음한구석이 한줄기 불안의 물결에 휩쓸려 모래독처럼 맥없이 무너지는것을 느꼈다.

대환을 전후하여 큰 눈이 내렸다. 련사를 끊기지 않고 내리는 눈은 수림과 골짜기와 귀틀집들을 모조리 덮어버렸다. 그러나 날은 푸근하여 사람들은 일손을 놓지 않았다. 큰 눈에 사태가 나면서 령길이 모두 막혀버려 며칠간 차가 뛰지 못했다. 그래서 원경수는 사흘째 택영과 함께 전주공사장으로 나오고있다.

경수는 방금전에 곡괭이를 최민국에게 넘겨주고 불무지가에 나와 앉았다. 눈은 쉬임없이 내리

고 또 내렸다. 눈발은 가늘어지는가 하면 어느새 다시 굵어지면서 온 공간에 휘뿌연 장막을 펼쳐놓았다. 근방의 산발들은 모두 눈에 가리워 보이지 않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데 오직 알릴듯말듯한 신비스러운 눈송이의 속삭임만이 끝없는 고요속에, 광막한 공간에 짝 찼다.

(참 조용하구나... 조용해, 그리고 날씨도 얼마나 푸근한가! 정말 꿈속갈구나! ... 저 눈내리는 속으로 끝없이 끝없이 걸어서 어데론가 가고싶구나. ... 좋은곳으로!...)

경수는 문득 어린 시절 눈이 내릴 때면 마당에 뛰어나가 온종일 눈싸움을 하느라고 돌아치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 시절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그러다가 생각은 느닷없이 왕청같은 굵으로 달아났다.

(합지골에도 눈이 내리겠지... 그러면 그 원목무지며 나무들을 끌어내느라고 냈던 길이며 모두 눈속에 묻혀버릴거야. ... 누가 봐도 나무를 끌어냈다고는 생각 못할게구... 그렇지만...)

경수는 또다시 마음속 한구석이 불안해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눈길을 떨군채 물끄러미 불무지를 들여다보았다. 불씨를 탁탁 튕기는 이빨나무 장작에서는 빨건 불길이 널름거리는데 그 불속으로 눈송이들이 하나 둘 내려앉아 순식간에 형체없이 녹아버리는것이였다. 내려서는 없어지고... 또다시 내리고... 한옆에서는 커다란 물주전자가 씩씩거리며 흰김을 요란스레 뿜어올리고있다.

《경수, 무슨 생각을 해? 멍청히 앉아서.》

어느새 곡괭이를 넘겨주었는지 최민국이 구덩이에서 기여나와 우등불가로 다가오며 소리치는 통에 경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여기 와 앉으세요.》

경수는 깔고앉았던 나무토막을 내주며 말했다. 인국은 옆에 와 앉자 벗어놓은 동복주머니에서 엽초를 꺼내 말았다. 그리고는 불무지를 헤치고 뜨거운 숯덩이를 뭉툭한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불을 붙였다. 이윽하여 그는 후하고 긴 연기를 공중에 내뿜으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힘들지요?》

경수는 뿌연 땀방울이 즐번히 내뿜 그 목덜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몸도 좀 돌보면서 일하세요. 듣자니 전쟁때 다친 상처자리가 채 낫지도 않았다면서요?... 제 몸이야 제가 주의해야지. 처음보다 얼굴이 얼마나 훌쭉해졌는지 몰라요.》

《허, 이거 우리 총각이 제법 혼신을 하는데... 괜찮아. 내 몸은 아직 황소같으니까. 전쟁판에서도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아무렴 얼굴이 좀 훌쭉해지는게 뭐 큰일인가?》

최인국은 석란칠이라도 한것처럼 거무스레한 입가에 웃음을 띄운채 한쪽눈을 끔찍이느것이였다.

원경수는 잠자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최인국을 가까이에서 유심히 뜯어보았다. 아래눈시울에 잡힌 주름살때문에 항상 유쾌하게 웃는 인상으로만 보이던 그 얼굴에도 가까이서 보니 상처자리인듯 여러군데 허물자리가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때문인지 관골이 유난스레 두드러져나온데다 머칠사이에 더 움푹 꺼져들어간 눈화이며 얼어서 시퍼런 볼편 등이 경수의 눈을 아프게 자극했다.

(이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겠구나!)

그는 부지중 가는 한숨을 후 내쉬었다.

《인국형님, 제 한가지 물을게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도 아무 가책없이 살수 있을까요?》

《?!...》

두툼한 마라초를 한번씩 빨고는 담배가 타들어가는 모양을 재미있게 들여다보던 최인국이 뜻밖의 질문에 놀란듯 경수를 건너다보았다. 경수는 침울한 눈길을 한번 피곳 쳐들었다가 다시 불무지로 떨어뜨렸다.

《무슨 소린지 통 모르겠구나? 도대체 어떤 잘못이냐?》

《그건... 아니, 하여튼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말이에요?》

《흠... 그럴수는 없다. 절대로 아무 가책도 없이 살수 있다면야 그건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일인데두요?》

《그럴수록 가책이 더욱 크지.》

《그런데... 이런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요?저... 말하자면... 어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법에, 아니 원칙에, 그것도 아니에요. 량심에 꺼리는 무엇인가를... 하여튼 했을 때는 말이에요?》

불꽃이 튀는 소리만 탁탁 울릴뿐 잠시 침묵이였다.

《그렇다 해도 달라질건 없어. 네 말대로 인정에 끌려서 잘못을 저질렀다해도 말이야. 어쨌든 사람이 제 마음 내키는대로만 살수는 없지 않니.》

최인국은 이미 불이 죽어버린 마라초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우등불가에서 꼬챙이를 집어들었다.

《저, 형님은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있다. 왜 그러니?》

《몇이에요?》

《제집애하고 사내녀석이 있지.》

《아주머니두요?》

순간 최인국은 흠칫하며 번쩍 얼굴을 쳐들더니 굳어진 눈길로 경수를 바라보았다. 깊은곳에서 번뜩이는 눈동자에서는 이상한 빛이 뿜어나오고 구레나룻이 시꺼먼 볼편이 세차게 떨리는듯했으나 그 모든것은 순간이였다. 다만 담배대에 가져가던 불꼬챙이가 몹시 떨리는바람에 종시 불을 붙여내지 못했다. 그러나 경수는 머리를 숙인대로였으니 이것을 볼수없었다.

《도대체 그건 왜 묻는거냐?》

《대답해보세요 형님... 그 아이들과 아주머니가 굶고 병들어 누워있는다면... 어찌겠어요? 무슨 일을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야지요?》

《그 량심과 원칙에 꺼리는 잘못까지도 말이나?》

《그럴수도... 있어요...》

두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침묵이 군림했다. 문득 최인국이 소리쳤다.

《그래도, ... 그래도 같다, 같애!... 지금은 온 나라가 곤난을 겪고있는 때야. 어데 간들 누구에게든 그런 불행과 고통이 없겠니. 사람이 불행을 혼자서 이겨내기는 힘들어. 이런 때 한집안의 불행만을 제일로 내세우면 결국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때문에 돌이킬수 없는 일까지 저지룰수 있어. ... 그런 실례들을 나는 전쟁판에서 드문히 봤다. 작은 고통을 참지 못해서, 작은 슬픔에 포로되어서 사람이 종당에는 자신을 망치게 되지!...》

최인국은 쥐고있던 불꼬챙이를 획 불우에 집어 던지고 일어섰다. 불길이 흠칫거렸다. 삽시에 이 짙나무 불꽃들이 마치 물보라처럼 날아올랐다.

경수는 의문의 구름장들이 짝 덮인 흐릿한 눈길로 구멍이에 뛰어들어 얼음조각처럼 날카로운 흙덩이들을 파편처럼 휘뿌리며 곡괭이질을 시작한 최인국을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머칠후, 수굴공사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봉락사고가 났다. 사고는 지금 수굴해 들어가고있는 갱과 련결된 옛갱어구에서 났는데 마침 저녁때 사람들이 모두 식사하러 내려온참에 일어났다. 그런데 뒤교대 사람들이 올라가보고 뜻밖에도 머리에 타박을 입은채 의식을 잃은 최인국을 업고 내려왔다. 마지막에 남아 옛갱들을 돌아보겠다고 하더니 일이 그렇게 된것 같았다. 새까맣게 빛이 죽은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칼이며 솟구치듯 날카로운 관골에 말라붙은 검은 피자국,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키며 이따금 뭐라고 내지르는 헛소리. ...사람들이 그를 더운 방으로 옮겨갔으나 이튿날 새벽까지 정신이 없었다. 날이 채 밝기도전에 경수는 차를 몰고 탄광으로 내려가 의사를 데리고 왔다. 주사 몇대를 맞고나더니 최인국은 점심녘에야 의식이 회복되고 좀 있어서는 빙그레 웃기

까지 하는것이였다.

그날밤 원경수는 그의 곁에서 밤을 새웠다. 눈보라가 모질게 치는 밤이였다. 저녁무렵에 수면제를 먹고 잠든 최인국은 한결 안정되었는지 고르로운 숨소리를 내고있고 그옆에는 온종일 들볶이운 탄광진로소의 나이많은 의사가 꼬부리고 앉은채 졸고있었다. 경수는 어둠에 잠긴 방안, 휘푸름한 눈의 반사광만이 가냘프게 스며드는 좁은 창구멍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쳤다. 삐걱이는 소리… 도대체 무엇이 삐걱이는가? 집앞의 이깔들인가? 아니던 낡은 귀틀집인가?…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스스로 생각을 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삐걱소리는 끊임없이 단조롭게, 마치도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듯이 들려오고 또 들려왔다. 문득 승냥이울음소리가 들린다. 아니 눈보라소리일수도 있다!그렇지만… 그 순간 옥- 하고 강한 비람이 일면서 이 땅의 모든것을 휘감아갈듯 흰 눈보라가 좁은 창가를 날아지났다. 낡은 귀틀집이 통채로 들썩이는듯한, 하여 다음 순간에는 저 차디찬 밖의 광풍이 부는 눈속에 휘뿌려 던져지는듯한 착각이 들면서 불시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눈보라, 승냥이울음소리, 몰인정한 밤, 삐속으로 스며드는 추위… 이윽고 또다시 단조로운 그 소리가 들려온다. 아니 그 삐걱소리는 아니였다. 그렇지! 이것은 밤교대사람들의 메질소리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땅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어떻게 여기서 들린단 말인가?… 하지만 그 소리는 들린다! 경수는 더욱 긴장하여 귀를 기울인다. 분명 들려온다. 최인국을 비롯한 탄광사람들이 가락맞게 두들겨대는 예리한 금속음이 가슴속을 파고들며 강한 자극으로 한번 두번… 아니 수십 수백번을 거듭하여 들려오지 않는가?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기쁨처럼 번지르르한 땀발이 내뿜은 온몸을 들리지 않는 그 어떤 신비로운 가락에 맞추듯 룰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도간도간 웨치는것이였다. 《여보게 총각, 장가갈 땐 알리라구!》 웃음소리… 문득 발밑이 푹 꺼진다. 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경수는 앞으로 내달리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친다. 《굴이 무너져요! 빨리 피하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들은척도 안하고 그냥 수격수격 일손만 다그친다. 그 순간 다리가 무엇인가 걸체이며 그는 허공에 나가 떨어졌다. …

원경수는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식은땀이 내뿜은 이마며 뒤통등이 선탄선특했다. 그는 주위를 휘둘러보았으나 여전히 고요, 숨소리, 눈의 푸른 반사광… 뿐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충 옷을 걸쳐입고 옆집으로 건너가 구석에 누워

자는 한택영을 더듬어 깨웠다. 그는 아직 잠도 채 깨지 못한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택영을 차에 태우고 달빛에 드러난 령길을 조심조심 닦아 가며 함지골로 내려왔다. 거기서 원목을 한차 실고 그길로 읍거리 목공소에 달려가 팔았다. 판돈으로 그는 장마당에서 쌀과 고기와 기타 부식물들을 사들고 오전중에 요류산골짜기로 되돌아왔다. 경수는 개발대식당으로 쓰는 자그마한 귀틀집부엌 바닥에 가지고 간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식모아주머니에게 《인국형님만 대접하랴요!》 하고 피곤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돌아서 나왔다. 그는 자기가 한일이 잘된것인지 아니면 잘못된것인지 구태여 돌이켜볼 여유도 없이 지친 몸을 운전실좌석에 털썩 던지고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2월도 한중간이 다 지나고 바야흐로 마지막 숨을 쉬고있었다. 우수가 물러가고 경첩이 코앞에 접어들고있지만 산골날씨는 여전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기에 대한 타성적인 미련때문인지 아니면 정월달추위에 어느정도 익숙된탓인지 어쨌든 추위가 한결 수그러들었다고 말했다. 누구는 정말로 점심식사후 양지쪽에 흰 가마니를 들고나가 앉아 엽초 한대를 흐뭇이 말아피우기까지 했다. 처마에 주렁주렁 매달린 고드름이 녹으면서 푹푹 떨어지는 락수물이 바닥에 고이는것을 보느라면 어느덧 추위가 사라지고 봄이 완연하게 다가오는듯한 생각에 빠져 저도 모르게 가슴이 흐뭇해진다는것이였다. 양지쪽의 눈더미들도 낮이면 해볕에 녹아 벌둥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군 하는데 그 밑에서 골바닥을 흐르는 내물소리조차 들리는듯 싶었다. 가을하늘처럼 질푸른 창공, 가없는 공간에는 눈부신 해빛이 차넘치고 우듬지에 마치도 흰 눈무지들을 야영모처럼 눌러쓴 침엽수들은 수림속에서 청록색잎새들을 반짝이며 즐겁게 내다보고있다. 청아한 산새울음소리, 따스한 별, 맑은 공기… 언제나 엄혹하기만 한것이 결코 산골짜기의 겨울이 아니였다.

최인국이네의 공사량도 그럭저럭 많이 축났다. 열흘전에 드디어 전주공사를 완공하고 변압기를 실어다 첫 전등을 켜다. 뒤이어 탄광에서 보낸 제재기도 설치하여 필요한 목재들을 자체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늘 빼거리던 문짝들도 수리하고 판자들로 가건물도 더 짓기 시작했다. 타박상이 좀 나은듯하자 최인국은 절대안정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권고를 뿌리치고 벌써 한주일째 요류산에 와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탄광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북선탄광에 가서 이미 계약되어있는 압축기와 착암기들을 실어오라는것이였다. 최인국은 그길로 원경수네와 함께 탄광으로 내려왔다.

그날저녁에 택영은 경수를 이끌고 목공소집으로 갔다. 오래간만에 그들은 기름기 있는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치자 문득 중키에 표정이 부산스러워 도대체 나이를 짐작할수 없는 목공소주인이 택영을 슬그머니 건너방으로 부르는것이였다. 얼마후에 택영은 한손에 큼직한 보따리를 들고 침울한 얼굴로 나왔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웃가지들이야. 애들거하고 우리 처 못하고, 그런데...》

택영은 잠시 말끝을 흐리었다가 계속 이었다.

《...령감이 또 부탁이구나. 우리가 복선에 설비실러 간다는걸 알구서는 어찌나 찰떡처럼 달라붙는지...》

《무슨 부탁인데요?》

《복선에서 한 칠십리 올라가있는 상흥면의 자기 삼촌집에 들려달라는거야. 양주업을 하는 집인데... 뭐 술 다섯통을 언제부터 사놓고 차편이 없어서 못가져온다면서...》

《아니, 그령감이 술은 그렇게 많이 가져다가 팔 하자는게요?》

《글쎄... 아마 여기서 술값이 거기보다 비싸니까...》

《그럼령감이 이젠 술장사까지 하겠다는거요? 원 욕심두... 못해주겠다고 하랴요. 젠장... 우리차가 뭐령감네 전용인가? 한두번 해줬더니 재미가 붙었구려...》

원경수는 불식간에 화가 치받쳐 소리쳤으나 택영은 꺼지게 한숨만 쉬는것이였다.

《나도 차라리 홀몸이라면 백번도 그렇게 말했겠다. 하지만...령감이 이 모든걸 공짜로 주는거야 아니지 않니.》

경수는 택영의 손에 들려있는 옷보따리에 저도 모르게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그 순간 까닭없이 불쾌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물론 그것은 목공소주인에 대한것이겠지만 완전히 그런것도 아니였다. 그는 이즈음 택영의 집으로 찾아갈 때면 빈번히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군했다. 이제는 근 두달간의 《뒤겨래장사》덕에 그의 집은 어느정도 눈에 띄게 변했다. 피기없던 어머니며 아이들의 얼굴에 화기가 돌았고 또 애들도 제 또래들 중에서 그중 괜찮게 옷들을 입고 다녔다. 택영의 집식구들은 택영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수가 갈 때마다 애들은 《삼촌, 삼촌!》하며 다정스럽게 따랐고 안주인은 빨래감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매번 《꾸지람》이였다. 어쨌든 이 모든것들은 즐거운 일임이 틀림없었으나 웬일인지 그의 마음속 불안과 또 하나의 새로운 감정인 일종의 혐오감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딱히 알수 없었다.)은 더해지는것이였다. 특히는 봉락사고이

후 더 수척해진 최인국과 탄광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마을애들의 초췌한 모습을 볼때면 그러한 감정이 한층 강렬한것이 마치도 온몸을 불태우는듯하였다.

경수는 느닷없이 번거로와지는 생각들을 머리속에서 애써 쫓아내며 중얼거렸다.

《제길, 할수 없지... 차라리 래일 아침에 인국형님한테 말해보랴요. 혹시 여유가 생기면 승낙할지도 모르니...》

《글쎄 어떻게겠는지... 이런 일은 워낙 떼뻑치 못해와서...》

그러자 문득 경수의 머리속에는 그전에 전주공사장에서 최인국이와 하던 말들이 생각났다.

(그래, 아마 그형님이 승낙하지 않을수도 있어...)

두사람은 저마끔나름대로의 무거운 생각에 잠긴채 어두운 탄광골목길을 걸어갔다.

이튿날 그들은 아침일찌기 조반을 먹고 길을 떠났다. 삼천탄광에서 복선까지는 룡백여리 잘되었다. 하여 새벽처럼 떠난 최인국이네들은 그날 늦은 저녁무렵에야 목적지에 도착할수 있었다. 러관식당에서 대충 저녁을 먹고는 그길로 탄광지배인을 찾아갔다. 그러나 지배인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출장을 떠났는데 아마 래일 오후쯤이나 되어 돌아올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탄광사무실에 나가아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거의 하루라는 공간시간이 생기자 세사람의 심리는 저마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최인국은 혹시 도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설비이관이 취소되지나 않았는지 하는 불안과 근심에 휩싸였고 경수와 한택영은 뜻밖에도 여가시간이 생긴것이 더없이 기뻐으나 정작 어떻게 말을 해야 최인국이 승낙해주겠는지 알수 없어 일각이 천추같이 느껴지는속에 안절부절하고있었다.

《저... 대장동무, 한가지 딱한 사정이 있는데...》 목마르게 우물판다고 마침내 한택영이 먼저 말꼭지를 뱉다.

《...여기서 한 칠십리쯤 올라가있는 상흥면이라는데서 우리 삼촌내외가 살고있소. 전쟁전에 만나보고 아직 한번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소식도 모르고있겠는데, ... 어찌겠소? 좀 승낙해주시오. 지배인이 온다고 해도 오후 늦어서나 아니면 밤에 오겠는데 어쨌든 오늘 떠나기는 틀린게 아니요.》

원경수는 머리를 숙인채 잠자코있었다. 웬일인지 한택영의 말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콧속 찌르는것처럼 느껴지고 마치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것처럼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면서 숙인 머리만 더 깊이 숙이게 되었다. 최인국은 한동안 아무말

없이 택영의 구레나룻이 시켜면 불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긴 한숨과 함께 승낙했다.

《그럼 가보우. 그렇게 오래 헤어졌으면 친척이 차마 거절하기는 힘들구만… 그런데 정말 제시간에 올수 있소? 저녁전에 말이요?》

《그건 약속하오. 냅다 밝으면 왕복 너덧시간밖에 안걸릴거요.》

한결 밝은 표정이 되어 돌아서 나가는 한택영의 뒤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두사람의 심정은 역시 나름대로 착잡하였다.

지배인은 저녁무렵이 다 되어서 돌아왔다. 그는 최인국네를 반갑게 맞아주고는 제격 공무직장에 전화를 걸어 쓰지 않는 압축기와 착암기들을 상천탄광사람들에게 주라고 지시하는것이였다. 압축기는 조금 쓰던것이지만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고 착암기들도 그중 몇대만 수리하면 한동안 잘 쓸수있는것들이였다.

《됐구나, 됐어!》

최인국은 너무 좋아 어린애처럼 기뻐날뛰였다. 경수는 그가 것처럼 좋아하는것을 처음 보았다. 그는 초면인 복선사람들에게 유쾌한 익살과 통담을 마구 던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독한 염초를 권하기도 하면서 줄곧 떠들썩해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류갱이 조업하는 날에는 큰 잔치를 차릴테니 그때 초청하면 모두들 꼭 오라는것,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칙으로 자기가 여기 찾아와서 술 열사발씩 먹이겠다고 호통을 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불안과 근심으로 바뀌어졌다. 려관식사도 다 끝나고 공무직장사람들도 모두 퇴근한 빈 창고앞마당에 설비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지도 어언 여섯시간이 되어오도록 한택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낮동안은 제법 봄날씨답게 따스하던 기온도 밤이 되면서부터 점차 식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쌀쌀한 바람까지 불어왔다. 그들은 마당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끄덕끄덕 졸면서 온밤 기다렸다. 아득하게 멀리 쳐다보이는 흰 별들마저 차거운 빛을 뿌리는듯 등 골이 으스스해났다.

《혹시 택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닌가? …》

최인국의 자신없는 중얼거림이 들렸다. 원경수는 아무 대꾸도 안했다. 그의 마음은 몹시 불안하고 초조했다. 끝없는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다. 한택영이 상흥면에 간 진짜 이유를 사실대로 말할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시간에 오지 못하는것을 과연 변명할수 있는가?... 없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렇지만 이 성실한 사람을 속인다는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아니 그것때문만도 아니다. ... 아, 어쩌서 남을 도와준다는게 이런 시시한 일들과만 맞닥뜨리는가?... 그는 오래

동안 모닥불의 불그레한 불길과 주변에 웅크리고 있는 깊은 어둠을 주시하였다. 문득 눈길을 들어 최인국의 얼굴을 살폈다. 모닥불이 반사되어 한결 더 움푹해진 눈이며 두드러진 관골 등의 명암이 불그림자를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저 형님께도 아이들과 아주머니가 있다고 했지. ... 그런데 저 형님은 그들을 위해서라 해도 량심에 꺼리는 일만은 할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 도대체 택영은 어쩌서 안오는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어느덧 려명이 밝아오고 마침내 탄광사람들이 출근하였다. 그들은 밤새 창고마당에서 우들우들 떨며 앉아있는 최인국이네를 보며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지배인은 오늘아침에 삼천탄광에서 전화가 왔길래 어제저녁 설비들을 다 주었으니 벌써 떠났을게라고 말했다는것이였다. 그들은 정오까지 더 기다렸으나 여전히 택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심후에 최인국은 경수더러 설비를 지키게 하고 어데론가 갔다왔다.

《방금 상흥면에 시의전화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구나. 이제 다섯시까지도 오지 않으면 달리 행동해야겠다. 오는길에 역에 가 알아보니 다섯시반에 우리 탄광쪽으로 가는 화물열차가 있다누나. 다행히 조역이 나와 꾀낮이나 아는 사람이어서 계속 조르니까 승낙했어... 그러니 좀더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그편에 싣고 가자. ...그런데 경수, 너 여기 남거라.》

《그건 왜요?》

《아무때건 택영이 올테니 그때 같이 오너라. 그리구 화차에 원목들을 실어서 타고가기두 불편해...》

《그래도 같이 가자요.》

《글쎄 두말 말구 시키는대로 해라!》

원경수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다섯시 좀 넘어서 그들은 탄광차를 빌려 설비들을 싣고 역으로 나갔다. 경수는 마지막에 압축기며 부속품들, 착암기까지 다 실은 열차를 쳐다보고는 혀를 내들었다. 최인국은 압축기 꼭대기에 한 가마니 몇장과 버짚단으로 대충 바람막이를 해놓고 그우에 불편하게 붙여가려는것이였다. 게다가 아침부터 흐려 있던 하늘에서는 겨울이 마지막 모지름을 쓰는지 진눈까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설비들을 덮은 가마니며 원목더미들이 이미 물기를 머금고 번들거렸다. 《형님, 저우에 타구서야 어떻게 가겠어요. 더구나 날씨가 이렇게 스산한데...》

《그렇다구 사람이 따라가지 않을수도 없지 않니?》

《그럼 기다리던바엔 차라리 하루 더 기다리자요. 혹시 오늘밤에라도 올수 있지 않아요?》

《그러다 오늘밤에두 오지 않으면 어쩌겠니? 별

써 하루나 공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화물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게 뭐예요?그리구 안다해도 이렇게 위험해서 못싱구 왔수다 하면 리해할게 아니예요.》

《글쎄 네 말이 옳을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제 량심이야 어떻게 속이겠니?세상 어떤것은 다 속여두 자기만은 속일수 없어... 지금 오류산에서는 착암기 없이 맨손으로 굴을 뚫고있지 않니? ...》

《형님은 정말 고집이 여간 아니군요, 그전에 전주공사할 때도 그렇게 말하더니... 생각나요? 사람이 량심에 꺼리는 일을 하고는 살수 없다고 하던 말이...》

《그래 생각난다.》

《그래두 사정에 따라서는...》

《아니다. 사람이 제 한몸만 편하게 살자면야 별나게 다 살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도대체 원칙은 어데 있구 량심은 뭇때문에 필요하겠니? 이렇게나 저렇게나 한번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량심에 꺼리는 일을 하면 일생 그때문에 피로워하게 된다. 명심해둬라.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

《그러니... 언제나 원칙대로만 살라는거겠지요.》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게 몹시 힘든이야, 몹시!...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지... 별치 않은것때문에 자기를 후회할 때도 있으니까!...》

경수는 더 이상 말을 않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한순간 그의 머리속으로는 그 어떤 불안스러운 느낌이 회오리바람처럼 스쳐지났다. 그와 함께 까닭없이 역증이 났다. 아니, 그것은 이미부터 간간히 느껴오던 막연한 불쾌와 혐오가 불러일으킨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한택영이 증오스러웠다.

그리고 자기자신도 증오스러웠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찌하여 자신의 소행에 대해 이처럼 혐오를 품게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처음에 택영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했었다. 인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정상을 보고 어찌 외면할수 있겠는가.

하여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 선의가 불쾌와 혐오로 바뀌어졌는가? 술통을 실으려 택영이 상흥면에 간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혹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감정이 마음속에 내재하고있었으나 그저 단지 경수 자신이 이것을 외면한채 인정 하나만에 끌려 오늘의 처지에까지 이른것이나 아닌지?...어쨌든 원경수는 최인국에게서 떨어질수 없는 자신을 느꼈다.

진눈까비 휘뿌리는 스산한 역두, 축축히 젖어

든

낡은 솜옷을 걸친채 근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어텐가를 바라보는, 이제 조금후면 비바람속에 우들우들 떨며 먼길을 가야 할 최인국의 모습을 보느라니 불안과 증오가 한층 더해갔다.

(이제라도 왔으면...)

경수는 초조한 눈길을 들어 뿌연 비안개속을 바라보며 뜻밖의 기적을 바라는 철부지 소년처럼 속으로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마침내 긴 기적소리가 몇번 울리더니 덜커덩소리와 함께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인차 따라오너라, 경수.》

《형님, 정말 떠나겠어요?》

경수는 인국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은채 부질없는 물음인줄 알면서도 소리쳤다.

《그만 떨어져라!》

《형님!...》

경수는 얼마간 더 기차를 따라가다가 멈춰섰다. 최인국은 화차의 한 귀퉁이, 압축기우에 불안한

자세로 서서 한손으로 원목더미를 고정시킨 쇠바

줄을 붙든채 다른 손을 높이 쳐들어보였다. 인상적인 웃음을 지은 두눈이 차츰 멀어져갔다.

(잘못했어. 형님에게 사실대로 모두 말했을걸...)

원경수는 또다시 눈길을 돌려 뿌영게 사라진 자동차도로쪽을 살폈다. 역구내는 방금 도착한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역양센 북관사투리가 여기저기서 날아오르고 누군가의 짐짝이 뒤통수를 후려쳤다. 순간 경수는 그 어떤 이름못할 충동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열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눈앞을 지나가는 마지막 차량에 힘껏 매달렸다.

(형님을 그대로 혼자 보낼순 없어!...)

구내를 빠져나온 열차는 또 한번 긴 기적을 울리며 북선땅의 마지막 산굽이를 에돌고있었다.

차거운 눈과 비물에 젖은 화차의 철판들은 몹시미끄러웠다. 경수는 차량 하나하나를 긴장한 노력속에 넘어갔다. 마침내 원목화차에 이르고 보니 축축한 뒀잔등으로 땀방울이 흘렀다.

최인국은 경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차의 저편 구석에서 압축기를 붙들고 씨름하고있었다. 그는 바닥이 고르지 못해 덜컹 거리는 압축기를 고정시키느라고 한손으로는 압축기를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원목짚에 끼여있는 나무토막을 꺼내려고 애썼다. 그것으로 압축기바닥에 썰기를 박으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차가 들추고 비물에 손이 미끄러워서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국은 눈비에 폭 젖은 뒀잔등을 하늘로 향한채 얼굴과 목덜

미로 마구 흘러들고 날아드는 차거운 눈꽃이며 비물을 흠칠넘도 못하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허물자리가 유묘하고 관골이 두드러진, 아직 병색이 채 가셔지지 못한 인국의 얼굴은 과도한 힘 때문에 검붉게 달아올랐다. 정수리에는 희끗한 얼음조각들이 엉켜붙었고 압축기를 붙든 왼쪽팔은 힘에 겨운듯 가늘게 떨렸다.

원경수는 《형님!》하고 소리치려 했으나 웬일인지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그는 다급히 통나무더미를 타고넘어가기 시작했다. 가늘게 떨던 인국의 왼쪽팔이 한층 더 세게 떨리는것이 눈에 띄었다. 진눈까비는 차가 령길에 들어서자부터 더욱 세차졌다. 작은 얼음조각들이 살갓을 아프게 때렸다. 그것들은 조금의 꺼려도 없이 별경게 드러난 인국의 목덜미로 날아들고 또 들었다. 마침내 최인국은 토막나무를 끄집어내는데 성공했고 그것을 압축기밀동에 끼워넣었다. 그리고는 든든한가 몇번 흔들어본후에 벗겨졌던 가마니며 버짚단들을 다시 설비들에 덮었다. 그리고나서야 인국은 압축기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더니 뿌연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달아오른 머리를 식혔다. 그 순간 경수는 처음으로 그렇게 흐뭇해하는 최인국의 모습을, 마치도 소원을 성취한 어린 애처럼 시름없이 웃는 그를 보았다. 인간의 진심이란 언제나 남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것이다.

(형님은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요!)

원경수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웨쳤다.

(...저렇게 어진 사람을 속이고 고생시키는건 정말 더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자 경수의 마음속에서는 택영에 대해 품고있던 이전의 동정이며 런던의 마지막 조각이 떨어져나갔다. 그런 뒤에 찾아든것은 참을길없는 분노와 증오뿐이었다.

《형님, 내가 왔어요!》

최인국은 뜻밖에도 나타난 경수를 보고 놀랐다.

《아니, 네가?... 남아있으라구 했는데 기어코 따라왔구나. 어쨌든 여기 앉아라. 옷이 다 젖었구나...》

인국은 젖은 옷을 입고 우들우들 떨고있는 경수를 가마니로 대충 바람막이 해놓은곳에 앉혔다.

그리고는 서둘러 솜동복을 벗어 경수의 잔등에 씌워주는것이였다.

《아니, 일없어요.》

《그러지 말구 입어라. ... 그건 그렇구. 헌데 왜 부득부득 따라왔어?》

《형님하구 같이 갈려구요.》

《그럼 택영인 어떡하구?》

《그 형님말은 하지도 말라요. 그는 형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요.》

《그건 무슨 소리냐?!》

《택영형님이 왜 상흥면에 갔는지 알아요? 뭐 친척집에 간다구요? 흥,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 뭐가?》

《진짜는 바루 읍목공소집 술심부름을 갔단말이에요!》

경수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똑똑히 알거나 하구 하는 소리야?》

최인국은 놀람과 의문과 긴장이 한꺼번에 어려 심각해진 얼굴로 물었다. 그러나 경수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짐을 느꼈다. 그는 비안개의 뿌연 장막으로 둘러막힌 공간을 바라보며 조용히, 때로는 격하여 모든 사연을 이야기했다.

렬차는 힘겹게 청암령을 뚫아오르고있었다. 전쟁이 남겨놓은 자취들인 철쭉주변의 폭탄구덩이며 휘여든 레루토막, 녹슨 쇠붙이들 그리고 휘뿌연 대지전체가 렬차에 매달린듯 증기차는 목선 소리를 거세게 연방 내질렀다. 원경수의 이야기가 끝난 뒤 두사람은 오래동안 이러한 정경에 눈길을 준채 차거운 진눈까비도 아랑곳없이 묵묵히 자기들의 생각에 잠겨버렸다.

이윽고 최인국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경수, 넌 아무래도 다음역에서 내려야겠다.》

《왜요?》

《복선에 가서 언제까지든 한택영을 기다리다 함께 오너라.》

《뭐라구요?!》

경수는 도대체 인국의 말을 이해할수가 없었다.

《물론 네 심정은 알만하다. 택영의 행동은 좋지 않은것이야. 아니, 대단히 나쁜것이. ... 그러나 그도 사람이야.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일이다 있을수 있어.》

《난 도무지 형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뭇때문에 그 사람을 동정하라는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두요?...》

《...》

최인국은 뭔가 말할듯하면서 한동안 바재이는 것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납득시켜야겠으나 그럴만한 말이 선뜻 떠오르지 않아 안타까와하는 표정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년 아직 내 말을 이해 못했구나... 난 결코 누굴 동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넌 이런걸 알아야해. 언제 어느때나 사람을 욕하고 그의 나쁜 점을 타매하기는 쉬워두... 그러나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것은 힘든 일이야. 사람의 일생에는 어려울 때도 피로울 때도 있어. 그런 처지에서는 누구나 택영이처럼 행동하기 쉽지. 그렇다구 그 사람들이 모두 본심이 나빠서 그러겠니? 아니다. 그저 한때의 어려움과 곤난을 견디지 못해서...

흔히 하는 말처럼 의지가 양심을 지켜낼만큼 굳세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거야. …》

최인국의 목소리는 찬비속에서 더욱더 열기를 띠고 울렸다. 그는 한동안 말을 끊고 비물이 흐르는 얼굴과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문지른후 계속했다.

《…이런 때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게 뭐겠니? 물론 비판과 질책도 필요하지. 그리고 강한 제재도 취할수 있어. … 그러나 보다 더 힘있는 것은 뜨거운 사랑이야! 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에, 뜨거운 정에 울고 웃는 법이다!내가무슨 말을 하자는건지 알겠니? 이제 다 음역에서 내려라. 그리구 북선한판에 다시 가서 택영을 기다렸다가 함께 오도록 해라!》

원경수는 침묵속에 대답을 안했다. 물론 그는 최인국의 말을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그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그것이 그저 택영에 대한 동정이나 무원칙한 비호가 아니며 보다 크고 넓은 무엇이, 아직은 경수 자신이 어렴풋하게밖에 이해할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수 있는 그런것임을 느꼈다. 그리고 또 최인국의 말대로 행동하는것이 옳으리라라는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택영을 용서하고 북선에 돌아가서 그를 기다리기에는 원경수의 마음속에 품고있는 감정— 이전에는 택영에 대한 더없는 동정과 연민으로 일관되었던 인정, 그러나 지금은 참을길없는 혐오와 증오로 바뀌은 그 감정이 너무나도 강했다. 경수의 마음속에서는 최인국의 뜨거운 인간미에 감동되는 그만큼 정반대하여 택영에 대한 혐오감이 커갔던것이다. 하여 그는 오래동안 입을 다문채 어둑어둑해오는 저녁의 비안개속을 바라보며 가없는 생각의 바다에 빠져있었다.

청암령 마루에 올라서자 눈비는 더욱 세차졌다. 바람까지 한결 기세를 돋구어 망향없이 홀날리는 날카로운 눈꽃들이 눈앞을 뽀얗게 가리웠다.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때이르게 찾아든 어스름이 벌써 주변을 에워싸 조금전까지도 희미하게 보이던 철쭉열의 폐허며 수림이 지금은 모두 거무스레한 하나의 색깔을 가진 동질의 물체로 보였다. 최인국이 설비들의 안정상태를 검열하려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저편 구석으로 가는것을 보면서 원경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한이 나고 춥고 참을수 없는 줄음이 밀려들었다. 어제 온밤을 새운데다 찬비까지 맞은 후과가 나타나는 모양이었다. 귀전에 들려오는것은 바람소리, 비소리… 그리고 레루 련결짹을 넘어가는 련차의 달그락소리뿐이었다.

문득 그때 어데선가 특— 하는 웅글은 소리와 함께 《경수, 반동놈들이다!》하는 최인국의 목갈린 웨침이 들려왔다.

원경수는 한동안 그 웨침의 의미를 리해하지 못한채 멍하니 있다가 불시에 정신이 확 들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여전히 주변은 어둠뿐 비, 눈, 바람… 설비들이 있는 저편 구석에서 검은 형체들이 얼른거리고 맹렬한 격투의 소음이 들려왔다.

《경수, 기관차에 신호해라!》

그러나 경수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하라는것인지, 기관차까지 달려갈것인지 아니면 소리라도 크게 칠것인지 알지 못하고 헤덕뻗었다. 그는 그저 《형님, 형님!》하고 같은 소리만 웨치며 무작정 앞으로, 검은 피한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원경수는 눈앞이 불시에 캄캄해지며 온갖 소음이 귀전에서 사라지고 자신은 그 어떤 거대한 압력에 짓눌리워 알길없는곳으로 떨어지는듯한 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뒤머리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그자리에 쓰러졌다. 쓰러지는 순간에 《경수, 피해라!》하는 최인국의 목선 고함소리만 어렴풋이 들었을뿐이었다.

청암령지구는 전쟁시기부터 반동놈들의 준동이 심한곳이었다. 그날밤 련차습격을 감행한것은 이미 53년도에 각개격파된 부대의 잔당들이었다. 놈들은 원목화차에 달려들어 불을 지르고 (전쟁이 끝난 이후로 거의 반년째 놈들은 보급로가 막혔기때문에 레루를 폭파할만한 화약이 없었던것이다.)기관사와 련차승무원들을 살해하려고 했던것이다. 그러나 놈들의 습격은 실패했다. 기관차와 화차에 달려들었던 놈들이 모두 격투끝에 세놈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났던것이다.

원경수가 이튿날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군내무서의 상위와 탄광지배인이 사연을 말해주었다.

《…그런데 인국형님은, 형님은 어떻게 됐어요?》

두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고 한동안 침묵했다. 경수는 그들의 침묵과 찌릿하게 코를 자극하는 병원특유의 냄새, 그리고 어쩔수 없는 육감으로 예측되는 불길한것에 대한 징조를 온몸으로 느끼며 불시에 머리가 핑 돌았다. 눈앞에는 무수한 동그라미들, 각이한 크기에 각이한 색깔을 가진 의미를 알수 없는 동그라미들의 원무가 펼쳐졌다. 현실인지 아닌지 믿을수 없는 세계에서 울려오는 최인국의 거센 목소리- 《경수, 피해라!》하는 음향이 증폭되고 증폭되어 마침내는 청각을 메워 들리지조차 않았다. 그는 두번째로 의식을 잃었다. …

…실오리처럼 가냘프게 타오르는 한줄기 연기, 향불에서 풍겨나오는 야릇한 의미, 구석쪽에서 울려오는 아낙네들의 억눌린 울음소리, 침울한 눈빛들, 묵묵한 얼굴들… 원경수는 다시 의식이

회복된 이튿날, 최인국이 사망한지 사흘째 되는 날에 걸어서 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그냥 동인채 지배인이 부여주는 술잔을 제상앞에 놓고 초점이 흐린 눈으로 멍하니 책상위에 놓인 고인의 사진— 전쟁전 탄광혁신자모임에서 찍었다는 아직 삼십전의 유쾌한 청년 최인국의 웃는 얼굴을 점토록 바라보면서 한정없는 회오에 잠겼다. 조금 우묵한 눈썹, 그러나 한껏 웃음을 머금은 두눈, 빼어진 관골… 그 모습은 금시라도 너털웃음을 터치며 《여, 총각 뭘 그리 우울해 있는거야? 잔치땀 날 꼭 청해야 돼!》하고 소리칠듯싶었다. 아니, 아니! 그는 죽지 않았다. 그저 잠시 어데론가 가고 없을뿐이며 여기 놓인 사진과 작은 제상과 향나무에서 피어오르는 한줄기의 연기, 그리고 아래옷방에 비좁게 들어앉아 침울하게, 조용히 속삭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등은 전혀 현실이 아닌 그 어떤 꿈속의 환상같은, 이제 이순간이 지나가고 꿈이 깨여 정신이 들면 삽시에 잊혀져버리고 이전의 모든것들— 유쾌하고 정다운 최인국의 얼굴을 다시 보고 지독한 엽초냄새도 다시 맡을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러나 꿈이 아닌현실은 경수의 부릅뜬 두눈으로 바라지도 않은 자기의 자태를 뚜렷이 드러내며 다가들지 않는가! 누를길없는 가슴속 격정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마침내는 한줄기 흐름이 되어 두볼을 타고 서서히 흘러내렸다. 아, 일은 이렇게 되지 않을수도 있었다!그때 역전에서 어떻게 하나 못떠나게 했더라면… 한택영이 상흥면에 가지 않았어도, 아니, 그보다도 경수자신이 택영의 일에 무원칙하게 동조하지만 않았어도 일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것이다! … 후회, 후회, 끝없는 후회가 막을길없이 쏟아지며 온몸을 견잡을수 없는 자책의 소용돌이속으로 밀어넣었다. 몸부림치고 또 쳐도 소용없는 안타까움!…

문득 귀전에 울리는 어느 아낙네의 울음섞인 목소리.

《에그… 예미 없는 저 불쌍한것들이…이젠 아버지마저 없으니…》

순간 거대한 채찍에 얻어맞은듯 경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저 애들 어머니가 없소?》

《전쟁말기에 잘못됐수다. … 매일밤 엄마를 찾는 애들을 데리구 철수 아버지가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게…》

《!…》

경수는 호흡을 거의나 하지 못한채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제상 한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칠팔세 된직한 오누이의 모습이 찌릿하게 안겨왔다. 동생인듯한 사내애는 겁먹은 두눈을 커다랗게 홑뜬채 때이른 시련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가슴을 활짝거리며 방안에 물려선 어른들을 쳐다보고있다. 빛이 밝은 군복저고리를 서툴게 줄인, 그렇지만 아직도 자루처럼 커다란 옷을 걸친 그 애의 유난히 솟아난 관골만은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 엄마잃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전에 저 어린 가슴들이 또… 언젠가 전주공사장에서 하던 최인국의 말이 생각났다. 《지금은 온 나라가 곤난을 겪고있는 때야. 어데 간들, 누구에겐들 그런 불행과 고통이 없겠니…》

경수는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생활은 얼마나 복잡한가? 그 밑바닥은 과연 어데인가?사람들,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긋비슷해보여도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결국 나름대로의 슬픔과 고통,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는가!… 그 어떤 철리처럼 느껴지는 엄숙한 생각의 룬무속에 휘말려든채 경수는 점토록 앉아있었다. …

최인국의 장례가 있는 며칠뒤에 탄광마을에서는 한택영이네가 누구도 모르게 없어졌다. (그는 상흥면에 술 실으러 갔다가 도중에 차가 고장나 이틀후에야 돌아왔었다.)어떤 사람의 말이 택영은 차에 싣고 왔던 술통들을 모두 삼천강가에 싣고나가 버랑덕에서 굴러버리고는 그길로 최인국의 묘지를 찾아가서 점토록 통곡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행방을 감추었는데 가족과 함께 먼 친척집으로 이사갔다는 말도 있었다. …그로부터 몇달후에 드디어 오류갱이 조업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최인국의 어린 두 자식을 학원에서 데려가고…

원경수는 조업식날 산에 가서 어린 단풍나무 두그루를 떠다 갱어구에 심었다.

이제는 세월도 퍼그나 흘렀다. 그 나무들도 지금은 아름드리 거목이 되어 해마다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있으며 새들은 우듬지에 보금자리를 꾸렸다. 가을이면 두그루의 나무는 불타는듯 유난히 빨간 잎사귀를 햇빛에 반짝이며, 바람결에 설레이며 끝없이 무엇인가 속삭였다. 많은 사람들이 갱으로 오갈 때면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머리 흰 지배인 원경수도 역시 그 못사람들중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신비스러운 그 소리를 듣고 또 듣는다.

자유의 노래, 행복의 노래

주민

1

나는 지금
주체사상탑이 높이 솟은
대동강변을 거닐며
우리 행성의 먼 서쪽
허드손 강반에 서있는
《자유의 녀신》상을 생각해본다

여기 주체사상탑이
인간존엄의 화불을 황황 태워올리며
온 누리에
자주화의 새봄을 부를 때
《자유의 녀신》은
딜고선 인디안의 해골을 치마폭으로 가리우고
지금도 《자유》를 떠벌인다...

나는
철학가도
역사가도 아닌
이 나라의 이름없는 시인

하지만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길에서
군복을 입은적도 있는 공민의 권리를 안고
참된 자유도
그 길에서만 꽃필수 있는
위대한 주체위업을 받드는 긍지를 안고

나도 오늘은
세계를 향해
목청을 높이노라
심장의 노래를 터치노라

자유...
그 말을 외우면
흘러간 수천년 인간세월이
마음속에 다시 굽이쳐오고
그 말을 외우면
창검들이 빛발치고
기발들이 피에 젖던 무수한 격전장이
눈앞에 다시 펼쳐져

아 얼마나 긴긴 세월이
얼마나 진한 피의 강물이
자유여

너를 위해 흘러야 했던가

지난날
인류의 정의투사들은
자유를 위한 폭포에 떨어져 부서진다 해도
그것은
무지개를 안은 구슬처럼 빛나는 삶이어서
한몸 기꺼이 그 길에 바친것이니

오,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빨며 자라난것!...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그 말을
피같은 진정이 없인
함부로 외우지 않건만

오늘 세계의 여러곳을 둘러보면
너무도 어지럽구나
제국주의 피한들이 불어대는
《자유》타령이...

일찌기
약육강식의 제놈들 세상에
《자유세계》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붙인자들...

오, 인류의 량심들이여
코를 막지 않고서야
악취나는 그 세계를
어떻게 들여다볼수 있으랴

수천만 인민대중의 피값에
몇몇이 향유하는 자유
돈과 권세의 뒤킴이면
개까지도 도시의 시장으로 선거되는
《자유세계》

기아와 빈궁에 빠진 사람들이
거지노릇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몸을 팔아도
그것을 《개성의 해방》이라고 떠드는
《자유세계》

오만가지 반동사상이 마약처럼 퍼지며
정신불구자로 인간자체가 파멸되고
패륜과 패덕
살인강도가 판을 쳐도
그것이 《인권옹호》로 치부되는
《자유세계》

아, 우리 사는 이 행성을
한번 대청소를 한다면
정의의 비자루로 먼저 쓸어낼것이
그 오물세상인데

무엇때문이나
그 오물장에
분칠을 자꾸하는것은

정녕 무엇때문이나
그처럼 기를 쓰며
부르쥔아 자유화바람을
사회주의의 문틈으로 불어넣으려는것은

세상엔
도적일수록
도적에 대해 말을 더 하고
매춘부일수록
정절에 대해 말을 더 한다는 격언이 있어

력사와 생활은
자기 존재가 위태로운자일수록
비방을 일삼고
거짓에 매달림을 보여주었으니

오늘
세계의 곳곳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화》소동은
정의의 위업인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위압감과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자본주의 운명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제놈들처지를 유지하며
사회주의나라들에
부르쥔아 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동들을 부추겨

혼란을 일으키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거니

오, 이것이
《자유의 수호자》,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며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자유소동의 본심

그 흑막뒤에서
독을 올린 화살로
원썬놈들이 악심을 품고 노리는것은
사회주의가 기초한
집단주의이며
사회주의의 생명인
혁명의 주체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된 일심단결을
불패의 성세에 비긴다면
그 성곽을 이룬것은
수천수만개의 성돌...

밑에 깔리어도
무게를 감당하는 영예가 있고
우에 놓리어도
비바람을 먼저 막는 자량이 있건만

그 성곽에 파렬구를 내 보려는
제국주의 궤변자들은
하나의 성돌이라도 뽑아보려고
《개성의 억제》, 《자유의 폐쇄》를 떠들며
갖가지 요설을 퍼뜨리나니
그것은
얼마나 가련한자들의 넉두리인가

물론 력사엔
몇개의 성돌이 풍운에 썩으면서
거대한 성곽이 무너진 일도 있듯이
세월의 잡바람을 막지 못해
혁명의 기발을 잃은 대오도 있어
제국주의 원썬들이
그런 요행수를 꿈꾸며
세계의 수많은 위도와 경도 우에서
《자유화》바람을 일쿠는 때에

오, 나의 조국이며
이 세상 그 어떤 폭풍도 건드릴수 없는

혁명의 주체를 가지고있는것은
 얼마나 궁지로운가
 그 불패의 힘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피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빛내가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2

인간기원의
 머나먼 태고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흘러
 지금은 20세기

세계의 랑심들이여
 인류사의 갈피갈피를 들춰보시라
 자유와 평등이 없는곳에
 화목과 단합이 있었던가를

그리고
 대답해보시라
 한 나라 한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되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체험과
 오늘의 현실을 두고
 세상에 소리높이 말한다
 이 땅에 꽃핀 일심단결은
 그것이 그대로
 위대한 생활의 상징이라고

우리의 그 위대한 생활—
 값높은 삶이란
 자유와 평등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로
 구현되고 승화된 삶이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받들며
 천만사람 모두가
 운명을 같이하는 삶

아,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온다
 한생토록 《반공》의 길을 걷다가
 이 땅에 와서
 깨끗하게 인생말년을 맺은
 한 로지사의 그 목소리가

—령도자와 국민이 의리로 뭉치고
 전국민이
 한집안식구처럼 화목하게 지내며
 사대와 리기에서 해탈되어
 모두가 선남선녀의 인간상을 갖추고
 복된 삶을 영위해가는
 무릉도원과 같은 이복의 현실은
 본인에게
 감동이상의 심적변화를 일으키게 하였습시다—

이것은
 《자유세계》라는
 미국시민의 공민권을
 우리 공화국의 영주권과 바꾼
 한 로지사의 순결한 고백이거니

사람들이여 대답해보시라
 인간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얻는다면
 찾아오는것이 그 어데인가를

그의 인생전환은
 인격도 존엄도 돈에 놀리고
 제멋대로 사는 《자유》의 생활보다
 자주적인 생활이 값높은 삶이라는것을
 얼마나 뜨겁게 말해주는가

그렇다
 위대한 령도자가 있는곳에
 위대한 단결이 있고
 위대한 단결이 있는곳에
 위대한 생활이 있더라
 …이것은 얼마전
 이팔리아의 로마를 떠난
 비행기안에서 있던 일

발밑으로는
 흰눈을 인 알프스산맥이며
 안개낀 도시들과 들판이 흐르는데
 먼 해외출장중인
 우리의 한 일군은
 무료한 시간이라 소설책에 눈길을 박고있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곁에 앉은 한 구레나룻손님이
 호기심에 동해 묻는 말에
 우리 일군은 조용히
 읽던 책의 뚜껑을 펴보이였다

아, 《스빠르타쿠스》!...
그 손님이 어성을 높이자
비행기안의 적적했던 승객들은
2천여년전의 노예장군이며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거리는데

구레나룻 그 손님이
우리 일군에게 빈정거리었다
—당신네 나라를
《자유》라는 자막대기로 쟀다면
재여지지 않는 면이 많겠지요?

아, 너무도 뜻밖의 물음...
알고보니 그는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라고 하지만
진리의 빛은 보지 못한 사람
우리 일군은 그에게 나직이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 대답을 듣고싶다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시오
당신은 가족도 여럿일텐데
자기 가정을 언제 한번
그런 자막대기로 재본일이 있었습니까?...

순간 그 사람은
말문이 막히고
승객들은 통쾌함에 목소를 터뜨리는데
우리 일군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뜨거움이 젖어있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입니다

저 이팔리아땅에서
스빠르타쿠스가
세상 처음 자유의 기치를 들었다면
우리 조국은
자유에 대한 인간의 그 갈망이
가장 아름답게 꽃핀 세상의 첫 나라
주체의 락원
인민의 락원
행복의 락원입니다!

오, 인간의 존엄이
한없이 신성시되고
자연도 사회도 인민을 위해 꽃피는

위대한 주체의 조국이어

우리 인민에겐
오늘의 값높은 삶을 두고
언제나 잊지 못하는 날이 있어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대오를 이끄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8월 15일...

그날은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주신 날!

아,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 수령님께서
만경대의 구슬픈 폴레질소리
타개죽이 끓는 소리를 뒤에 두시고
타항의 우뢰치는 하늘밑에 들어서신 날은
그 언제였던가

밀영의 추녀끝에 떨어지는
눈석이 락수물소리조차
인민의 신음소리로 들려와서
한분 두분
혈육을 잃으시는 그 아픔도 참으셔야 했고

헤치시는 길이
불바다 만리, 눈보라 만리길이어도
그너머에서 기다리는
겨레의 모습이 그토록 가공하여
사선의 수만고비를 넘으신분이
우리의 어버이 **김일성** 원수님

세상의 천신만고를 다 겪으시며 안아오신
그 자유이고 행복이어서
이 나라의 소박한 인민들은
더 바랄것이 없었던만

우리 인민에게 주시고싶은것이
그토록 많으신 수령님이시기에
그것을 첫 층계로 삼으시고
십층, 백층, 천층으로
행복의 계단을 높여주시며
그우에 펼쳐주신것이
세상이 내려다보이는
오늘의 사회주의락원!

우리 인민은

그 계단을 오르면서
어제날의 품팔이군이
나라의 대의원이 되고
어제날의 머슴이
장령으로 된것처럼
그모두가
운명전환, 인생전환의 감격을 체험했고

그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 수령 우리 당의 품은
세상에 다시없는 삶의 품이고
그 품을 떠나선
순간도 살수 없다는 진리를 체험하며

오, 수령, 당, 인민이
영원한 일심동체가 된
위대한 대가정이 되였더라
그 힘 불패이고
그 영광 끝이 없는...

자유라는 나무는
세우기도 힘들지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선
가꾸기도 힘든것...

그것이
인간존엄을 위한 투쟁이기에
참된 사람들은
한생토록 혁명의 길을 걷는것이니

언제나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겐
성스럽게 불리우는 이름이 있어
그것은
혁명전사라는 고귀한 칭호

이 땅에선
일생을 혁명의 눈비에 젖어온
로투사들이며
로동자와 농민
과학자와 예술인들도
자기 직무에 앞서
혁명전사라고 부르는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거니

오, 혁명전사!
그것은
자기 령도자와
뜻도, 운명도 같이하며

자기 생명의 뿌리가 있는 그 품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사옹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호

그모두가
우리 수령, 우리 당의 손길에서 자라났고
그 품에서
참된 삶을 찾은
이 땅의 혁명전사들에겐
남다른 관념 아름다운 생활이 있어
그것이 바로
혁명적조직관념이며 혁명적조직생활

이 생활은
매일 매순간
우리 삶의 피줄을
당과 수령의 품에 이어주는 생명선이며
조직성, 집단성, 일치성으로
통일단결의 위력을 떨치게 하는
무궁한 활력의 원천이거니

우리는
이 생활이 낳는 힘을 자랑하며
원수들이
이 생활이 낳는 힘을 두려워한다

하기에 오늘
사회주의의 원쑤-
부르조아 자유화의 광신자들은
비방과 중상의 입김을
거기에도 퍼붓는것이니

거꾸로 선 놈들에게
바라보이는것은 뒤집힌것이고
거꾸로 선 놈들에게
뒤집혀보이는것은 바른것일진대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위대한 생활의 가치를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몇해전 어느날
그리스의 수도에 있는
뻘띠오스정치종합대학의 대강의실에선
수많은 청강생들이 술렁이고있었다

그 강의탁에 나선 사람은

서방세계가 《생의 철학》이라고 일컫는
니체철학의 전문가로부터 후일에는 주체철학의
열렬한 신봉자로 된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저게 누군가?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대강의실은 물뿌린듯 조용한데
그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렸다

—여러분
나는 지구의 한끝에 있는
조선에 갔다온 사람이다
거기서 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인류가
마음속으로 그려본 이상향이였다
조선에선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이다
당신의 행동은
무엇에 의해 지배되는가
물론 당신의 뇌수에 의해
조절통제될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당신은 자신을
뇌수의 《노예》라고는 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에서의
수령과 인민사이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것이다!...

오, 사람들이여
프랑스철학자의 격찬에 찬 그 목소리엔
우리 생활의 진실이
얼마나 뜨겁게 담겨있는가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의 통일단결의 중심이시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뇌수

수령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바라시고
당에서 오늘은 무엇을 생각할까...
그 뜻을 꽃피우는길이
자기 행복의 길이고
그 길에서
한걸음도 순간도 떨어 지지 말자고
천만사람모두가 스스로 하는 생활이
우리의 혁명적조직생활이니

지금도 귀 기울이면 들려온다

준엄한 전쟁의 나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던
황철의 기술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송연설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청천강변의 바람부는 오두막에서 가진
당세포모임의 그 열기면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눈앞엔 떠오른다
전선사령부에 찾아온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앞에
차렷자세로 엄숙히 서있던
김책동지의 그 모습이...

—전선사령관동지
아래사람들앞에서 지내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한 일군이 아니라
우리 당중앙위원회앞에
위대한 장군님앞에 서있는 마음입니다...

아, 지금도 눈시울 뜨겁게 안겨온다
세상을 떠나기 이틀전에
자기 당생활수첩에
김일동지가 또박또박 써놓은 그 글줄이

—나는 일생동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부주석이기전에
그 은덕에 보답해야 할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이다—

오, 한생이 열번, 백번 다시 차례진대도
그모두를
당과 수령께 바치고싶어하는
이 나라 혁명전사들의 삶의 지향...

자기 수령, 자기 당을
이 세상 전부로 알고
그 품을 떨어져선 순간도 살수 없다는
그 각성, 그 자각이
우리의 조직관념이 되고
우리의 조직생활을 꽃피우는것이니

그것이 만약

희떠운자들이 떠벌이는
《울타리》안의 《읽매인 생활》이 된다면
무엇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붉은 당원증을 받아안고 대오에 들어서며
그 영광에 목매여 두불을 적시고

무엇때문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사로청기발밑에 설 때
그처럼 감격에 젖는것이며

무엇때문에
이 나라의 어린것들이
소년단 붉은넥타이를 맬 때
그처럼 눈빛이 빛나는것인가!...

사람들이여
잠시 머리를 들고
아름다운 저 밤하늘을 쳐다보시라

태양과 달과 무수한 별들...
서로 당겨주고 이끌리우면서
억만년 변함없는
저 황홀한 세계를 두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모습은
현란한 저 하늘과도 같은것!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의 태양
우리 인민은
그 빛으로 반짝이는 못별

오, 우리는
이렇게 사는것이 좋다
영원히... 영원히...

×

우주공간에 가득히
광명을 뿜어올리며
대동강반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
오, 인간존엄의 위대한 탑이며

그밑에 섰노라면
인류가 수만세대를 이어
자유를 찾아 행복을 찾아

피도 흘리고, 목숨도 묻으면서
오늘에로 걸어온
무수한 발자국소리가 다 들리는듯

그밑에 섰노라면
세상의 모든 길들도
여기를 향해 굽이쳐오고
세상의 모든 창문들도
그 빛을 받자고 활짝 열린듯

나는 강기슭을 거닐며
뜨겁게 생각하노니
인류가
성스러운 저 화불을
20세기가 아니라
자기의 유년기에 맞을수 있었다면
우리 사는 이 행성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순결할것인가...

아, 이 땅을 조국으로 가지고
위대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여
존함 그대로 태양이신
아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어머니당을 따르며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민인가

저 불멸의 화불은
마치와 낮과 붓을 든 인민들에게
미래를 맡겨준
우리 수령님의 믿음이며
우리 당의 사랑

그렇다
주인은 언제나 자유로운 법이니
자유를 두고 노래한다면
이 땅에서 울리는 노래보다
행복을 두고 노래한다면
이 땅에서 울리는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 그 어디 있으랴

오, 세상엔 아직 풍운이 어지러워도
광명한 주체의 해빛아래
온 누리에
자주의 봄이 만발하는 그날은 오리라

우리 부르는
자유와 노래, 행복의 노래를
온 세상이 다 같이 부르는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오리라

《우로 봤!》

김하천

△때 : 현재

△곳 : 어느 녀성구분대

△나오는 사람들

송히: 분대장 중사

영애: 분대장 중사

찬실: 대원 상등병

태호: 분대장 중사

경숙: 정치지도원 상위

형국: 정치위원 대좌

옥분: 송히:의 어머니

기타 녀성병사들

△무대, 구분대 휴식장 한쪽에 소나무가 서있고 그아래에 숙보판과 의자, 앞탁이 놓여있다.

배경에는 아담한 병실과 높낮은 산발이 펼쳐져있다.

△ 막이 오르면 한낮. 찬실 숙보판에 숙보를 붙인다.

경숙: (나오다 보며) 아이 찬실 동무, 이쪽을 좀 올리세요.

찬실: 이쪽말입니까?

경숙: 아니 이쪽. (다가가 같이 붙이며) 자, 이렇게, 됐어요.

찬실: (숙보를 보며) 정치지도원동지, 어떻습니까?

경숙: 참 멋있게 썼어요... (읽는다.) 성스러운 군사복무를 마치고 초소를 떠나는 제대군인 동무들을

찬실: (박수치며)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때 영애와 녀병사 1, 2 웃으며 나온다.

찬실: 아이 정치지도원동지, 마침 모두 옵니다.

경숙: 동무들, 찬실:동무 숙보를 읽는걸 들은게 아니예요.

모두 호호호...

영애: 정치지도원동지, 정작 중대를 떠나자니 섭섭합니다.

경숙: 왜 안그렇겠어요.

녀병사1: 이제 원산 송도원에 구경오십시오. 내가 책임적으로 구경시키겠습니다.

경숙: 정말?

녀병사1: 정말입니다.

녀병사2: 정치지도원동지, 내 소식은 신문에서 보십시오. 《녀성관리위원장》 김경화!

모두 호호호...

영애: 야 모두들 으시대니 이거야...

찬실: 아이, 영애중사동진 텔레비존 《사회문화생활시간》에 꽃양산을 척 받쳐들고 대동강유보도를 거니는 장면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모두 정말? 호호호...

찬실: 그런데 부대에 훈련경험을 발표하러간 우리 포장동진 언제 옵니까?

경숙: 이제 올거예요. 떠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찬실: (기뻐하며) 그렇습니까?

경숙: 호호호... 찬실:동문 송히동무가 제대된다는 소릴 듣구 올었다면서요?

찬실: 아이, 거짓말입니다. (부끄러워한다.)

모두 (다시 웃는다.)

찬실: 저... 우리 포장동진 평양의학대학에 간다지요.

영애: 송히동문 어머닐 봐서라도 의학공부를 열성껏 하겠다고 했어요.

찬실: 야, 눈에 선합니다. 대학생옷을 입고 학교 정문으로 척 들어서는 우리 포장동진 모습이 말입니다.

경숙: 찬실동무, 부러워요?

찬실: ...솔직히 말해 부럽습니다.

경숙: 호호호... 동무들, 이젠 정복을 갈아입으세요. 좀 있어 모임을 시작하겠어요.

모두 알았습니다.

△모두 나간다.

△사이, 산새들의 지저귐속에 송히 나온다.

송히:야! 중대! 언제 봐도 정다운 나의 중대! (땀을 씻으며 숙보를 본다.) ...성스러운 군사복무를 마치고 초소를 떠나는... 열렬히 축하한다! (생각에 잠기며) 야!어제그제 여기다 배낭을 벗어놓은것 같은데 내가 벌써 제대된단 말이야?세월두... 그런데 어쩔가? 어머니 내가 대학으로 오는줄로 알고있겠지?

△송히: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데 녀병사1, 2 뒤로 나오다 눈을 감긴다.

송히: 어마나, 이게 누구예요.

녀병사1: 진찰해보세요 《의사선생님》.

송히: 이걸 놓지 못하겠어요. 아야야...

녀병사2: (손을 풀며) 호호호... 왔으면 왔다고 보고해야지.

송히: 아이 동무들!

병병사1 송히, 수고했어요.

녀병사2: 그래 토론 잘했어요?

녀병사1: 거야 물으나마나지 뭐. 이름난 포장이겠다, 응변술이 있겠다
 녀병사2: 인물있겠다.
 녀병사1: 딱소리 났겠지 뭐.
 두 녀병사 호호호...
 녀병사1: 그런데 여기 혼자앉아 뭘 생각해요. 성격에 맞지 않게.
 송희: 아무것도 아니에요.
 녀병사2: 어데 아파요?
 송희: 아니라는데, 그래, 중대 지휘관동지들이다 계세요?
 녀병사1: 2 있어요.
 송희: 그럼 내 보고하겠어요. (나간다.)
 녀병사1: 아니 송희동무가 왜 저래요?
 녀병사2: 이상해. 늘 웃길 잘하는 저 동무가 왜 저렇게 심란해전?
 녀병사2: 글썽말이야.
 영애: (급히 나온다.) 동무들, 송희동무가 왔다면 서요?
 녀병사1: 2 그래요.
 영애: 그래 어데 갔어요.
 녀병사1: 방금 보고하러 갔는데 이상해서 그래요.
 영애: 이상하다니?
 녀병사2: 영 판사람이 뻘어요.
 영애: 엉?
 녀병사1: 중대의 웃음보따리책임자가 입을 꼭 다물구... 흐린 날쥬데.
 영애: 에이 뭘 그럴겠어요.
 녀병사1: 경화동무 맞지?
 녀병사2: 혹시 경험토론을 잘못한게 아니나요?
 영 애 ...뭐?
 녀병사1: 경험토론이야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녀병사2: 그래두...
 녀병사1: 아, 어머니생각을 하는게나 아닐가요?
 영애: 어머니생각?
 녀병사1: 이젠 집으로 가게 뻘으니 어머니생각이 각별할수 있지 뭐.
 모두 하긴 그래요.
 △태호:가 나온다.
 태호: 수고하십니다.
 모두 ... (병병해 서있다.)
 영애: 아이, 태호동무 아니예요?
 태호: 아, 영애동무구만.
 녀병사1: 어마나, 난 누군가 했더니 송희동무네 한 아빠트에 있었다던 3중대 룡구주장이구만요.
 태호: 하하하... 이거 소개가 빨래줄인데요.
 모두 호호호...
 태호: 영애동무, 송희동무 만나자고 왔습니다.

영애: 송희동무틀요?
 태호: 예. 잠간이면 돼요.
 영애: 알겠어요. 경화동무!
 녀병사1: 야, 동문 정말 눈치두 없다.
 녀병사2: 엉?
 영애: 빨리 가자요. 호호호... (녀병사1, 2를 끌고 나가며) 태호동무, 잠간 기다리세요.
 태호: 알겠습니다. (속보를 보며) 음, 여기서도 제대군인환송사업이 한창이구만. 하긴... 녀자들이니깐 더할테지.
 송희: (종이말이를 들고 나오며) 태호동무!
 태호: 오, 송희동무!
 송희: 오래간만이구만요.
 태호: 하하하... 그런것 같소.
 송희: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태호: 동무들이 오늘 제대군인환송사업을 본때있게 한다구 해서 구경왔소.
 송희: 거짓말?
 태호: 정말이요.
 송희: 통담말구 빨리 말하랴요. 난 시간이 없어요.
 태호: 그래? 송희동무, 동문 의학대학에 추천받았다고 했지? 축하하오.
 송희: 아이 축하까지야...
 태호: 하하... 이제 집에 가면 내 소식을 좀 전해주오.
 송희: (놀라며) 소식이라뇨? 태호동문 제대되지 않아요?
 태호: 난 제대되지 않소.
 송희: 예? 기계대학에 추천받았다더니?
 태호: ...송희동무, 난 대흥으로 가기로 결심했소.
 송희: (더욱 놀라며) 대흥이요?
 태호: 그렇소.
 송희: 그게 정말이예요?
 태호: 정말이니구. 그래 우리 부모들에게 좀 전해달란말이오.
 송희: 아니 ...
 태호: 송희동무, 최근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흥광업기업소에 제대군인들이 가면 해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제대군인들을 불러주시였던 말이오. 그래서 나두 탄원했소.
 송희: 아니 ...
 태호: 대흥을 탄원하는 동무들을 정렬해놓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러단장동지를 향해 《우로 봤》 하구 보고하는 순간 내가 뭘 생각한줄 아오?
 송희: 예?
 태호: 우리 나라 채취공업의 한몫을 든든히 담당한 대흥의 생산이 정상화되면 2~3년어간에

한번 오시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러 충성의 보고를 드릴 그 순간을 생각해보았던말이오.

송히: (걱정에 차) 아니... 대흥의 생산이 정상화되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번 오시겠다고까지 하셨단말이예요?

태호: 그렇소.

송히: (혼자소리로) 아, 그래서 그 동무들이...

태호: 송히동무, 우리 전사들의 소원이 뭐겠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것이 아니겠소.

송히: ...

태호: 이것이 의무고 본분이구 영예지. 난 그 충성의 《우로 빛》 구령을 내리기전에는 전사의 구실을 다 했다고 생각지 않소. 복무의 나날은 흘려갔어도 전사의 자세야 변할수 없지 않소.

송히: (더욱 생각에 잠겼다가) 그래서 동문 제대되지 않는다고 했구만요.

태호: 그렇소.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이 아들은 대흥땅에 가서 일당백병사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더라 꼭 전해주오.

송히: ... (깊은 생각뿐)

태호: 자, 그럼 가서 공부를 잘하오. 앓지 말구... (나간다.)

송히: (그제야 생각에서 깨어나며) 아이 태호동무! 태호동무! (언덕으로 뛰어올라가 밖을 바라본다.)

△사이

송히: (되돌아 내려오며) 야! 저 태호동무처럼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그 동무들도 떠났겠는데 내가 정말 너무했어... 대흥! 대흥!

△의자에 앉아 종이말이를 퍼볼 때 찬실:이 나온다.

찬실: 포장동지, 모두 환송모임준비를 하고있는데 여기서 뭘합니까?

송히: 영?

찬실: 아니, 포장동지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송히: 아무것도 아니예요.

찬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송히: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종이말이를 접는다.)

찬실: 그런데 그건 뭘니까? 봅시다. (종이말이를 빼앗아 펴보다) 어마나, 이건 지도가 아니나요.

송히: ...

찬실: 오, 그러니깐 집까지 가는 역이 몇쟁가 세여보지 않았습니까?

송히: 호호호... 그래요. (가볍게 웃는다.)

찬실: 야, 포장동지두 참. 세여볼거나 있습니까. 여기서 척 앉으면 빠방... 곧추 평양에 가닿겠는데.

송히: 호호호...

찬실: 야 포장동진, 정말 좋겠습니다. 평양에 가서 대학을 다니구. 의사가 된 다음에 날 치료해줘야 합니다.

송히: 우리 찬실이가 누구라구. 내 제일 먼저 치료해주지.

찬실: 정말입니까?

송히: 이 포장이 언제 두말하는걸 봤어요.

찬실: 호호호...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요. (만년필을 내민다.)

송히: 이건 뭐예요?

찬실: 이걸 가지고가서 쓰십시오. 요전날 우리 언니가 면회왔을 때 똑같은걸 두개 가져왔더랬는데... 좋지 못하지만 쓰십시오.

송히: (몽클해하며) 찬실이, 고마워.

△경숙: 책을 들고나온다.

경숙: 송히동무, 여기 있었구만요.

송히: 예?

경숙: 자 받으라요.

송 히 아니 그건...

경숙: 동무가 대학에 간다니깐 동무들이 마련한 학습장들이예요. 이건 2포동무들이 준비한거구 이건 3포...

송히:야참! (다시 생각에 잠긴다.)

경숙: 찬실:동문 자기 포장이 대학가는데...

송히: 벌써 만년필을 가져왔습니다.

찬실: 야 포장동지! (송히를 저지시킨다.)

경숙: 호호호... 그러면 그럴겠지. 우리 찬실동무가 어련할라구.

찬실: 아이참.

경숙: 송히동무, 대학에 가서 중대동무들의 이익을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하라고. 3대혁명붉은기중대 병사답게말이예요.

송히: ...

찬실: 포장동지, 최우등하면 이 만년필로 꼭 편지 쓰십시오.

경숙: 찬실:인 그때 당당한 포장이 되어 회답하구.

찬실: 알았습니다.

경숙: 아니 그런데 송히동무, 왜 대답이 없어요. 예? 뭘 그렇게 생각해요?

찬실: 지금 지도에서 평양까지 몇역인가 세여 보던중입니다.

경숙: 그래요?

송히: (그제야) 정치지도원동지, 제가 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경숙: 뭔데?

송히: 전 사실...

경숙: 잠깐만. (송히:를 저지시키고) 찬실동무, 빨리 가서 직입관동무보구 이젠 교양실에 중대전원 모이라고 하라요.

찬실: 알았습니다. (나간다.)

경숙: 송히:, 그대 무슨 이야기예요?

송히: 정치지도원동지, 전 집으로 가지 않자고 합니다.

경숙: 예?그럼 어데로 가겠다는거예요. 대학에 직접 가겠다는거예요?

송히: 그런게 아니라... 전 대흥으로 갔으면 합니다.

경숙: (아연해지며) 뭐? 어데라구요?

송히: 대흥말입니다.

경숙: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송히: 아이참, 그렇게 놀랍습니까?

△찬실: 나온다.

찬실: (보고하며) 정치지도원동지,려단정치위원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경숙: 그래요? 그래 중대는 모여요?

찬실: 지금 모이고있습니다.

경숙: 송히동무, 잠깐만. (나가려다.)

송히: 정치지도원동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숙: 생각해봐야겠어요. (나간다.)

송히: (뒤에 대고) 난 이미 결심했습니다.

찬실: 포장동지, 뭘 조롭니까?

송히: 호호호... 아무것도 아니예요.

찬실: (앵돌아지며) 내 포장동지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모를줄 알아요.

송히: 생각은 무슨 생각?찬실이와 헤어지기 섭섭해서 그러는데.

찬실: 업어넘기지 마십시오. 포장동진 지금 어머니생각, 동생들생각 하지요?

송히: 야, 우리 찬실:동무 신통히 알아맞췄는데.

찬실: 내가 아무렴 그걸 모르겠어요.

송히: 아유 요것! 호호호... 찬실동무, 그럼 이 지도에서 《우리 집》을 찾아볼까요?

찬실: 어마나, 지도에 집까지 있나요 뭐.

송히: 호호호... 난 내가 갈 《집》이 보이는데요.

찬실: 좋아요. 그럼 지도를 펴십시오. 내 눈을 감고 짚겠습니다.

송히: (앞탁에 지도를 편다.)

찬실: (눈을 감고) 자요. (짚는다.)

송히: 틀렸어요.

찬실: (눈을 뜨며) 어마나, 여기가 평양이 아니구 뭘니까?야, 포장동지 엉터리네.

송히: 호호호...

△들이 함께 옷을 때 영애 급히 나온다.

영애: 송히! 동무 대흥으로 갈 생각을 한다는게 사실이에요?

찬실: 예? (와들 놀란다.)대흥으로 가다뇨?

영애: 사실인가 말이야!

송히: ...사실이야.

찬실: 아니...

영애: (송히:를 다우치며) 너 지금 꿈을 꾸지 않나?

송히: 꿈을 꺾. 영웅광부가 될 꿈을!

찬실: (안타까이) 야 포장동지, 룡담말구 진짜로 말하러요.

송히: 찬실:이, 이건 내 솔직한 심정이야.

찬실: 뭐라구요?

영애: 그러니깐 넌 그 생각을 하느라 심란해졌겠구나.

송히: 그래.

△너병사 1, 2 나온다.

너병사1: 동무들!교양실에 다 모이라고 하는데 뭘해요?

너병사2: 빨리 가자요.

영애: 인실이, 이 송히동무가 대흥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래.

너병사1: 대흥으로?호호호... 자기가 지금 남자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예요?

너병사2: 그러게 걸작은 걸작이다야. 호호호...

△너병사 1, 2 웃으며 지나간다.

영애: 송히, 그런 생각 싹 털어버리고 빨리 가자.

찬실: 갑시다.

송히: 영애, 그래두 난 동무가 내 결심을 지지해 줄줄 알았어.

영애: 응?

송히: 너와 나는 한고향이구 또...

영애: 그렇다면 좀 이야기하자. 우리 녀성들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건 규정이구 또 하나의 국가적혜택이야.

송히: 그건 나두...

영애: 글썽 내 말을 듣기만해. 왜냐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을 성스러운 조국보위길에 바쳤기때문이란말이야. 때문에 거길 가지 않는다고 탓할 사람이 없어.

찬실: 그럼요. 더군다나 포장동진 사정이 있지않습니까? 아버지 없이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불편하신 몸으로 어린 동생들을 키우는데...

송히: 찬실이, 나도 고향에 가서 대학도 다니고 싶구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있고싶어. 하지만 난 렬차칸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

두병사 어떤 충격?

송히: 영애, 내가 중대에 오느라 차에 오르니 렬차칸엔 대흥으로 가는 제대군인들로 꽉 차있지 않겠어. 노래도 부르구 시도 읊구 얼마나 랑만적이겠니. 그래 나두 그들을 축하해서 노래도 불렀댔다.

영애: 그래서?

송히: 그러자 그 동무들은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와 같이 대흥으로 가자고 하지 않겠어.

찬실: 아니...

송히: 그래 난 가자고 대답했지.

찬실: 예?

영애: 너 정말...

송히: 그러니깐 그 동무들이 더욱 열광적으로 박수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꽃다발까지 안겨 주더라 말이야.

영애: ...

송히: 그러구는 그게 진심인가구 정색해서 묻는 게 아니겠니? 그 순간 난 가슴이 활랑거리더구나.

찬실: ...

송히: 그래서... 아이 그건 통답이예요. 난 대학을 추천받은 사람입니다... 이랬지 뭐.

영애: ...

송히: 그러자 그 동무들은 어처구니 없어 웃으면서 한마디씩 하더구나.

영애: 뭐라구?

송히: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동무가 그런 결심을 해?... 너자들이란 다 이렇게 한입을 가지고 두말을 하는가?》

영애: 뭐?

송히: 그중에 한 상사동무가 한 말은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아.

영 매 뭐라구 했게?

송히: 자기가 제대되어온다는 소식을 듣구 부모들끼리 약속되어 색시감을 골라두었대. 그런데 글쎄 그 녀동무는 그 사람이 대흥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약혼을 거부했다지 않아.

영애: 뭐? (충격을 받는다.)

송히: 그래 그 동무는 하도 분해서... 《여보, 요즘 너자들이 시시하오. 처음에는 제대군인이구 미끈하다니깐 정신없이 나서더니 고장을 보구 직업을 보구 돌아왔으니 이거야...》

영애: ...

송히: 영애, 난 그 말을 듣구 얼굴을 들수가 없더구나. 우리 녀성들이 어쩔 이럴수 있니? 조국과 인민을 위해 수년세월 언땅에 배를 대고 이 땅을 지킨 동무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못할지언정 어쩔 이렇게 못을 박구 기를 꺾

는가 말이야.

영애: ... (더욱 생각한다.)

송히: 어떤 녀동무들은 팔다리를 못쓰고 앞을 못보는 영예군인을 찾아가 한평생을 손발이 되겠다고 자진하는데 그 동무들이 그 녀동무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말이야.

영애: 아니... (더욱 충격을 받는다.)

송히: 그래 난 이제라도 그들을 따라가 미처 못한 대답을 하구 녀성들속에 결코 그런 녀성만 있는것이 아니라는걸 보여주자는거야. 그래야 그들의 심장이 더욱 달아오를게 아니야.

찬실: (목메여) 포장동지, 그럼 대학은?

송히: 찬실:이, 난 거기를 《효성의 대학》이라고 생각해.

찬실: 예?

송히: 많은 지식을 쌓아 효성하려던 그 열정을 대흥의 막장에 바쳐 대학의 학년을 오르듯 한해 두해 위훈으로 복무의 나날을 이어가자는거예요.

영애: (더욱 생각에 잠긴다.)

송히: 영애, 태호동무도 거길 갔어.

영애: (다시 놀라며) 아니 그래서 아까 왔겠어?

송히: 그럼. 그 동무는 거길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한지 알아? 대흥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우로 뵈》 구령을 내리기전에는 자긴 병사의 구실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는게 아니겠니.

영애: 아니...

송히: 난 기억이 그 구령이 내리는 대오에 서고야 말겠어.

찬실: 포장동지! (목멘다.)

△한옆에서 생각에 잠기는 영애.

△녀병사 1, 2 나온다.

녀병사1: 아니 다들 모이는데 기본주인공들이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녀병사2: 영애:, 거기서 뭘해?

영애: (끝내 걱정을 터뜨리며) 송히: 날 용서해 줘!

모두 영? (놀란다.)

영애: 한낱한시에 같이 군복을 입구 눈비도 함께 맞으며 자란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송히: 아니...

영애: 동문 당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다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있는데 난... 송히:, 나도 대흥으로 가겠어.

모두 아니... (더욱 굳어진다.)

송히: 영애! 동문 외동딸이야!

영애: 넌 외동딸이 아니돼서 거길 가?

송히: 영애, 제발 흥분되지 말구 침착하게 생각해.
영애: 그럼 네가 한 말을 내가 곱씹어야 알겠니?
나도 군기앞에서 선서한 병사구 제대군인이 아니야?
송히: 영애!...
영애: 송히!... (포옹한다.)
송히: 영애, 그럼 우리 같이 가서 남자들처럼 일은 못해도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일을 찾아 하자구나.
영애: 노래도 불러주구 시도 읊어주구.
송히: 까지꿌, 착암기도 틀어쥐구.
영애: 발파도 해보자구나!
송히: 그렇게 되면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흥땅을 찾으실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지 몰라.
영애: 그럼. 야, 그날이 눈에 선해.
송히: (희열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차렷!우로 뵈!
영애: 야! (환희에 차 그날을 그려본다.)
△한옆에서 그들을 보다 감동되는 녀병사 1, 2.
송히: 영애, 내 마음 알아줘 정말 기쁘구나. 함께 가자. 대흥이 여기야.
△송히: 다시 지도를 펼치고 영애:와 함께 본다.
△그들을 보다 드디어 걱정을 터뜨리는 녀병사1:, 2
녀병사1: 그러니깐 아까 대흥으로 가겠다고 한 말이 룡이 아니었던말이야?
녀병사2: ...송히, 동문 어쩔...
송히: 엉?
녀병사1: (울먹이며) 동문 왜 나보구 가잔 말을 안해?
녀병사2: 나보군 왜 안하는가 말이야.
송히: (놀라며) 그럼 동무들두?
녀병사1: (목메여) 난 제대군인이 아니구 뭐야? 이날 이때까지 한가마밥을 먹으며 지내다 그래 동무들만 거기서 가겠다고 말이에요?
녀병사2: 동문 나빠. 같이 가자면 우리가 뭐 안갈 것 같애?
송히: (목메여) 동무들!
찬실: 야 어쩔... (감격한다.)
송히: 그럼 우리 함께 이 지도에서 대흥을 찾자요.
모두 그러자요.
△모두 지도를 볼 때 경숙 나온다.
경숙: 동무들! 빨리 가자요. 모두 기다려요.
찬실: (뜨거움에 젖어) ...정치지도원동지, 제대군인동지들은... (더 말을 못한다.)
경숙: (놀라며) 찬실이, 왜?
찬실: ...고향이 아니라 모두 대흥으로 가겠다고

다.
경숙: 뭐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모두 그렇습니다.
경숙: 아니... 그러니깐 송히동무 결심에...
송히: 정치지도원동지, 우리들의 결심을 지지해 주십시오.
녀병사1: 우린 비록 늦었지만 송히동무 결심을 지지합니다.
녀병사2: 정치지도원동지, 우린 사실 처음엔 엉뚱한 소릴 잘하는 송히동무가 똥담하는줄 알았는데 듣고보니 정말... 처음부터 지지하지 못한것이 부끄럽습니다.
모두 정치지도원동지!
경숙: (감동되어) 동무들! 장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애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동무들이 이젠 고향으로 가야지 또 그렇게 간다면...
녀병사1: 우리 부모님들은 꼭 승인할겁니다.
송히: 정치지도원동지!우리 어머니는 내가 군대나올 때 뭐라구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데 가나 지휘관들의 말을 잘 듣구 편안만을 바라는 인간이 되지 말라구 하였습니다.
경숙: 예?
송히: 녀자들이란 시집만 잘 가면 대학 몇을 나온것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경숙: 그래두 대흥으로 간다는 소식이라도 전해야 할게 아니예요. 어서 집에 편지들 하세요. 난 이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겠어요.
송히: 정치지도원동지, 꼭 승인받아주십시오. 예?
모두 정치지도원동지!
경숙: 동무들!... (더 말을 못한다.)
찬실: 정치지도원동지, 그럼 환송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경숙: 내 이제 중대장동지와 토론할테니깐 동문 교양실에 가서 모두 기다리라고 하세요.
찬실: 알았습니다.
△경숙:, 찬실 헤어져 나간다.
△녀병사들이 편지를 쓸 때 방창이 흐른다.

복무의 나날은 흘러갔어도
전사의 자세는 변할수 없네
당의 뜻 받들어나가는 길에
우리의 한생을 바쳐가리라
아 언제나 병사의 본분을 지켜
선서의 그 맹세 빛내가자요

△방창속에 무대 서서히 어두워졌다 밝아지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뒤 같은 장소. 속보판에는 《대흥으로 탄원하는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속보가 붙어있다.

찬실: (꽃다발을 들고 달려나오며) 포장동지, 포장동지!

송히: (마주나오며) 찬실동무, 무슨 일이에요.

찬실: 포장동지 발기가 우리 려단은 물론 온 부대에 파문을 일으켜 지금 술한 여성군인들이 펼쳐나섰대요. 그래 이제 대흥으로 가는 제대군인 환송모임을 우리 중대에서 한답니다.

송히: 그래? 그런데 기통수동무가 안왔어요?

찬실: 왔습니다.

송히: 나한테 오는 편지 없던가요?

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송히: 야, 어머니한테서 왜 회답이 없을까?

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소식 오겠지요 뭐.

송히: 그럴가?

찬실: 그럼요. 그럼 전... (나간다.)

송히: 어머니가 혹시...

△이때 영애:와 녀병사 1이 나온다.

영애: 송히:, 소식 들었어? 환송모임때 우리가 준비한 소품도 출연한대.

녀병사1: 《우리는 왜 대흥땅으로 가는가?》

영애: 그래, 빨리 한번 맞춰보지요.

송히: 영애, 인실이, 동무들의 부모님들도 요전날 우리 다같이 보낸 편지를 받았겠지?

녀병사1: 그럼.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를 같이 보지 않았어요?

영애: 오, 인실동무가 너무 장해 온 동네를 몇번씩 돌며 자랑했다는 소식?

송히: 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왜?...

녀병사2: (뛰어들어오며) 동무들! 편지예요 편지. 평양에서.

송히: (벌떡 일어서며) 이리줘. 이리...

녀병사2: 호호호... 미안하지만 이건 영애동무 어머니한테서 온겁니다.

송히: 뭐? (병해 서있다.)

영애: (기쁨에 넘쳐) 아무렴 그러면 그럴것지. 이리 달라요.

녀병사2: 자 그럼 어제 계속 집체독보!

모두 (박수친다.)

△그들을 부러운 눈길로 보는 송히:.

영애: (편지를 읽는다.)사랑하는 내 딸 영애야, 그동안 잘 있었느냐? 대흥으로 가겠다는 너의 결심을 지지한다. 이 어미의 부탁은 절대로 남에게 뒤지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내 이제 휴가를 받으면 그곳에 가겠다. 그때 네

얼굴을 영에게서판에서 보여다오.

모두 (다시 박수친다.)

영애: 아, 조용조용. (계속 읽으며) 부디 광부들의 사랑을 받는 딸이 되거라.

녀병사1: (흥내내며) 부디 총각들의 눈에 드는 처녀가 되거라.

모두 호호호...

△더욱 피로와하는 송히. 편지를 더 읽다 말고 접는 영애:.

녀병사1: 아이 동무들! 이러다 진짜 무대에 나가 망신하자고 그래요?빨리 소품을 맞춰보지요.

송히: 먼저 가라요. 내 인츰 가요.

녀병사1: 빨리 와야 돼. 자, 가자요.

△모두 나간다. 되돌아서는 영애.

영애: 송히:, 어머니 소식없어 그러지?

송히: 응.

영애: 소식왔어.

송히: (그때야 기뻐하며) 그럼 그렇다고 할게지

내 속이 얼마나 탄지 알아? 빨리 이리내, 이리...

영애: 사실 우리 어머니가 편지 마지막에 너의 어머니 소식 전했어.

송히: 그래 뭐라구 했어?

영애: 동무들이 있어 내 다 읽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도 대흥으로 간다는 내 편지를 받고 너의 집에 갔댔대.

송히: 그런데?

영애: 그런데 너의 어머니는 깊이 생각하고계시더래.

송히: (놀라며) 그게 정말이야?

영애: 믿지 못하겠으면 이걸 보렴.

송히: (편지를 받아 황황히 본다.)영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신다는게 아니니?

영애: 너의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니깐 그럴수 있지 뭐.

송히: 아니야. 우리 어머니 그럴수 없어.

영애: 이제라도 네가 생각을 고쳐하렴.

송히: 뭐라구? 그건 안돼. 대흥으로 가잔 말을 내가 먼저 뗐는데 이제 주저한다면 동무들이 뭐라구 하겠어?

영애: 그대신 우리가 네똥까지 하면 될거 아니야.

송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돼. 절대루.

영애: 애두 참. (나간다.)

송히: (뒤에 대고) 영애, 어데 가 그 말을 하면 안돼. 아! 내가 어머니 생각을 모르고 결심했는가?

△송히: 맥없이 주저했는데 경숙이 나온다.

경숙: 아니... 송히동무, 왜 그렇게 맥없이 앉아있어요. 예?

송히: (편지를 보이며) 정치지도원동지, 이 편

지를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경숙: 예? 어머니가 어쨌다는거예요? (편지를 받아 읽는다.)

송히: (생각에 잠겨 소나무있는데로 간다.)

경숙: 그러니깐 어머니가 반대하신다는건가요?

송히: ...

△사이

경숙: 그럴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수 없어요. 동무의 어머니가 동물 기다리는것만은 사실이지만 반대하실 어머니는 아니예요.

송히: 나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경숙: 송히동무 어머니는 전쟁의 불길속에 처녀 시절을 보낸 어제날의 병사구 영예군인이 아니냐요.

송히: ...

경숙: 때문에 병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잘아는분이예요. 어머니뿐아니라 동생들도 동무를 자랑할거예요.

송히: 정치지도원동지, 난 우리 어머니를 믿겠습니다.

경숙: 믿으라요. 꼭 믿으라요.

△밖에서 《정치지도원동지》 하는 소리와 함께 찬실:이 뛰어들어온다.

찬실: 정치지도원동지, 우리 포장동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경숙: 뭐라고요?

송히: (놀라며) 아니...

경숙: (기쁨에 넘쳐) 그래 어데 있어요?

찬실: 중대부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닌 포장동지가 그런 결심한게 사실인가 자꾸 물었습니다.

송히: 엉?

경숙: 그래요? 어쨌든 빨리 가보자요.

△경숙:, 찬실, 급히 나간다.

송히: 그럼 어머니가 반대하신다는게 사실이란말인가? 이 일을 어찌나. (오열을 참으며 소나무뒤로 간다.)

△사이. 경숙이 옥분이를 데리고나온다.

경숙: 송히동무! 송히! 방금 여기 있었는데...

옥 분 바쁘실텐데 일을 보시라고요.

경숙: 나도 빨리 만나야겠습니다. (나간다.)

송히: (나무뒤에서 나오며) 어머니!

옥 분 송히야!

송히: 어머니, 그동안 편안하셨나요?

옥 분 오냐!

송히: 동생들도 잘 있구요?

옥 분 그럼, 모두 잘 있다.

송히: 먼길을 용케 오셨어요. 내 편지를 받고 떠났나요, 예?

옥 분 (생각하며) 송히야, 난 네 편지를 받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송히: (아연해하며) 아니, 그러니깐... 어머니...

경숙: (나오며) 오, 송히동무!

송히: 정치지도원동지... (금시 울음을 터뜨릴

듯)

경숙: 송히! 진정해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옥 분 송히야! 내 너한테 한가지 묻자.

송히: 예?

옥 분 네가 대흥에 가자는 생각을 어떻게 돼서 하게 되었느냐? 사회적분위기가 그러니 덩달아 내린 결심이 아니냐?

송히: 아니예요.

옥 분 너 어릴 때부터 남의 본을 따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헤덤비던 그 버릇이 되살아나 그런건 아니냐?

송히: 아니예요, 어머니! 난 오직 병사의 본분을 지키자구 내친 걸음이에요.

옥 분 그럼 네가 나무들도 바위많아 뿌리 박기 힘들어한다는 그 마천령기슭에 한생의 뿌리를 내리겠단 말이나?

송히: 그래요.

옥 분 (더욱 절절히) 그럼 네가 대흥의 나무아지에 잠시 앉았다 날아가는 계절조가 되지는 않겠단말이지?

송히: 그래요, 어머니! 난 절대로 계절조가 되지 않겠어요.

옥 분 (걱정을 터뜨리며) 장하다!내 딸아, 너는 군사복무를 헛하지 않았구나.

송히: 예?

옥 분 난 네가 대흥땅에 가서 며칠있다 나울것 같아 무서웠다. 미꾸라지 한마리 맑은 물을 흐린다구 당의 뜻을 받들고 산악이 되어 달려간 그 모범적인 제대군인들한테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이게 얼마나 나라에 죄되는 일인가말이다. 그래서 난...

송히: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날 믿어주세요. 난 절대로 병사시절의 맹세를 잊지 않겠어요.

옥 분 송히:야!

송히: 어머니! (옥분:이 손을 뜨겁게 잡는다.)

옥 분 정치지도원동무, 나도 이해와 같이 대흥땅에 가기로 했습니다.

경숙: 예? (다시 놀란다.)

옥 분 내 좀 더 일찍 올것두 대흥까지 가는 수속을 하느라 늦었지요. . 동생들도 떨쳐나섰단 우.

경숙: 동생들까지요?

송히: ... (목이 메어 어쩔줄 모른다.)

옥 분 우리 송히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흥땅에 오신 그날 영광의 대오에 서서 《우로 빛》 충성의 구령을 듣는 것을 내눈으로 직접 보자고 그러네.

송히: ... (울먹이며)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송히: 옥분의 품에 얼굴을 묻는다.

△높아지는 음악.

찬실: (나오며) 정치지도원동지, 러단정치위원동지가 오십니다.

경숙: 정치위원동지가요?

형국: (나오며) 정치지도원동무, 환송모임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경숙: 예. 정치위원동지, 송희동무의 어머니입니다.

형국: 그렇소? 어머니, 참 훌륭한 딸을 두셨습시다. 송희동무가 발기한 탄원사업이 온 부대에 파문을 일으켜 수십명의 녀성군인들이 떨쳐나섰습시다.

옥 분 예?

형국: 자, 보십시오. 저 동무들입니다.

△좌우에서 녀성군인들이 나온다.

옥 분 정말 끝끝두 하구만.

형국: 동무들! 동무들이 대흥으로 간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모두 예?

옥 분 아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요?

형국: 그렇습시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대흥광업기업소로 가겠다는 송희동무의 발기를 지지하여 많은 녀성제대군인동무들이 그와 함께 대흥으로 탄원하였다는데 이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모두 아니... (감격한다.)

형국: 그러시면서... 당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출 줄 아는 그런 동무들이 바로 우리 당이 키워낸 새 세대들이며 당과 운명을 같이할 참 좋은 동무들입니다.

모두 (더욱 감격한다.)

형국: ...나는 그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무의 자욱을 이어 당이 바라는 곳으로 탄원하는 그 자체가 위훈이며 만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일입니다.

모두 ... (흐느낀다.)

형국: 그러시고는 동무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과 함께 앞으로 맞이할 애인들에게 줄 웃감까지 마련해주시었습니다.

옥 분 세상에...

형국: 뿐만아니라 동무들을 해체하지 말고 제대군인소대를 무어 함께 생활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송희: (흐느끼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병사인 우리들이 보답의 길을 걷는 것이 응당한 일이

온데 이런 은정을 베풀어주신단 말입니까?

모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끝내 걱정을 터뜨리는 모두.

△고조되는 음악.

옥 분 정치위원동지, 내 딸이 열이 있으면 열 다 이 대오에 세우고 싶습니다.

형국: 아마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심정이 다 그럴것입니다.

옥 분 압, 그렇구말구요.

찬실: (격정에 차) 포장동지! 영광의 대오에서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그날 꼭 중대에 편지 하십시오.

송희: 찬실:이! 하구말구. 동무가 준 만년필로 내 꼭 편지하겠어요.

찬실: 포장동지!

옥 분 송희:야! (뜨겁게 딸을 애무한다.)

형국: 동무들! 이제부터 녀성제대군인소대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소대장 송희동무,

송희: 옛!

형국: 대원 김경화동무, 양인실동무, 리영애동무 ...

△음악속에 녀병사들이 정렬해선다.

△환영곡이 울린다.

형국: 소대장동무! 기발을 넘겨받으시오.

송희: 알았습니다.

△군관이 《녀성제대군인소대》라고 쓴 기발을 들고 나온다.

송희: (기발을 향해) 소대 차렷! 우로 뺏! 동무들! 오늘에 올린 이 《우로 뺏!》 구령이 래 일에는 대흥땅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는 충성의 보고가 되게 합시다.

영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호응하는 녀병사들.

△높아지는 음악. 설화가 울린다.

설 화 사람들이여! 우로 뺏! 저 구령을 함께 받으라! 저 구령을 내릴 때 머리를 숙이거나 미처 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락오자로 되나니 우리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심장으로 받드는 혁명 전사가 되자!

마음의 영결들어총 할수 있게 언제나 자신을 준비하자! 《우로 뺏! 우로 뺏!》

△송희: 기발을 주켜들 때막

봄하늘, 봄종다리 외1편

김광춘

지종지종-

봄종다리

하늘가에 날으니

흔들리는 봄하늘!

랄라랄라-

농장처녀들

일손도 흥겨우니

노래넘친 봄들관

저 멀리 들끝

씨뿌리는 처녀들

모판마다 씩씩가는 하얀 비닐박막

봄하늘을 안아내려 덮는듯

내리는 봄별아래

살뜰한 그 손길에

알알이 싹터나

모판마다 파릇파릇 봄빛 넘칠듯

봄이 왔네

봄은 와

일손마다 신바람난

농장별 처녀들

구성진 봄노래 불러불러

풍년맞이 봄종다리

너희들 아닌가

농장별 처녀들

줄대같은 푸른 모 어서어서 자라라고

풍년꿈 나래런듯 하얀 비닐박막

처녀들 마음처럼 그아래 깃드는

따뜻한 봄하늘

봄과 처녀

파릇이 애잎을 터는

벼모를 쓰다듬으며

관리공처녀는 이야기하네

앞산 글마다 아직 눈이 하얀데

젖살오른 아기의 모습처럼

봄빛으로 싱싱한 그 한파상에서도

구석진 몇대의 벼포기

더 주어야 할 온기에 대해

처녀는 이야기하네

이제 땅을 짚고 걸차게 일어설 그 벼모

이제 짹짹 처오를 아지들을 두고

덧비료에 대해, 김잡이약에 대해...

어느덧

처녀의 얼굴엔 웃음이 무르녹고

그 웃음발에 이어져

하늘하늘 춤추는 파란 댕상모

오호! 봄

봄

처녀의 마음속에

찾아온 봄

온 들판의 푸르른 봄

시작되는곳에서

풍년꿈 아지치는 푸른 모판에 앉아

나는 이야기했네

처녀와 풍년봄과-

내 고향은

강창영

내 고향은
머나먼 산촌
호박꽃 피는 그 처마밑
바람벽 하얀 고향집

봄이면 꽃병아리 모이를 쫓는
담장아래 꽃씨앗이 움트는 트랙
어머니 손잡고 걸음마 떼던
내 삶의 첫 요람

문밖을 나서면
봄잔디 파아란 산언덕
너는 철부지 소꿉시절
내 뛰놀던 삶의 첫 기슭

벼꽃에 실빛살 보실거릴 때
풀피리 즐겨 불던 버들방천이어
너는 나의 첫 생각을 불러내며
어린 시절 공상의 나래퍼던곳

아, 정든 내 고향은
아이적 호박잎에 딸기 싸주던
울어머니 다심한 손길,
여름날 할머니 무릎 베고 잠들던
트랙의 열매 주렁진 살구나무 그늘

내 어린 눈동자에 비낀
푸르른 고향하늘도
저 멀리 바다가 야영지
하얀 모래불우에서 텅굴며
내 바라보던 끝없는 조국의 하늘

어린 시절 꽃나비 쫓던
민들레핀 고향의 동쪽길도
굽이굽이 산굽이 돌아
조국땅 그 어데나 뻗어있고

우리 말 책을 읽던 고향의 학교
필갑소리 울리며 오가던 언덕길도
내 다니던 수도의 층높은 대학의 창가
대리석 층계에 잇닿아있나니

아, 어릴적 내 가슴에 부풀던
희망의 푸른 싹이
내 고향의 언덕우에서 움트고
행복의 푸른 잎은
내 조국의 넓은 품에서
무성한 아지를 펴고 설레이여라

내 꿈을 키워준 고향땅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흙 한줌도
나의 복된 삶,
내 조국의 풍요한 들과 떼놓을수 없어라

내 철들며 바라던 그 모든 꿈이
은혜로운 조국의 해빛아래
행복한 현실로 된 오늘에도
나는 때없이 너를 찾으며
리상과 희망을 성취한 승리자로
내 고향을 땀땀이 추억하나니

아, 내 한생 마음속에 안고사는 조국이어
그대의 한없이 넓은 그 품에
산촌의 작은 내 고향이 안겨
나의 굽이 꽃피나고
그대의 정다운 품이 있어
내 고향의 산천도
나날이 새 모습으로 꽃피나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의 품!

아, 내 아이적꿈이 깃들여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내 고향이어
너는 내 조국의 정다운 품이어라!
나의 조국애가 시작된 첫 기슭이어라!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관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

— 중편소설 《철산봉》에 대하여 —

정우송

중편소설 《철산봉》(허여극 작)은 널리 알려진 무산광산의 귀국동포 4부자운전사가 조국에 바친 끝없는 헌신성에 대한 실재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새 세대 청년들에게 조국과 삶에 대한 참다운 인생관을 심어주는 심오하고도 감동깊은 형상세계를 창조하였다.

1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나 조국을 떠난 삶이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나온 인생의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더 먼 청년들에게 있어서 태어나자부터 안겨 행복을 누려온 그 품이 어떤 품이며 그 품속에서 한생을 참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옳은 인생관을 지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의 일생에서 청년시절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윤택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청년시절에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인생의 훌륭한 결실을 위해서는 청춘의 힘과 열정을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위업에 바쳐야 합니다.》

중편소설 《철산봉》은 조국과 삶에 대한 참다운 인생관문제를 제기하고 사심없는 무한한 헌신으로 조국에 이바지하는 인간의 한생이야말로 가장 보람있고 영생하는 삶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 있다.

소설은 이 사상을 밝힘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서로 다른 인생관들간의 대립과 충돌의 복잡한 소용돌이속에서 점차적으로 집단주의적 인생관이 확대되고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깊이 파고들어 그리는 방법에 의거하였다.

소설의 전면에 걸쳐 근기있게 관통되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은 집단주의적 인생관과 개인주의적 인생관과의 대립과 충돌이며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파산과 극복, 집단주의적 인생관의 승리와 확대과정이다.

소설은 처음부터 주인공을 각이한 인생관들의 영향속에 세워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복잡한 과정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의 성장과정을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삶에 대한 주인공의 립장과 태도가 표현되는 첫번째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이다.

일본땅에서 인간이하의 학대와 멸시, 생활상고

통을 당하던 자기를 한품에 안아주고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안겨준 조국의 고마움에 그 무엇인가 하나라도 보태고만 싶은 아버지 라명득은 귀국초기 남을 대신하여 광산에 차진해오고 남들이 버린 88호차를 스스로 말아나섰으며 평양으로의 소환에 대한 권고조차 사양하면서 어떻게하나 쇠돌한 차라도 더 실어나르고 아들을 잘 키워 대를 이어 나라에 보답하려는 오직 하나의 일념에 불탄다.

그러나 주인공 라송태는 아버지의 이 숭고한 뜻이 담긴 아름다운 소행을 남종은 일이나 하는 《고지식한 바보》의 짓으로 여기면서 아버지의 충고와 통제에 불만을 품고 점점 더 벗어나간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인공에게 류광훈과 주동익의 인생관의 영향이 미쳐온다.

주인공 라송태에게 설교하는 류광훈의 이른바 《인생철학》은 생활의 매 계기마다에서 사회적인 망, 특히는 간부들의 믿음과 호감을 살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내어 제때에 행동에 옮길 줄 아는 교묘하고 타산적인 처세술이다.

류광훈의 이 험오스러운 《인생철학》은 물론 처음부터 로골화된 상태에서 주인공에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년기의 쓰라린 체험을 갖고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 안긴 귀국동포청년으로서 웅당 지니고있어야 할 청춘의 원대한 리상과 포부로, 큰 뜻 품고 수리개처럼 높이높이 날아오를 억척같은 결심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다.

그러나 그 원대한 리상과 포부, 억척같은 결심은 결코 조국을 위한 사심없는 참다운 헌신의 리상과 포부, 결심이 아니였으며 개인의 공명을 위해 남의 성과도 가로채고 집단도 안중에 없이 그 우에 자기를 올려세우는 개인주의적 인생관에 기초한 리상이었고 포부였으며 결심이였다.

공명심에 절을대로 절은 그의 안목으로는 주인공의 아버지 라명득의 아름다운 애국적소행도 한갓 점수를 따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주인공은 류광훈의 이러한 《인생철학》을 험오스럽게 느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하여 아버지에 대한 류광훈의 그릇된 속물적인 평가를 저도 모르게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류광훈의 평가에 주인공

이 따른것은 결코 류광훈의 《인생철학》에 대한 공감에 기초한것은 아니었다.

류광훈의 생활관에 공감하지 않았을뿐아니라 혐오스럽게 느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류광훈의 평가를 따른 주인공의 의식에는 그의 성격적인 순진성과 결합된 긍정적인 세계관적바탕이 있는 반면에 그 질과 농도에 있어서 류광훈의 생활관의 교묘성과 집요성, 비렬성과 철면피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변종의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낯은 잔재가 자리잡고있다.

아직 미숙은 하나 명백히 공부정의 2중적성격을 띤 생활관을 지닌 주인공에게 공감을 준것은 주동익의 생활관이였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그저 마음 편히 그늘없이 즐겁게 사는것이 곧 행복이라는 주동익의 관점은 조국을 위한 사심없는 헌신의 숭고한 삶의 리상과 포부와는 거리가 먼 안일한 자유주의적건달사상의 표현이였다.

이러한 주동익의 생활관에 대한 주인공의 공감은 아직은 긍정면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하여 부정면이 더 로출되는 주인공의 정신상태와의 일치에 기초한 공감이었다.

소설은 이처럼 처음부터 주인공을 세계관과 주견이 비교적 확고히 선 인물로 설정한것이 아니라 청춘기에 주위의 각이한 인생관의 영향을 받으며 인생의 험된 길을 걸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모대감을 거쳐 조국을 위한 참된 삶의 길에 들어서는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곡절많은 수양과 성장과정을 통하여 집단주의적 인생관의 확립과 그의 공고화과정을 깊이있게 그리였다.

소설은 다음으로 조국과 삶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밝힘에 있어서 조국에 대한 사심없는 헌신성에 대한 문제를 자기의 일터를 꿰을수 없는 참다운 품으로 느끼는 구체적인 조국애의 생활감정과 밀착시켜 형상하는 방법에 의거하였다.

조국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성을 옹계 형상하자면 조국에 대한 관점을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감정과 결합시켜 그려야 하며 그때라야 고통치는 숨결이 있고 뜨거운 피가 뛰는 산 화폭의 탄생이 가능하다.

소설은 주인공의 인생관의 확립과정을 자기의 초소와 일터, 벗들과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애착, 땀수 없는 정이 피어나고 커가는 과정과 결합시켜 형상하였다. 자기를 끌어준 조국이 한없이 고마워 그 은혜에 자기의 뼈와 피와 심혼을 깡그리 바치려는 아버지의 그 숭고한 세계를 이해할수 없었던 라송태에게 있어서 철산봉은 산설고 물설은 복판땅으로, 사람들조차 쇠돌밖에 모르는 사납고 거치른 사람들과 여겨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던 주인공이 자기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가는 노력속에 삶의 참다운 보람이 있고 값높은 영예가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 철산봉은 고향이

따로 없는 자기에게 고향못지 않은 정든품으로, 참된 삶이 새롭게 뿌리내린 다정한 내 고향으로 안겨지는것이다.

소설은 또한 주인공에게서 참다운 인생관의 확립과 함께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정서를 주인공이 맺는 사랑과 결합시켜 더 진하고 기쁨지게 돈구어내였다.

부예영과 옥설의 두 처녀에 대한 라송태의 리해는 인생관에서의 결정적인 전환과 더불어 참다운 삶의 터전우에 뿌리박지 못하고 무지개같은 허상에 매혹되어 부질없이 들떠있던 지난날과의 결별과 한성을 철산봉에서 바쳐갈 드팀없는 결심우에 뿌리박고 피어난 참다운 사랑이 맺어지는 오늘의 새 출발에 대한 하나의 뜻깊은 상징이다.

소설은 참다운 사랑은 리상과 지향에서의 일치와 함께 자기를 둘러싼 생활에 대한 꿰을수 없는 애착과 정이 피여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으며 그것이 고향과 일터, 벗들과 이웃들 통털어 조국에 대한 사랑의 한부분으로 될 때 참다운 행복의 꽃으로 피여날수 있을뿐아니라 참다운 사랑이야말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해주고 청춘의 아름다운 리상과 희망도 더 활짝 꽃피우게 해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조국과 삶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그 사상의 품격에 맞게 서로 다른 인생관들간의 대립과 충돌속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생활감정들과의 밀착속에서 형상함으로써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들을 폭넓게 다각적으로 제기하고 해명할수 있었으며 풍만한 생활의 화폭을 기쁨지게 창조할수 있었다.

2

중편소설 《철산봉》은 주체의 혁명적 인생관을 세워나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성장과정을 전일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으로서 독특한 이채를 띠고있다.

주인공 라송태의 의식의 성장과정을 그림에 있어서 소설이 보여준 특색있는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주위에서 미쳐오는 각이한 인생관들의 서로 다른 영향과 자체의 세계관의 공부정면들의 제약속에서 총체적으로 개인주의적 인생관에서 벗어나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체득하게 되는 주인공 라송태의 의식의 복잡한 성장과정을 그린것이다.

작품은 처음부터 주인공을 서로 다른 각이한 인생관들의 포위속에 세워놓고 그것들이 주인공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의식에서의 변화과정을 섬세하게 파고들어 그리는데 주력하였다.

소설의 첫 장면들에 그려진 주인공 라송태의 처음 행동은 조국과 집단을 위하는 아버지의 애국적 소행을 헤아려볼줄 모르는 그의 불만으로부터 시작된다.

폐차나 다름없이 된 88호를 자진하여 맡아 정상가동을 할수 있게 알뜰히 관리하는 아버지의

소행을 한것 남 좋은 일이나 할줄밖에 모르는 행동으로 여기는 라송태의 불만은 귀국후 배치된 평양을 마다하고 남을 대신하여 칠산땅을 자진해 나섰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결합된것으로서 이것은 아직 혁명적인생관이 확고히 서지 못한 청춘기의 있을수 있는 맹목적인 허영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라송태에게 근원적인 질과 농도에 있어서 구별되는 류광훈과 주동익의 개인주의적인생관 이 작용한다.

여기서 주되는 관계는 류광훈과의 관계이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류광훈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인공 라송태의 부정면의 극복과정과 함께 주로는 긍정면의 부각에 중심을 두고있다.

그 표현을 놓고는 전혀 나무랄수 없는 조국의 품에 안긴 귀국동포청년의 리상과 포부에 대한 류광훈의 주장은 그 리상실현의 단계가 너무나도 밧그라지고 타산적이어서 그뒤에 숨겨진 의도의 순결도와 량심에 의혹을 품게 해주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라송태의 미숙한 세계관과 지성으로는 류광훈의 주장의 밑에 깔린 진의도를 간파할수는 없었으며 또한 아직은 꿈이 없는 순진한 그의 성격적바탕이 류광훈의 밧그라진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게 하였을뿐아니라 갈수록 머저리구실만 한다고 생각되는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당면한 생활상요구로 하여 류광훈의 설교에 공감할수는 없었다.

더구나 사건이 진척됨에 따라 그 본래의 면모를 드러낸 류광훈의 이른바 《점수따기철학》과 《남시철학》은 라송태에게서 완전한 혐오감을 자아내게 한다.

이 혐오감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라송태의 성격의 긍정면을 로출시키면서 이미 로출된 부정면의 극복과정을 추동하고있으며 그의 긍정면의 확립공고화과정을 안받침하는 성격적바탕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류광훈과의 관계는 총체적으로 주인공 라송태의 세계관의 긍정면의 확인에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은 라송태의 세계관의 미숙성을 말해주고있는 동시에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건전한 인생관으로의 전환을 밑받침할 긍정적인 성격적바탕이 마련되어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소설은 또한 주인공과 류광훈과의 관계를 소설의 마감장면까지 끌고나가면서 류광훈의 개인주의적인생관의 파산과 주인공 라송태의 집단주의적인생관의 승리를 확인하고 있다.

소설은 일련의 주요사건들; 아버지의 부상과 아버지의 행동을 《점수따기》로 오인하여 생겨난 사건, 류광훈과의 송별회에서의 격투사건, 라송태의 문문내용에 대한 류광훈의 표절사건, 류광훈의 철직과 관련된 일련의 중요사건들을 통하여 류광훈의 개인주의적인생관의 추악성과 저열성, 사회적해독성을 발가놓고 그것의 종국적파산

을 선고했으며 그 과정속에서 주인공 라송태의 세계관의 부정면의 극복과 집단주의적인생관의 점차적인 확립을 진실하게 그려내었다.

소설은 류광훈의 사상성격적부정성을 그림에 있어서 종전의 소설들에서처럼 긍정인물과의 대립과 충돌속에서 부정인물이 개조되어나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중심을 둔것이 아니라 부정인물의 사상성격적 추악성과 저열성을 그 밑창까지 깎그리 파내어놓고 그것의 사회적파산을 선고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이것은 류광훈의 개인주의적인생관의 교묘성과 집요성에 맞는 형상방도일뿐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것의 파산의 불가피성과 그의 개조의 필연성에 맞는 정당한 형상방도였다.

다른 한편 주동익과의 관계는 주인공 라송태의 세계관의 부정면을 돋구는데 이바지하면서 라송태의 긍정면의 확대에 따라 인차 개조되어 집단주의적인생관의 사회적확대과정을 확인하는 관계로 설정되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주동익과의 관계를 라송태의 세계관의 부정면을 드러내는데 이바지하도록 그려 나가고있다.

일본에서의 너무도 모진 고통과 학대의 체험을 안고 조국의 품에 안긴 주동익은 선차적으로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것을 생활의 1차적요구로 내세웠으며 그것이 보장된 조건에서만 이른바 리상이나 포부도 실현될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이 든 청년으로 귀국한 그는 류광훈이처럼 그 어떤 리상이나 포부를 내걸만한 지성적준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이것이 평양감사나 도교지사가 못될바엔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생활의 1차적요구로 내세우게 하였다.

주동익의 이러한 인생관은 그 근원과 농도에 있어서 류광훈의 인생관에 비해 훨씬 가볍고 소박한것이기는 하였으나 조국에 대한 끝없는 헌신의 숭고한 리상의 견지에서 본다면 명백히 사회주의적 생활에 습관되지 못한 개인주의적인생관의 또 다른 변종에 불과했다.

이러한 주동익의 소박하고 설익은 생활관이 주인공 라송태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생활을 위해 그로 하여금 운판대로부터 후방부 운수파로 옮기게 하였던것이다.

주동익의 인생관에 대한 라송태의 공감은 조국을 위한 아버지의 사심없는 헌신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를 리해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불만을 품은 라송태의 맹목적인 허영심에 기초를 둔 개인주의적 인생관의 공감이였으며 아버지의 지긋한 통제로부터 벗어나 주동익이마냥 즐겁고 마음편하게 이곳 저곳 훨훨 날아다니는 생활에 무척 만족을 느낀 자유주의적건달사상의 공감이었다.

결국 주동익과의 관계는 라송태의 생활관에서의 부정면을 돋구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주동익과의 관계를 라송태의 세계관의 긍정면이 커감에 따라 주동익의 개조가 인차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려나감으로써 집단주의

적생활관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생활의 필연적인 논리를 확인하고있다.

주동익이 류광훈에 비해 먼저 개조될수 있는것은 주동익의 자유주의적생활관자체가 자본주의사회의 최하층의 생활상고통과 인간적학대에서 벗어나 조국의 품에 안겨 누리는 생활상만족 일면만을 중시한데로부터 생긴것으로서 개인의 이해관계의 집요하고도 약삭바른 타산과 집단과 동지를 깔보고 앞잡아보는 부르조아인테리적교만성으로 표현되는 류광훈의 생활관에 비해 그부정의 농도가 훨씬 높고 넓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주동익은 주인공 라송태의 점차적인 사상의식개변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사상적인 개조의 길에 인차 들어서며 류광훈의 혐오스러운 생활관이 로골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부정적태도를 명백히 가지는 긍정인물로 전환됨으로써 집단주의적인생활관의 사회적확대과정을 확인하는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주인공 라송태의 의식의 성장과정을 그림에 있어서 소설이 보여준 다른 하나의 성과는 주인공의 의식에서의 낡은것으로부터 새것에로의 개변과정을 일진일퇴의 끊임없는 련속속에서 곡절은 있으나 새것이 확고하게 승리하여가는 과정으로 진실하게 그린것이다.

소설은 주인공 라송태의 성격을 형상함에 있어서 그부정면을 동시에 내포하고있는 인물로 설정하고 긍정적바탕보다는 부정면이 더 강하던 단계로부터 부정이 극복되고 긍정이 지배적인것으로 되는 단계로 발전하는 인물로 그려나갔다. 이러한 주인공에게서 류광훈에 대한 반감은 그의 긍정면을 돌고구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주동익에 대한 공감은 그의 부정면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되고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주동익에 대한 공감의 점차적인 해소가 류광훈에 대한 반감, 대립, 충돌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과정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가 주인공으로 하여금 외부의 부정적영향과 자체내부의 부정을 동시에 극복하는 2중의 중압속에서 자체의 긍정의 우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맡게 했으며 그것이 또한 그로 하여금 걸음마다 심리적극을 체험하는 인물로, 긍정에로의 한걸음의 전진이 부정에 의한 한걸음의 퇴보를 동반하지 않을수 없는 곡절을 겪는 인물로 되게 하였다.

소설은 주인공이 주동익의 영향밑에 후방부 운수과에서 있는 동안에는 주로 주인공의 부정면을 기본으로 로출시키면서 아버지의 말없는 미거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반향과 천태화, 옥설의 영향밑에 이루어지는 긍정에로의 서서한 전진을 그렸다면 다시 운광대로 옮겨온 이후에는 주인공의 긍정면의 성장과정을 주선으로 끌고나가면서 부정면의 제동기적작용에 의한 전진의 담보와 후퇴를 그리는 방법으로 일진일퇴의 곡절있는 전진과정을 깊이있게 드러내었다.

소설은 처음부터 인간의 운명문제, 인생관문제를 첨예하게 제기하고 각이한 인생관들간의 교차와 충돌, 극복과 파산, 개조와 전진의 복잡한 과정을 생활과 성격의 논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렸다.

참으로 소설은 조국을 위한 사심없는 헌신속에 삶의 참다운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운명선의 묘사를 통하여 주체의 혁명적인생활관의 형성공고화과정을 깊이있게 밝혀내면서 일심단결된 우리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불패성과 위력,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소리높이 구가하였다.

3

중편소설 《철산봉》은 의의깊은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독특한 구성과 치밀한 분석적묘사으로써 매우 이채롭다.

소설은 종자의 요구에 맞게 60년대로부터 80년 대에 이르는 비교적 오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인물들의 인생관의 변화발전을 깊이있게 드러낼수 있도록 구성을 조직하였다.

물론 이 소설이 취급하고있는 시대적기간은 중편형식으로는 다루기가 비교적 아름다운 기간인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소설은 벽한 투쟁과 세기적위업이 이룩된 이 거창한 시대의 흐름을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의 곡절과 전환의 묘사를 통하여 무리없이 담아냈으며 시대와 인간, 조국과 삶에 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내는 의의있는 형상과제를 손색없이 해결하였다.

그것은 이 소설이 비교적 오랜 시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성장과정, 주체의 혁명적인생활관의 확립과정을 그리는데 모를 박고 그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구성형식으로서 1인칭 회상형식을 리용한것과 관련된다.

소설이 의거한 1인칭회상형식의 구성은 무엇보다도 회상이라는 형상적공간을 리용하여 비교적 오랜 시대적기간을 포괄하면서도 종자의 요구에 맞게 인간관계와 생활들을 집약적으로 중점적으로 선택배렬할수 있게 하였으며 지난 생활의 의미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더 의의있게 분석해명할수 있게 하였다.

소설은 회상식구성법을 리용함으로써 장기간의 시대적변화의 흐름을 종자의 요구에 따라 자유로 비약하고 생략하면서 필요한 인간관계와 생활들을 집중시켜 중점적으로 선택묘사할수 있었으며 각이 한 운명의 길을 걷는 인물들의 생활과 정신세계가 보여주는 교훈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의의있게 밝혀줌으로써 소설의 교양적가치와 정서적감흥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소설이 포괄하고있는 매우 오랜 시대적흐름 가운데서 때로는 해와 계절, 때로는 달과 날을 비

약시키고 생략하였으며 지어는 소설의 기본사건이 끝난 때로부터 회상이 이루어지는 현재까지 무려 10여년의 오랜 세월을 비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형상론리에서의 무리한 감과 빈구석을 느낄 수 없는것은 주로 인물들의 운명선을 그들의 인생관의 변화발전의 론리에 맞게 빈틈없이 꼭 맞물려놓은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회상식구성이 결코 시간의 비약이 운명의 비약으로 되게 하지 않은 이 소설의 생리에 맞는 구성이었음을 증명해준다.

소설이 의거한 1인칭회상형식의 구성은 또한 사건과 정황들을 주인공의 시점에서 파고들어 그럴수 있게 하였으며 주인공의 사상정신적변화발전과정과 심리정서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드러내보일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1인칭소설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 묘사를 위주로 하는 소설보다 인물의 정신세계를 자기체험의 토로의 형식으로 더 깊이있고 극명하게 열어보일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 형상세계의 특징이 그 어떤 의의있는 역사적사변을 대상으로 한 서사적성격을 더 강하게 띠는 소설들과는 달리 사회적문제성이 날카로운 인생관문제를 해명하는 심리소설적성격을 더 강하게 띠는데 있는것만큼 구성과 묘사에서 1인칭소설형식을 선택한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로부터 소설에서는 사건과 정황들이 주인공의 인생관확립과정을 보여줄수 있는 체험의 요구에 의해 선택배렬되었으며 선택된 사건과 정황들은 철저히 주인공의 체험의 시점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되고있다.

그러면서도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운명선은 시대와 생활의 발전과 밀착되어있으며 사회발전의 주되는 흐름을 힘있게 드러내고있을뿐 아니라 하나의 흥미있는 정연한 문학적이야기로 전환되고있다. 이것은 1인칭형식이 결코 체험의 묘사를 시대와 생활의 묘사와 분리시키지 않은 이 소설의 형상의 요구에 맞는 구성이었음을 증명해준다.

소설은 치밀한 분석적묘사로써도 특색을 나타내고있다.

소설에서는 하나의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주인공의 사상의식발전의 한 단계를 드러내보이고 해당한 단계에서의 주인공의 내면세계의 전모를 다각적으로 드러내보이는데로 묘사를 집중하였다.

례를 들어 소설의 마지막부분에 그려진 폭우와 태풍에 의해 운강길에 사태쳐내려온 아름답리 바위돌을 정으로 가내는 장면의 묘사가 그러하다.

이 장면에 그려진 바위돌을 정으로 까는 주인공의 행동묘사는 그의 인생관확립의 총화로, 사상정신적체험세계의 결속으로 되는 완전한 하나의 깊이있는 분석적인 심리묘사로 전환되고있다.

이 장면에서 바위돌을 정으로 가내는 전과정의 묘사는 철저히 주인공의 체험의 시점에 의해 투시되고있으며 체험의 내용을 드러내는 과정의 묘사로 전환되고있다.

이 장면에는 소설의 거의 모든 주요인물들이 주인공의 체험의 시점을 통해 그려지고있으며 그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총화되는 주인공의 인생관과 사상정서적체험의 내용들이 간명하게 묘사되어있다.

또한 바위돌을 정으로 가내는 전과정의 묘사는 련쇄적으로 이어진 주인공의 심리세계의 발전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인상적이고도 깊이있는 분석적인 심리묘사로 전환되고있다.

바위돌에 련속 메를 안기는 가운데 차츰 맥이 풀리고 바위에 생긴 실금이 보이자 다시 메를 휘두르고 구경꾼들이 모이는 가운데 숨결은 가빠져 메는 빛나가고 다시 힘을 모아 강타를 안기자 드디어 바위돌이 두쪽으로 갈라터지기까지의 주인공의 행동과정은 가슴속에 엉켜있던 울화의 덩어리가 녹아내리는듯싶던 상쾌감이 구경꾼들이 모여 들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불쾌감으로, 그것은 다시 비렬한 류광훈이 자기를 보고 비웃는것 같은데 대한 반발심으로, 바위돌이 터지는것과 함께 정신적인 정화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안정된 상쾌감으로 련이어 바뀌여지는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외부적인 영향과 자체내부속에 있던 낯은 인생관을 통채로 허물어버리고 아버지와 천태화와 옥설이들이 이끄는 참다운 삶의 길에 확고히 들어선 주인공의 곡절많은 인생전환과 그 창창한 미래에 대한 뜻깊은 상징이었다.

중편소설 《철산봉》은 이처럼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관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갈 새 세대들로하여금 청춘시절에 옳은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의 훌륭한 결실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과 열정을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위업에 남김없이 바쳐가도록 힘있게 고무해주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내 삶의 청춘은...

김련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 머리에 얹혀진
흰서리를 걱정하지 말아다오
내 삶은 너희들을 위해 바치는것
바치는 그것이 진정 기쁨이구나

량볼 뽕히며 첫 교단에 서던 일
어제런듯한데
꿈꿨던 그 시절은 추억의 언덕 넘어 저 멀리
너희들의 모습을 안고 흘러갔구나

너희들과 더불어 손목잡고
춤추며 돌아갈 때면
마음은 하냥 즐거워
소녀시절로 되돌아간듯싶며 마음

초소에서 건설장에서 대학에서
너희들의 자랑담긴 편지를 받을 때면
가슴은 마냥 설레어
뜨거워지는 눈시울
추억에 젖는 내 눈시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길걸던 가정방문의 그 나날에
나를 누나처럼 따르던 너희들처럼
머리에 흰서리 내린 오늘에도
나를 어머니처럼 따르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 교단을 떠나서야
내 삶의 보람 그 어데 있고
이 아이들 눈빛에
내 모습 거울처럼 비끼거니

흘러온 세월도
다시 불러와
너희들을 위해 바치고싶은 이 심정
너희들곁에 언제나 있는 이 마음

헤어져 멀리에 있어도
교정에 함께 있어도
너희들 눈동자에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새겨져
내 삶은 언제나 청춘으로 비껴있으리

병사의 땀방울

송춘일

모르리라
병사가 걸어온 자욱자욱에
병사가 뿌려온 땀방울이 얼마인지
누구도 그것은 알수 없으리

알지 못하리라
병사를 키워온 어머니도
병사를 가르친 스승도
이름없는 산발에 스며있는 그 땀방울을
아스라한 절벽에도 젖어있는 그것을

살점을 어이는 강추위를 밀어내며

밤을 잇대는 행군길에서
처음으로 새벽이 지는걸 보던 날
구대원의 큼직한 손에 이끌려
걸으며 조는 법도 배웠던 그날에

차디찬 강물을 헤쳐넘어
눈덩이로 언발을 맞비빌 때
그래도 병사의 잔등에선
진한 땀방울이 흘러내렸거니

병사에게 땀 없는 날 있었던가
때로 채찍같이 비껴치는 비줄기속에서
질적한 주먹밥 달게 먹으면서도
군인다운 호탕한 웃음 날리며

병사들이 흠뻑뻑 그 땀방울

진정
만년을 기억할 기념비에
이토록 땀을 바쳤다면
그것이 위훈의 탑이 되어
사람들의 경탄속에 솟았으련만
이 땅의 산과 들에 뿌린
그 많은 땀방울의 무게를
병사는 계산하지 않거니

허나 기억해주리
병사가 안고편 그 산발들은
병사가 안고건넌 그 강들은
말없이 땀흘려 조국을 지키는
병사의 뜨거운 마음을

알아주리
입술을 깨물며 넘었던 그 칼산들이
쏟아지는 별빛에 고향생각 없으며
훈련의 피곤을 지우던
이름모를 골짜기 그 숙영지들이

정녕
마르고 씻기고 스미어
이 땅에 남는것 하나 없어
부모도 스승도 알리 없지만
아, 조국은
값없이 산 인생의 피보다
그 피의 무게에 비할바 없는
병사의 땀방울을 알고있노라

락수물소리

전영희

일을 해도
길을 걸어도
노래 없인 못걸디는
처녀시절이어서

이 저녁 처마밑에 떨어지는 락수물소리도
가슴에 흥겨운 음향을 튕겨주네
부푸는 내 마음 희망을 터쳐
부르는 노래의 장단을 치네

거울속에 비낀
굽실한 내 머리 매만지던 지난 저녁에도
동구길에 그 총각 기다린다고
속삭이는것만 같던 락수물소리

내리는 비처럼
눈물도 많던 그 세월엔
할아버지 할머니 피눈물이었다지만
왜 이리도 내 가슴엔
행복의 속삭임으로만 들려올가

우리 수령님
비오는 들길을 걸으시며

풍년을 안아오시고
네귀 번듯한 기와집 주시어
구르는 물방울도 감사의 노래 부르는가

꼴머슴이었던 할아버지에게야
그 어이 피눈물 아니 고였으랴
부엌너였던 할머니 가슴에야
어찌 설움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랴

노래만을 안다고 탓하지 마세요
나날이 즐거우니 노래밖에...
가는 세월 오는 세월 하종아
노래만을 아는 마음 탓하지 마세요

허나 옛시절 잊을가봐 잊을가보아
언제나 생각의 갈피에 떨어지는 그 소리
오늘이 귀중할수록 잊지를 말라고
즐거운 노래만을 주는 세월
위훈으로 빛내라고 속삭이는 그 소리

나는 알아요
나는 들어요

삶의 위치

리래렬

《봉—》

새로 생긴 서해간석지농장에 집단진출하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실은 렬차는 어느덧 구내를 벗어나 아득히 멀어져가고있었다.

홈에는 9월의 따스한 해별과 함께 손저어 바래온 학부형들과 학교 교원들이 남았다.

나 역시 그 렬차에 막내딸을 보낸 학부형으로서 그들과 함께 서있었다.

안해한테서 애를 응석반이로 키운다고 가끔 칭원을 듣던 나는 애지중지한 그 무엇이 품에서 홀날아난 허전함에 앞서 그보다도 대견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졌다. 배움의 대문을 나서자부터 대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는 청신한 꽃송이를 보는듯한 광만도 없지 않았다.

역움을 나와 얼마쯤 걷는데 문득 등뒤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났다.

《영예군인공장 비서동무 아십니까?》

나는 머리를 돌렸다.

낮익은 신문사의 젊은 기자가 싱글거리며 다가왔다.

《아, 이거 정말 반갑소! 또 우리고장에 취재를 내려온모양이구만!》

방금 차에서 내린듯한 그를 마주향해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렇습니다. 비서동문 어디 갔다오는 길인가요?》

그는 나와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난 딸을 바래우려 나왔댔소.》

《딸이라니? 아 중학교 다니던 막내딸입니까?》

《허허... 옳소. 그 애가 졸업하구 제 학급동무들과 함께 새로 생긴 간석지농장으로 진출해갔오.》

《그래요?...》

기자는 눈을 크게 뜨고 직업적인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거참, 기특한 애들이군요... 물론 자원했겠지요?》

《그렇소.》

《아마 자기로서의 깊은 생각이 있었던모양이지요? 확실히 지금 청년들은 전진하는 오늘의 숨결 속에서 자기의 삶을 꽃피울줄 안단말입니다.》

젊은 기자는 우리 딸애의 결심을 그 어떤 승엄한데다가 걸어보는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제 나름의 생각에 잠겨있었다.

나는 기자에게 담배를 권하고나서 잠시 끊어졌던 화제를 이었다.

《그 애들이 조국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한것은 물론 제스스로 생긴것은 아니라고 보오.》

《그렇다면 그 어떤 바탕에 기초한 행동일가요?... 이거 로상에서 실례합니다만 저를 도와주는셈치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때와 장소도 고려없이 젊은 기자는 바싹 나에게 다가들었다.

《허허...》

나는 조용히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의 눈앞에는 이제는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서 깊은 안개속같이 희미해진 오랜 시절의 가지가지 사연들중에서 한 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수한 조선치마저고리차림, 머리에는 언제나 흰 타올수건을 올려놓고있는 보통녀인의 수수한 모습이...

×

조국땅은 벌써 만 일년째 불타고있었다.

가렬한 전쟁은 더 많은 청장년들을 전선으로 부르고있었다. 마을의 나의 친구들도 모두가 전선을 탄원해나갔다. 그러나 시력이 나쁜 관계로 신체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는 친구들 없는 《적절한》 마을에서 리민청사업을 맡아보게 되었다. 남들처럼 전선으로 나가지 못하는 처지에서 나는 마을에 남아있는 처녀민청원들을 데리고 전선원호사업이며 파괴된 철길과 도로들을 복구하는 일에 부대끼고있었다. 그것으로 전쟁승리에 이바지한다고 자신을 위안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외아들이 시력때문에 집에 눌러있게 된것을 두고 못내 가슴앓고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아들들을 두셋씩 전선에 보낸 어머니들앞에서 아들 하나를 군대에 내보내지 못한, 마치도 부실한 자식을 둔듯한 부끄러움, 조국앞에 준엄한 시각이 닥쳐와 청장년들도 모두가 조국의 운명을 안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는데 그렇지 못한 아들을 둔것이 어찌 민망하고 죄스럽지 않으랴. 외아들인 나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는 어머니의 얼굴에 노상 수심의 그늘이 걸리지 않는것 역시 나의 마음구석을 벗자극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들 세형제를 전선에 내보낸 우리 뒤집 어머니의 심정을 가슴 후덥게 분후로는 더구나 그랬다.

어느날 미체공중비적들이 우리 마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철다리를 끊어놓았다. 그것은 거의 매일과 같이 있는 일이었다. 그날도 철다리복구에 민청원들과 함께 녀맹원들, 농맹원들이 달려나갔다. 그날은 끊어진 구간이 길어서 밤새껏 일해야 할것이 예견되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밤끼식을 마련할것을 민청원들에게 호소했다. 많은 국사발과 밥사발이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릇들을 모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서너번째만에 바

로 우리 뒤집어머니네 부엌문을 열게 되었다.

세충 네충으로 된 당반우에 여러가지 그릇들이 주렁이 놓여있는 부엌칸은 총포탄이 튀는 전쟁이라는것과는 인연이 없는듯 매우 정갈하고 아늑하였다.

뒤집어머니는 막내이며 외딸이며 스무살난 민청원인 탄실이와 함께 방금 철다리 복구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서두르고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찾아온 사유를 말했다.

《내야지, 내야 하구말구. 그런데 밥사발이… 그렇지. 고방안에 사다둔게 있지.》

어머니는 얼른 고방문으로 다가갔다.

《아니, 어머니, 저기 저 사발이면 되겠습니까. 뭐 새그릇이 요구되는건 아니니까요,》

나는 부엌문을 열자바람으로 눈에 띄이던 당반우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세개의 밥사발을 가리켰다.

《저거? 응… 저건…》

어머니는 무엇인가 마음속이 들킨듯처럼 나에게 멍적은 미소를 던지고는 고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죽으로 접어놓은 새 사발을 들고 나왔다.

《저 사발이면 된다는데 뭘 이렇게 새 사발을…》

나는 또다시 당반우에 가지런히 놓인 세개의 밥사발을 눈짓하고는 새 사발을 내려다보았다.

《새것들을 이런 때 안쓰고 어따 쓰겠나.》

역시 어머니는 무엇인가 분명히 숨기면서 나에게 사발을 안겨주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해도 나는 뒤집어머니의 그 미안해하는 표정과 머뭇거리는 몸가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영문몰라 망설이는데 어머니와 함께 철다리복구장으로 나가려고 서두르던 탄실이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눈길했다. 캐여묻지 말라는 암시였다.

(…?)

어리벉벉해진 나는 그런대로 새 사발들을 안아 들고 나왔다.

(무슨 사연일까?)

이튿날 탄실이가 나에게 사연을 말해주었다.

탄실이 우로 세아들을 둔 어머니는 농사짓던 딸아들을 인민군대에 보낸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끼니때마다 아들의 밥을 담던 그릇을 맨 우당반우에 올려놓고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것이다. 먼지가 오를세라 아침저녁으로 정성스레 닦아서는 다시 올려놓군하면서… 얼마 안있어 먼민청에 다니던 둘째가 전선으로 나갔다. 그러자 첫째의 밥사발결에 둘째의 밥사발이 가지런히 놓이게 되었다. 뒤이어 셋째의 밥그릇이 또 그옆에 놓이였다. 중학교 졸업반이였던 셋째 역시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갔던것이다.

《한번은 제가 멋모르고 셋째오빠의 밥사발을 내리웠어요. 철다리공사장 야간작업에 밥을 담아

가지고 나가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애, 다른 사발도 많은데 하필 오빠의 밥사발을… 아서라, 깨면 어쩔려구.>하며 내 손에서 밥사발을 빼앗아 제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아이참, 어머니도 밥사발이 뭐라구…》

탄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아들 세형제를 전선에 내보낸 뒤집어머니의 심정이 가능되었다. 하루 세번 끼니마다 어머니는 그 밥사발들을 바라보며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아들들을 생각할것이다. 아니 그 밥사발을 고이 간직함으로써 아들들이 전선에서 승리자로 돌아올날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아들 세형제를 모두 전선으로 떠나보낸 뒤집어머니의 애정은 하나 남은 스무살짜리 딸 탄실에게 돌리고있었다. 뒤울안 바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뒤집 생활을 자주 띄여보게 되는 나는 뒤집어머니의 말에 대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애착을 자주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어머니는 전선으로 나간 세아들에게 주던 정을 그저 가슴속에 묻어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만큼 탄실의 신변에 대해서는 남달리 관심을 돌리고있었다.

하루는 전선에 보낼 식량을 운반할 과업을 받고 마을에서 열댓대의 달구지가 읍으로 떠났다.

그 대렬속에는 서너명의 아주머니들과 함께 탄실이기도 끼여있었다.

지정된 장소에까지 식량을 운반하고 달구지대렬이 읍을 거쳐 마을을 향해 올 때였다.

갑자기 나타난 적 색새기편대가 읍시장마당쪽에 내리쬐히며 기총소사를 해대고 폭탄들을 마구 떨어뜨렸다.

우리 달구지대렬은 얼른 길옆 소나무숲에 대피했다. 적기들은 채자 감돌며 지랄을 쳤다. 시장마당쪽에서 무엇이 타는지 시꺼먼 연기가 타래쳐오르고있었다.

폭음이 사라지자 달구지들은 다시 마을을 향해 떠났다. 달구지대렬은 나지막한 언덕굽이길에 들어섰다.

이때 나는 문득 앞을 막아나선듯한 굵인돌이 저쪽에서 웬 녀인이 불쑥 나타나는것을 보았다. 흰적삼에 검정치마를 입은 녀인은 허겁지겁 달려오던 걸음을 갑자기 늦추더니 흘려내린 머리수건을 가슴앞에 모아쥐고 선채 우리 달구지쪽을 한참이나 바라보고있었다.

(누군데 저렇게…?)

맨앞의 달구지를 몰고가면서 나는 녀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달구지대렬과 녀인과의 거리가 얼마쯤 가까와져서야 나는 그 녀인이 뜻밖에도 우리 뒤집어머니임을 알아보았다.

(저 어머니가?... 탄실의 마중?... 마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떠났는데 마중은 웬 마중을...)

그런데 내가 미처 의심을 풀기도 전에 어머니는

책 돌아서더니 굵인돌이길을 되돌아 황황히 사

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머리를 돌려 네번째 달구지에 붙어서 오는 탄실이를 의문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도 어느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어머니를 놓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전에 없이 빨강게 상기되는데가 부끄러움을 타는듯 수그린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그 무엇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어려있었다. 그것이 모름지기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나는 앞질러 사라지는 뒤집어머니의 행동과 그 심정이 심분 리해되었다.

딸자식이 떠난 그쪽이 폭격을 당했는데 어머니가 딸걱정 안할수 있겠는가. 더구나 아들 세형제를 전선으로 보내놓고 오로지 그 딸 하나를 끼고 있는 어머니입에랴.

그러나 어머니쪽에서도 자식에 대한 자기의 여린 마음을 마을사람들앞에 보이고싶지 않았으리라.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는 탄실이를 보자 내쳐 돌아선 것이리라.

문득 나의 머리속에는 이제부터 어머니는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딸 탄실이만은 자기 품에서 절대로 내놓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디 그들 모녀들에게 불우한 일이 없기를 속으로 바랐다.

이럴즈음 전선형편은 미제침략자들의 발악적인 《하기공세》로 하여 점점 더 준엄해졌다. 조국은 전철 인민군대와 인민을 결사전으로 부르르고있었다.

청장년들이 서야 할 자리는 더욱 명백해졌다.

나는 자신의 시력에 대한 더욱 강한 환멸속에서 번민상태에 빠졌있었다. 나의 시력은 바로 손에 총을 잡지 않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이 준엄한 시각에 후방에 박혀있는 것에 대한 구차스러운 변명의 너절한 증표같이만 생각되었다.

남모르는 피로움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있었다. 아침마다 듣게 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에 접할 때면 통쾌한 마음뒤에 따르는 것은 피로움이였다. 그 전투성가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몸인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나더러 이 남모르게 덮여있던 마음속 그늘을 벗어던지고 피로움의 울타리를 박차버리면서 용약 뛰쳐나오도록 충격을 준 결정적인 동기가 생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나는 두고두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읍을 지나 머나먼 전선지구 가까이 있는 X군까지 식량을 싣고 갔다가 옛새만에 돌아온후에 있는 일이다. 돌아오자바람으로 나는 놀라운 소식에 접하였다. 우리가 떠난 사흘만에 뒤집어머니 손에는 뜻밖에도 셋째아들의 전사통지서가 날아들었던 것이다. 영웅하게 희생된 셋째의 전사통지서를 리인민위원장님이 하루를 꼬박 심뇌한후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웃이 당하는 모든 일을 자기 집일처럼 여기는 마을사람들속에는 동정과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

찬 공기가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나는 문득 뒤집 부엌칸 당반우에 가지런히 놓인 밥사발가운데서 세번째 밥사발의 무늬가 유묘하게 눈에 띄우던 생각이 났다. 돌레에 고전무늬를 두르고 《복》자를 그려넣은 밥사발이였다. 그 사발에 대해서는 셋째가 나에게 말한적이 있었다. 한 포대인 우리는 어머니의 집에서 서로 밥상을 마주한 일이 여러번 있었는데 한번은 내가 그 사발이 별로 커보인다고 했더니 셋째가 유쾌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우리 어머니인 우리 집에서 장차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건 이 셋째라는거야. 이제 대학까지 나오자면 많이 먹고, 몸부터 튼튼해야 한다면서 일부러 큰 밥사발을 장만했다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셋째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에 잠겨 어머니의 그 기대에 보답하겠노라고 좀 희떠울 정도로 덧붙였다. 어머니의 그 기대에 엄청난 충격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뒤집어머니는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말을 하는 나의 어머니 역시 옛새만에 돌아온 나더러 이전과는 달리 얼마나 고생했느냐, 위험하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나약한 물음은 한마디도 하지않았다. 오히려 《뒤집 셋째는 잘 싸우다 전사했다는구나!》라고 말했다. 슬픔을 씹어삼킬뿐아니라 자기 아들이 전사했다고 말했을 뒤집어머니에게서 분명 강한 충동을 받아안은 것이리라.

하지만 뒤집어머니도 역시 녀성이였고 자식없는 어머니였다. 내가 문안걸음으로 그를 찾아갔을 때였다. 부엌문이 열려있어서 《제십니까?》하고 문턱을 넘어서려던 나는 뜻밖의 일에 멈칫하고 서버렸다. 뒤집어머니가 부뚜막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었는데 치마자락으로 입을 감싸쥔 어머니는 인기척도 못듣고 머리를 떨군채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부뚜막에는 방금 담아낸 《복》자를 새긴 사발이 반짝이고있었고 축축한 걸레가 옆에 놓여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가 머리를 드는 순간 나는 오히려 머리를 떨구고 말았다. 불깃한 어머니의 눈확에는 눈물이 그득 고여있었던 것이다. ...

이때부터 나의 가슴속에는 뒤집어머니의 마음속 피로움이 그늘로 옮겨앉았다. 이제 그 설음을 삭여내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날과 달이 흘러야 할 것인가. 상처는 아무는 법이지만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중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이다.

그런데 바로 이 슬픔과 상처의 아픔을 이겨내고 맞받아나가는 어머니의 그후의 숨엄한 모습이 나의 운명에 전환을 가져온,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강력한 충격으로 나의 머리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 것이였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후로 사흘이 지난날 저녁 나는 민청원들이 준비한 위문편지와 치술, 치약, 비누와 세수수건이며 양말과 장갑 같은 물품들을 한아름되게 싣은 보따리를 들고 리인민위원회로 갔

다. 뒤집 셋째의 전사통지서로 하여 마을사람들의 의기가 격증된 때여서 위문품은 전에없이 많이 들어왔다.

몇몇 민청원들이 책상우에 포장지들을 퍼자 나는 그우에 위문품들을 쏟아놓았다. 종류별로 나누어 나는 문득 좌중을 살폈다. 눈길은 남몰래 탄실이를 찾고있었다. 있으면 즐겁고 없으면 허전해지는 탄실이었다. 요즘 속기빠른 축들은 벌써 탄실이에게로 쓸리는 나의 마음을 깎새채고 우리들사이에 무슨 조간이 있었을것이라고들 놀려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오늘저녁 이런 일에는 빠지는 일이 없는 탄실이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허전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왜 오지 않았을까?...)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원인은 틀림없이 똑같은 한가지였을것이다.

우리는 마을청년들의 복수의 심정이 스며있는 위문품들을 정성껏 다루었다. 모두들 말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손만을 부지런히 놀리고 있었다. 무거운 분위기를 건드릴가봐 누구나 조심하는것 같았다. 가끔씩 인민위원장이 잘못싼 꾸레미를 끌라 고쳐싸도록 하느라고 한마디씩 하곤하였다.

그런중에도 탄실의 생각을 굴리고있던 나는 끝내 참을수 없어 위문품들을 포장할 노끈을 가져와야겠다는 핑계를 대고 밤에 나섰다. 나는 곧바로 탄실이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를 데리고 나와 동무들과 심쓸리게 하면서 괴로움을 덜어주고싶었다.

마을 아래켠에 있는 그의 집 프락에 들어서서 집안기척에 귀를 강구던 나는 슬며시 걸음을 멈추었다. 등화관제를 한 문째새로 희미한 등잔불빛이 새어나올뿐 집안은 물속처럼 괴괴하더니 문득 어머니의 어딘지 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말 네가 결심을 했단말이나? 응?》

《그래요. 어머니, 난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아리해했어요.》

탄실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용타, 탄실아, 네가 정말 장하구나!》

어머니의 기쁨과 눈물에 젖은 목소리.

《어머니!》

역시 울음터질듯한 탄실의 목소리.

조용하였다. 모녀는 부둥켜안았을것이다. 무슨 격한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난 어머니가 눈물로 지낼것만 같아요. 》

잠시후 탄실이가 조용히 하는 말이었다.

《굴세 그럴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을게다. 》

그리고는 다시 조용하였다.

어떤 사연일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다.

(혹시 집안의 가장 귀중한것을 위문품으로 내놓으려는것인가? 탄실의 결심... 어머니의 기쁨...

분명 탄실이와 깊이 관련될 물건일것이다...)

그런대로 나는 집에 들러 노끈을 걷어쥐고 인민위원회로 돌아왔다.

위문품들을 포장하는 일까지 거의나 끝나갈무렵이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빠르게 열리면서 문가에 흰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은 우리 뒤집어머니가 나타났다. 손에는 큼직한 보따리를 들었다.

똑같은 의문으로 가득찬 모두의 눈길이 순간적으로 부딪쳤다.

몹시 수척하고 추연해보이는 어머니는 곧바로 우리들에게로 다가왔다.

《많지는 못하지만 이걸 더 보태라구. 》

어머니는 들고온 보따리를 책상 한쪽 귀에 올려 놓고 풀어헤쳤다. 여러가지 세면도구들과 여러컬레의 양말, 장갑들은 물론 수를 놓은 담배쌈지까지 나왔다.

《어머니 정성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청원들이 모아놓은것만해도 충분하니 집의것은...》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사양하려고 하자 어머니는 나의 말허리를 꺾었다.

《그러지들 말라구, 내 정성이 어느만하면 내직성이 풀리겠나. 그저 우리 셋째의 몫까지 하는 줄 알구 받으라구. 》

하면서 어머니는 꺼내놓은 물건들을 책상가운데로 굳이 밀어놓는것이였다.

우리는 뜨거워지는 가슴을 안고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인민위원장도 감동에 잠겨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까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안에서 두 모녀가 주고받으며 서로 격해있었던 내용이 바로 모녀간에 위문품을 놓고 한 말이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뻐근해움을 느꼈다.

《저... 인민위원장아주버니. 》

문득 뒤집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인민위원장을 나직이 부르며 그에게로 다가가는것이였다.

《네, 어서 여기에 와서 앉으십시오. 》

인민위원장이 자기 의자를 어머니앞으로 친절히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은 옆의자를 끌어당겼다.

《네...》

뒤집어머니는 공손히 의자 한끝에 엉겨주춤 앉더니 잠시 말없이 인민위원장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였다.

이때 나는 어머니가 이제 무슨 말을 할것인가, 가슴깊이 묻어둔 슬픔을 터뜨려놓을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당당하게 부여된 권한으로 그 어떤 사회적도움을 바랄것인가? 나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때 똑같은 마음으로 다음순간을 기다렸을것이다.

인민위원장은 본래 설설한 성미였는데 그 역시 말없이 어머니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말없는 어머니의 심중을 지레 짐작한 그는 정중한 음성으로 《아주머니의 지원물자는 각별한 의미로 전달될것입니다.》

하고 방안의 침묵을 흔들었다. 그러자 침묵은 더욱 무겁게 드리웠다.

그 침묵을 뒤집어머니가 다시 흔들어놓았다.

《아니우다. 거야 누구나 다 내는 원호물자인걸요. 위원장아주버니, 한가지 꼭 들어줘야 할 소원이 있어 왔수다.》

《뭔데요. 어서 말씀하십시오.》

인민위원장은 진작 그 어떤 소원이건 다 들어줄 자세였다. 과연 그 누가 어머니의 그 무슨 소원인들 들어주지 않을수 있었으랴.

《저 우리 탄실이를 말이우다.》

어머니는 매우 힘든 부탁이라도 하는듯 의자끝에서 몸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인민군대에 보내주시우다.》

《네?》

인민위원장의 두눈에 놀라움이 어렸다.

우리모두의 눈이 마찬가지였다.

《우리 탄실을 말이우다. 인민군대에 넣어달란말이우다!》

어머니는 아주 똑똑히 그대로 반복하였다.

(탄실을 인민군대에!...)

나의 가슴은 누를길없이 활랑거렸다.

어디선가 먼곳에서 들려오는 둔중한 폭음이 문풍지를 흔들며 지나갔다.

이런 소원일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민위원장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가 가카스로 머리를 쳐들었다.

《아주머니,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였습니까? 아주머닌 아들 셋을 인민군대에 보냈구 셋째는 영영 나라에 바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더구나 마음먹은거라우, 미국놈들이 내 아들을 빼앗았는데 이 어미가 어떻게 가만히 참구만 있겠수.》

《물론 복수를 해야지요. 아주머니 그건...》

인민위원장이 또다시 자기판단을 앞세우며 입을 열었다.

《아니우다. 복수야 술한 우리 인민군대들이 하구두 남을거우다. 천백배루 할테지요... 하지만 이 어미의 마음속 구석이 허전한거야 누구두 메꾸어주지 못하우다. 세 아들이 다 제자리에서 싸우구있을 땐 이 어미의 마음두 편했구 허전하지 두 않았다우. 모두가 제각기 나라를 지켜 한자리씩 말아가지구 싸웠으니말이우... 그런데 셋째가 그렇게 된 다음부턴 이 어미마음 한구석이 터진 울다리처럼 불안하기만 하우다. 그 애가 제자리에 없으니 이 어미의 마음속에두 빈자리가 생겼나보우.》

어머니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인민위원장은 한참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주머니... 끝째 아들들을 다 보낸데다가 인젠 딸마저 어떻게...》

《위원장아주버니, 더는 다른 말 말아주시우.》

어머니는 인민위원장의 말을 밀막아버렸다.

《결심은 굳힌거니 그저 청을 들어주시우!》

칼로 잘라버리듯 말하고난 어머니는 감히 거절할수 있느냐는듯 인민위원장을 똑바로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알구보니 우리 탄실이는 그 일을 두구 많은 생각을 했습디다. 그러구나서 결심한거라우.》

(아, 어머니!)

나는 심장의 박동에 떠받들리어 그자리에 서있었다.

(불빛 새어나오던 그 방에서 어머니는 탄실을 그렇게 높이 세워놓았구나!)

나의 눈앞에는 달구지를 몰고오는 탄실을를 마중해 나왔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고 남몰래 눈물짓던 동자칸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이 밝혀왔다.

(그처럼 평범한 저 어머니가!...)

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때까지 보고 듣고 느껴온 사연들과는 대비도 안되는 무엇인가 더 없이 크고 거대한 그 숭고함의 깊이를 다는 켈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것을 느꼈다. 자식들과 함께 자기자신이 지켜선 한없이 귀중한 조국이라는것을 놓고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인민위원장도 역시 같은 느낌이었던지 근엄한 기색을 하고 서있었다. 잠시후 그는 어머니결으로 다가가 두손을 꼭 부여잡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그리고는 농을줄 물랐다. 아주 오래동안...

옆에 서있던 몇몇 민청원들이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 순간 나는 얼마후이면 현실로 될 환영속에 잠겨있었다. 거연히 서서 손저어주는 뒤집어머니... 그 배움속에 씩씩하게 걸어가고있는 군복차림에 배낭을 멘 탄실이... 문득 탄실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손짓한다. 나더러 어서 따라오라는듯...

그리하여 뒤집동자칸 당반우에는 네번째 그릇, 바로 탄실의 그릇 하나가 더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밥사발이 아니라 국사발이었다. 밥은 언제나 어머니와 한그릇에 담았던것이다.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나의 눈앞에는 뒤집 부엌칸우의 네개의 사발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도 네쌍의 날카로운 눈길이 되어 나를 지켜보면서 대답을 요구하는것만 같았다. 조국이 시련을 겪는 이 준엄한 시각에 너는 네가 설 자리에 서있는가?

×

...우리는 어느덧 읍중심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영예군인공장입구에 이르렀다.

나는 젊은 기자가 이야기를 마쳐 듣겠다고 하는통에 그를 데리고 나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금빛으로 채색하기 시작한 두그루의 은행나무

가 열려진 창문으로 자기의 빛을 던져주어 방안은 한결 밝았다.

《참으로 간단치 않은 동깅니다.》

내가 권하는 의자에 앉은 기자는 점점 더 강렬한 호기심을 안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소. 나는 더는 량심의 짐을 지고 살수 없었소. 아들이 지켜선 조국의 자리를 그대로 자기 심장속의 자리로 생각하는 어머니앞에서 나는 머리가 숙여졌구 더는 가슴만 쥐여뜯고있을수 없었소. 나의 시력에 것처럼 엄격한 군사동원부로 또 주먹을 부르짖고 찾아갔소. 여전히 뻥뻥한 눈길로 대하는 동원부장앞에서 나는 책상을 팡하고 내리쳤소. 량심과 의리의 무게를 더는 견디여내지 못하겠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 나는 강력히 요구했소. 그리도 의기소침해있던 내가 어떻게 책상을 내리치기까지 했는지 나도 모르겠소. 어쨌든 그것이 효력을 냈던지 동원부장도 조금 누그러드는 기색이었소. 그러면서 나는 우리 뒤집어머니의 사연을 큰소리로 토했소. 목석같은 군사동원 부장도 그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했소. 때를 놓치지 않고 나는 덧창을 놓았지. 《조국의 운명을 두고 이처럼 평범한 녀인들까지도 자기의 온 살붙이를 다 바치고있는데 비록 시력이 좀 약한들 피끓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집에 박혀있겠습니까. 량심을 누르고 의리를 짓밟으면서 조국을 생각하십니까? 이 준엄한 시각에 조국의 빈자리를 생각해야 할게 아닙니까!》 나의 주먹이 재차 책상우에 떨어지려할 때였소. 동원부장이 나의 팔을 붙잡았 소. 《됐소. 손을 상하면 동무의 소원을 영영 들어 주지 못하게 되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구말구요!》 나는 와락 달려들어 동원부장을 허공 안아 들었다놓았소. 결국 내가 이겼거든! 그때로부터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전선동부 사단후방부에서 일하라는걸 뿌리치고 미국놈들과 직접 코를 맞대고 싸웠소. 참 시력때문에 장애도 많았고 싸움질도 많이 했소.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잊지 못할 귀중한 추억으로 남았소.》

나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경력을 가지도록 충격을 준 고마운 마음을 안고 우리 뒤 집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흘러간 오랜 세월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는지 눈과 입모서리의 잔주름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게 안겨왔다.

《비서동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퍼그나 많을테지요?》

젊은 기자의 손가락짚에서 새하얀 담배재가 저절로 떨어 저버렸다.

《생존해있다면 아마 팔갑나이가 되겠소.》

《그러니 지금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쟁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앓아 가기도 했지.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오니 그 어머니는 이미 마을에서 사람들의 추억속에 남아 있는 사람으로 되었던구만. 지금도 여무리강 철

다리옆 언덕에는 추모비를 세운 합장묘가 있는데 순직자들의 이름을 새긴 묘비 뒤편에 송고랑너라는 그 어머니의 이름도 새겨져있소. 발고랑에서 태줄을 끊은 어머니의 비참한 과거와 생을 마치는 순간의 고귀한 희생을 말해주는 뚜렷한증거라고 할는지...

팔마지 전선으로 내보낸 어머니는 그후부터 미국놈비행기들이 날마다 미친듯이 달려들어 끊어놓는 철다리를 복구하는 일에 더욱 극성스레 달려나 가군했다오. 사람들이 어머니더러 아들 셋에 딸자식마저 싸움터에 보냈으니 마을일에 더러 빠진들 누가 뭐라겠느냐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었다고 하오. 《이번에 탄실이마저 보내놓구보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소만 탄실이는 너자의 몸이니 오빠의 몫을 제대루 하겠수. 그래서 그런지 내 힘까지 보태야겠다는 생각만 자꾸 드는구만! 그것이 내가 지키는 자리가 아니겠수. 내 자리가 비면 미국놈들이 발을 들여놓는다우!》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앞에서 사람들은 후터워지는 가슴을 안고 혀를 찼다고 하오. 그러던 어머니는 어느날 역시 철다리를 복구하는 마을사람들의 식사를 해이고 나갔다가 시한탄이 터지는통에 그만 희생되었소... 그때의 목격자들은 지금도 말하고있소. 어머니는 파편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합지안의 밥만은 쏘지 않았는데 숨겨가지고도 몇개의 밥사발을 품에 안고있더라지 않소. 그제서야 사람들은 <복>자가 새겨진 사발을 비롯해서 자식들의 모습 삼아 올려놓고 바라보던 그 네개의 사발조차 당반우에서 내리쬘다는것을 알았다오.》

수첩을 손에 든채 기자는 수긋하게 앉아 말이 없었다. 잠시후 그가 무거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그때 우리 전선은 후방에 바로 그런 녀인들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은 물론 태일에도 후방에는 그런 조선녀성들이 서있을테지요. 조국의 초소는 한구석도 빈자리는 없을것입니다.》

나는 젊은 기사를 돌아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때 그 전선을 탄원한 딸은 지금 있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나는 계면쩍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친김에 이야기를 계속했다.

《있소. 지금도 자기는 나라의 한구석에 빈자리를 별수 없다면서 년로보장을 마다하고 일하고있소. 그리고 오늘은 막내딸을 간석지농장으로 기꺼이 보냈다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어머니의 딸이 바로 비서동지의...》

《그렇소. 그렇게 됐소. 허허...》

이쯤 되고보니 기자의 묻는듯한 눈길이 그 다음 사연을 재촉했다.

《전쟁이 끝나자 조국은 전체 인민들을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에로 불렀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의 자리를 전선에서부터 자기 고향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러나 나는 그 벅찬 생활속에 뛰어들수 없는 몸이었소.

전쟁의 마지막해 봄 00계선 X X 고지탈환전투에서 나는 그만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불우하게도 병원침대에 누워 전쟁승리의 날을 맞이했고 그해 가을까지 내내 간호원들의 시중속에 있었소. 고향어머니에게는 간단히 상처를 치료하고 돌아간다고 편지를 썼지. 척추의 파편상으로 하반신을 못쓰고있는 나를 보면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처신할것인가? 아들을 영영 잃고도 그 슬픔을 힘으로 돌려세워 그자리에 딸을 내세운 뒤집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우리 어머니 역시 인제는 그렇게 살리라는 믿음이 나를 위로하였소.

그런데 하루는 담당간호원이 들어오더니 밖에 처녀군대가 나를 찾아왔다는것이 아니겠소. 상반신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나는 그만 머리가 아찔해나고 눈앞이 캄캄해왔소. 글썽 뒤집어머니의 딸 탄실이아 군복차림으로 서있지 않았소. 그 흘러간 포연속의 나날에도 한시도 잊지 않았던 탄실이, 바로 나를 용약 전선으로 이끌어준 그 탄실이, 그러나 그즈음에 와서는 애써 잊으려고 것처럼 마음속에 안고 모대기던 탄실이였소. 무엇보다문에 왔겠소. 앞뒤집이라는 단순한 인연으로 왔다고는 생각지 않았소. 미처 사랑으로까지는 약속못했지만 그 이상을 마음속으로 읽으며 얹혀온 정을 안고 온것이 아니겠소.

나는 이발을 지그시 깨물고 결심을 내렸소. 탄실에게 일생동안의 부담을 주지 말자고 말ियो.

나는 간호원더러 처녀군대에게 나의 중상형편을 속이지 말고 이야기해서 꼭 도로 보내달라고 부탁 하고는 모포를 뒤집어썼소.

탄실이아 간호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나는 몰랐소. 간호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부상상태를 설명하자마자 처녀군대는 군대성격 그대로 각듯이 인사하고는 총총히 사라지더라는것뿐이었소. 돌아간후 아무소식도 없더군. 나는 처신을 잘했다고 생각했소.

몇달이 지난후 나는 겨우 쌍지팽이를 짚고 일어설수 있었소. 곧 퇴원하게 되었으나 고향집 살짝 문으로 들어설 때까지도 지팽이에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었소.

《어머니, 섭섭해 마십시오. 이 아들은 미국놈을 이기고 왔습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며 고삭은 살짝문으로 들어섰소.

그 순간 나는 문득 지팽이를 멈추었소. 때마침 부엌문이 열리더니 허리에 새하얀 행주치마를 두

른 웬 너자가 대야를 들고 나오다가 오뚝 서버리는것이 아니겠소. 탄실이였소.

내가 모포를 뒤집어쓰고 잊으려고 한 그 순간에 탄실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정했던거요. 후에 탄실은 어떻게 그런 결심을 가졌는가하는 나의 물음에 자기가 것처럼 신념으로 굳히여왔고 그때에 와서는 실천에 옮기도록 떠밀어준 자기 어머니가 남긴 말을 그대로 외우는것이였소.

<명심해뉘라. 나라는 부르는데 누구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생길수 있다. 거기야 바로 너의 자리느니라. >

인간이 고상해지려면 그 한계를 가늠할수 없는가 보오. 의리와 양심은 가리키는데 누구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탄실은 결심해 나선 것이지요. 그 어머니 슬하에서 그 어머니 뉘을 안고 자란 탄실은 보다 아름답고 역센 삶을 요구하는 새로운 자리로 용약 나선것이였소.》

나는 깊이 타들어간 담배에서 마지막 모금을 들이켰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조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를 맡겨주면서 성실하게 지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소. 그래서 중학교를 갓 졸업한 애들도 당이 부르는 조국이 부르는곳으로 서슴없이 달려가는게 아니겠소. 집단적으로 말이요... 이거 기자동무가 더 잘 아는 이야기를 하는구만.》

나는 허구프게 웃으며 입을 다물었다.

《아니, 아니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저 어린 진출자들도 불어오는 차디찬 해풍을 맞고 사철 눈비를 맞으며 간석지농사를 하느라고 애를 쓰겠지요. 그 과정에 단련되고 성장하면서 조국이 맡겨준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기자는 얼굴에 자못 근엄한 기색을 띠우고 저력있게 말했다.

그것은 오늘 떠나보낸 딸자식에 대한 나자신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이야기를 마친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젊은 기자는 좋은 글감을 주어 고맙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다.

오곡을 여물쿠는 싱그러운 바람이 어데선가 날 알냄새와 꽃향기를 실어왔다.

앞벌에는 무연한 황금바다가 펼쳐졌고 집앞을 조금 사이두고 흐르는강변에는 들국화송이들이 다보록이 피어나고있었다.

그 많은 꽃송이들속에서 문득 나는 막내딸의 모습을 비껴보았다. 조국의 대지에 뿌리내리고 비바람 찬서리에도 끄떡없이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는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투사의 마중과 바래움을 받으며

—대홍단전적지에는 항일혁명투사 김세옥동지의 반신상이 있다—

하운석

이제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왔다갔으리

그들도 여기 오면

투사의 마중을 받았으리

떠날 땐 투사의 바래움을 받았으리

만약 살았더라면

이제는

귀여운 손자손녀를 거느린

백발의 할아버지투사

오늘도 혈전의 그날처럼

젊은 그 모습으로 서있는

여기 대홍단벌전투장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도

투사는 여기 있고

사람들은 끝없이 찾아오고

갈 때면 또 투사의 바래움 받고

고향이 아니고

투사의 혈육은 없어도

여기에는 있어라

가렬한 전투의 그날

투사가 억세게 틀어잡았던 기관총이

사령부를 노리던 원쑤놈들

지금도 거마리처럼 살아있어

투사의 눈은 저리도 증오의 불을 뿜는가

못다한 전사의 임무

못잊어 차마 못잊어

그날의 기관총과 함께

이곳을 지켜섰는가

지금이라도 원쑤가 달려들면

투사는 저 기관총으로

멸적의 총탄 어김없이 안기려니

저도 몰래 이 몸도 부사수되여

탄띠를 십기고 이마의 땀도 흠쳐주리

오! 여기 찾아오는 가슴가슴마다에

통일의 광장에 장군님을 어서 모시라

절절히 당부하고 준절히 깨우치는

투사의 모습 심장에 새기며

나는 떠난다

영생하는 충신의 모습을 안고

어느 겨울밤에

한웅빈

병사가 싸움길의 짧은 휴식참에 아담한 농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이만저만한 행운이 아니다. 고향에 온듯싶게 하는 눈동자와 얼굴들을 볼수 있고 따끈한 아래목에서 (그것이 처마밑 토방이나 문턱이라도 좋다) 담배를 피우며 더운물을 한모금 청해 마실수도 있다.

그러나 이밖에 그들이 눈아프게 앞을 내다보며 마을을 찾은것은 그래서만이 아니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던 때로부터 제진격의 길에 오른 오늘까지에는 불과 한두달밖에 안되는 시간이 가로놓여있었으나 그들에게는 마치 웅근 몇세기가 지나간듯이 느껴졌다.

사흘전에 고향을 지나온 전사는 그때부터 말도 웃음도 깡그리 잃어 버렸다. 눈물조차도 없었고 메마른 눈에서는 푸른 불만 이글거리고있었다. 전에는 그가 얼마나 이야기를 즐겼던지 분대에서는 엇그제 입대한 신대원까지도 그의 아버지가 어떤 실농군이였으며 그의 어머니가 토장국을 얼마나 잘 끓이는지, 장난세찬 동생들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속을 태우는지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고향을 지나온 때로부터 분대원들은 그에게서 단 한마디의 말도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들이 들은것이란 어제날의 모범농민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남겼다는 말뿐이었다. 《내 아들에게 우리 무덤앞에서 멈춰서지 말라고 해주세요.》 ...

군화밑에서 추위에 한껏 굳어진 눈이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스러졌다.

분대는 묵묵히 걷고있었다. 수십리밖으로 쫓겨간 적들을 추격하여 진공지대와도 같은 정적속을 걷고있었다. 그리고 마을이 나타나기를 안타까이 고대했다. 허나 마을이 나타난다해도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것이 한때 사람들이 살았다는것을 말해주는데 불과한 흔적이 아닐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었다. ... 그것만은 바라지 않았다. 후더운 숨결, 뜨거운 눈물이 맞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발로는 희망을 다른 한발로는 무거운 불안을 엇갈아짚으며 그들은 걷고있었다. ...

《분대장동지 마을입니다!》 달빛속에서 일어둘

채의 나지막한 초가집들이 웅기증기 모여앉은 자그마한 마을이 나타났다.

걸음들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마음은 벌써 찌국거리는 키낮은 삿잡문으로 들어 서고있었다. ...

그러나 마을은 개짓는 소리조차 없는 무거운 정적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불빛 한점 보이지 않았다. 인적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골목길로는 산산이 흐트러진 이영짚들이 눈가루와 함께 소란스레 휘몰려다니고있었다. 눈우에 찍혀있는것은 징박은 미국제 군화자국뿐이었다.

전사들의 가슴은 얼어드는듯했다. 숨죽인 굴뚝들, 무표정한 삿잡문들...

휴식구령이 내렸으나 누구도 집처마밑으로 들어서지 않았다. 숨결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다. 분대장을 따라 한집, 또 한집 지나가기만 했다.

벌써 몇번인지 모르게 지나온 죽은 마을들, 이제는 그 아픔과 슬픔, 분노로 가슴이 꼭 찼다. 더는 가슴이 견디지 못할것 같았다.

묵묵히 걷고있는 자신들이 놀라왔다. 사람의 가슴은 도대체 얼마나한 아픔과 슬픔, 고통을 받아 들일수 있는것인지...

《가만, 무슨 소리가 들린것 같소.》

하는 분대장의 말에 모두들 못박힌듯 멈춰섰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얼고 지친 그리고 아픔과 분노로 가득찬 그들의 가슴은 단 한방울이라도 군복을 적서줄 뜨거운 눈물을 갈망했다. 자기들의 발걸음이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했다는 기쁨을 갈구했다. ...

두어집 지나 분대장은 걸음을 멈추었다.

《저 집인것 같소.》

그 집 굴뚝에서도 역시 연기는 오르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피창에는 얼핏 불빛이 비친듯했고 억눌린듯한 기침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습니다!》

걸음보다 마음이 앞섰다. 누군가의 배낭에 걸려 삿잡문에서 판자쪽이 소리내며 떨어졌다.

《계십니까?》

토방에 올라 문고리를 덩석 잡고싶은 마음을

누르는데만도 많은 의지가 필요했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대답 대신 봉—하는 소리가 울려나왔을뿐이었다.

《?》

의아해하는 전사들에게 분대장은 방문을 가리켰다. 전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바람에 문풍지가 울리는 소리였던것이다. 그들의 고향집문도 바람부는 밤이면 저런 《음악》을 울리곤했었다.

《제십니까?》

분대장은 토방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우리는 인민군대입니다!》

이 말을 하느라니 어느덧 목이 메어올랐다. 후퇴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으로 몇백몇천번을 되뇌여본 말이었던가. 이 순간에는 오직 이 한마디를 위하여 살아왔던듯이 느껴졌다.

봉—하던 문풍지소리가 멎었다.

전사들의 가슴은 세차게 울렁거렸다. 방 안에서 문창호지에 바짝 갖다대고 마당을 내다보는 긴장한 눈동자가 보이는듯했다.

뒤이어 방문안쪽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다.

문을 손으로 더듬더듬 살펴보는것 같았다. 그러더니 딸그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고리를 찻느라고 더듬은것이 분명했다. 다시 딸그락하는 소리.

분대장은 토방우에 올라섰다. 이제 문이 열릴것이다. 활짝...

그러나 문은 이윽도록 열리지 않았다. 한 전사가 더는 참지 못하고 슬며시 문을 잡아당겨보았다. 그러더니 휘둥그래진 눈으로 분대장을 돌아보았다

《걸었습니다. 》

《뭐요?》

윙—하고 바늘끝같은 성에를 품은 바람이 마당을 휩쓸었다. 짙검불과 눈가루가 전사들의 얼굴을 아프게 후려갈겼다. 추위는 몇갑절로 심해지며 그들의 옷설로 스며들었다.

이것은 그들이 걸어온 수천리 싸움길에서 처음으로 부딪친 일이었다. 락동강까지 나갔던 1차진공의 길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들의 앞에서는 기꺼이 열려지곤했다.

가슴속에서 울분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바로 피흘리며 싸운것도, 한걸음이라도 더 빨

리 나오려고 잠도 휴식도 잊은것도 바로 이런 소박한 문을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전쟁승리의 그날을 생각할 때면 심장을 못 견디게 울렁이게 한것은 떨리는 손으로 열게 될 이 문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밤 그들이 맞닥들린것은 문이 아니라 랭랭한 《적의》였다.

《에익!》

한 전사의 분노에 떠는 손이 문고리를 와락 움켜쥐었다.

《물러서오!》

분대장의 날카로운 음성이 아니었다라면 문은 억센 손아귀에 비틀려 단번에 날아나고 말았을것이다.

전사의 눈에서는 푸른빛이 이글거리고있었다.

그는 바로 이틀전에 고향을 지나온 전사였다.

고향을 지나온 그날부터 그는 영원히 잃어진 고향으로 하여 고통으로 되어버린 아름다운 추억으로 하여 잠도 안정도 잃어버렸다. 전투이외의것은 바라지 않았다. 전투, 오직 전투만을 갈망했다. 휴식구령이 내리면 더 고통스러워했고 반겨 맞아주는 농가의 처마밑은 피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고독이 슬픔과 고통을 덜어줄수는 없는것이다. 전사는 자기의 심장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모르고있었다. 그에게 필요한것은 가슴에 응어리진 슬픔을 녹여줄 따뜻한 인정이였다. 들어서서는 농가가 반겨줄수록 고향집에 대한 상실감이 더 사무치고 맞아주는 정이 뜨거울수록 영원히 잃은 부모형제로 하여 더 눈물을 자아낼것이지만 그 눈물의 고개너머에는 수백수천의 고향집, 수천수만의 부모형제들이 있을것이다. 전사는 기필코 그 눈물의 고개를 넘어야 했다.

때문에 분대장은 마을이 나타나기를 더 기다렸었다. 숨결없는 마을이 아니라 산 마을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드디어 마을이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는 헛되고 말았다. 그들을 맞아준것은 따뜻한 이 아니라 눈과 얼음의 《담벽》이였다.

다시금 봉—하고 울리는 문풍지소리... 그 소리는 랭랭한 침묵앞에서 바늘끝같이 날카로워진 그들의 신경을 한결 녹장혀주는듯했다. 유년시절의 추억, 평화로운 고향집의 추억을 불러오는 한 겨울밤의 《음악》, 따뜻한 화로불가의 옛 이야기에 신비를 더해주며 울리던 다정한 문풍지소리.

...

분대장은 방문을 향해 정중하게 다시 말했다.

《주인님, 우리는 인민군대입니다.》

방안에서 한줄기 바람이 지나가는듯한 소음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소음은 거칠은 기침소리가 한번 울리자 모래불의 물방울처럼 잦아들어버렸다.

뒤이어 로인의것임에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정말 인민군대요?》

그 한마디에 전사들은 목이 메여오르는듯했다. 마을에 들어와 처음으로 듣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분대장의 목소리는 저절로 떨어져나왔다.

《그렇습니다. 로인님, 인민군대입니다.》

《정말 인민군대라면...》

또다시 기침소리, 그리고서야 말소리는 띠엇띠엇 이어졌다.

《들어오지... 마시우.》

《?!》

《그냥 가주시우!》

철컹! 전사의 손에서 총이 맹렬한 금속성의 소리를 냈다.

《명도!》

분대장은 그의 손을 틀어잡았다. 전사는 그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다.

《놓으십시오! 이놈의 집을! 이따위것들을 모두! 모두!》

윙-윙-거리는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긁어내렸다. 울분과 노여움, 풀길없는 의혹...

분대장은 토방에서 천천히 내려섰다. 발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전쟁의 첫날부터 걸어온 수천리 싸움길에서 어떤 일인들 없었으랴. 믿기 어려운 일들도 많았다. 허나 이런 일만은 없었다. 이 랑랑한 《담벽》 뒤에는 무엇이 있을가. 어떤 사람들, 어떤 심장들이?... 두걸음만에 다시 방문으로 돌아섰다.

《로인님, 우리가 온것이 반갑지 않습니까?》

《...》

문틈으로 소리를 죽이려고 애쓰는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거칠은 기침소리에 그 소리는 똑 끊어졌다.

《어서 가주시우!》

더는 일언반구도 없으리라는 단호한 음성이었다.

참기 어려웠다. 가슴속에서는 싸늘한 불덩이들이 무섭게 소용돌이쳤다.

그때 삿잡문가에 서있던 전사가 말했다.

《분대장동지, 여기 이상한게 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마당에 들어설 때 배낭에 걸려 떨어졌던 판자쪽이 놓여있었다.

분대장은 전지불을 켜다. 그러자 동그란 불빛속에는 판자에 거칠게 쓴 검은 글자들과 위협적인 감탄부호들이 나타났다.

《전염병! 일체 통행금지!》

《...》

그 아홉개의 단속적인 글자에서 전사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징박은 미국제군화자국밖에 없던 골목길, 산산이 헤쳐진 머리칼처럼 골목을 휩쓸며 날려가던 이영짚들, 소름끼치는 정적... 원썩들은 그 아홉개의 글자로 마을을 생매장터로 만든것이였다. 이 마을에 울린것은 시시각각으로 다가드는 죽음의 발자국소리뿐이었으리라...

《그런데 왜...》

하고 입을 열었던 전사는 자기 목소리에 놀랜듯 입을 다물어버렸다. 닫겨있는 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문을 두드리는 삶의 손길앞에서 대답없는 집, 부를수록 더욱 굳게 달아매던 문...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것의 백분의 일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 효자라는 말이 있다.

어서 떠나가라는듯 더욱더 깊어가는 침묵... 그 침묵속에서는 전사들의 심장에 불처럼 새겨진 전우의 아버지가 남긴 말도 울리고있는듯했다.

《내 아들이 우리 무덤앞에서 멈춰서지 않게 해주시오. 원썩을 갚는 길에서 한시도 멈춤이 없게 말지요.》

과연 사랑의 끝은 어데며 증오의 끝은 어데일까...

달빛서린 광막한 공간속으로 눈가루가 무수한 유리조각들처럼 반짝거리며 휘몰려가고있었다. ...

분대장은 부엌문을 열었다.

《승리의 날 다시 만나자》

채영도

돌이켜보면 전화의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던가
지금도 눈감으면
손저어 바래주던 그들의 모습...

하건만
누가 먼저
이런 인사말 시작했던가
—승리의 날 다시 만나자

내 전선으로 떠나던 날
동구밖 언덕우에서
이기고 돌아오라 당부하시던
어머님의 그 말씀에서 시작됐던가
아니면 정거장에서 꽃수건 흔들며
열차를 바래주던 고향치녀
그 정다운 목소리에서 시작됐던가

나는 몰라라
어디에서
누가 먼저
이런 인사말 시작했는지

행군길에 지나온 마을 사람들과도
우리는 이런 인사로 헤어졌다
화선천리를 함께 걸은 전우들과도
우리는 이 한마디로 인사를 나누었다

한낱한시에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 어떤 규정에라도 적혀있는 것처럼
군인숙박소며 야전병원
전선과 후방 그 어디에서나
하나로 통하던 전투적인사여

편지를 써도
—승리의 날 다시 만나자
노래를 불러도
—승리의 날 또 오세요

병사도 장령도
로인들도 아이들도
이보다 뜨거운 말
알지 못했다

헤어져 가는 길 서로 달라도
수령님 따라 싸우는 한길에
운명을 같이하던 인민의 마음
승리를 기약하던 신념의 목소리여

그 신념을 안고 전사들은
목숨걸고 결사전으로 나아갔고
후방에선 너인들이
포탄을 깎고 발을 갈았다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얼싸안고 눈물 흘릴 그날을 위하여
눈물겨운 사연도 가슴속에 묻어두며
시련의 언덕을 웃으며 넘은
영웅적인민의 전투적인사여!

동지

황송명

누가 모르랴
세상에 귀한것 많고많아도
투쟁의 한길에서 뜻을 같이한
동지보다 더 귀한것이 없다는것을

비가 와도 좋았다
눈이 와도 좋았다
저물도록 뛰놀던 강변의 버들방천
내 어린 가슴속에 우정이 싹튼
소꿉동무들도 있고

다감한 학창시절 동무들도 많아
방학때도 기숙사에 눌러있었지
잊지 말자 청춘시절 노래부르며
나누던 껌장떡도
얼마나 맛있었던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한뿌리에 피어난 꽃송이처럼
불어다니면서도
그날에 우리는 다 몰랐구나
참된 동지애가 무엇인가를

불타는 강과 돌격의 언덕에서
피를 나누며 나는 알았네
어찌하여 투사들이
철창속에서 혀를 끓으며

동지들의 안녕을 목숨으로 지켰던가를

아 혁명동지!
얼기도 힘들지만
버리기는 더욱 어려워
한 동지의 잘못을 두고
우리모두가
제가슴을 두드리지 않았던가

시련많은 혁명의 먼먼 길은
아직 앞에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네
두렵지 않네
동지들이 많아

자랑이면
이보다 더 큰 자랑
기쁨이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데 있으랴
이것은 당을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우리가 벌써
온 세계를 얻었다는 말

보아라 물방울도
뭉치면 바다
파도높이 설레이며 광광
절벽을 들부시지 않느냐

꽃놀이

홍창원

봄이 좋아 산과 들에 온갖 꽃 피어나니
처녀들의 가슴에도 꽃물결 실레이오
모판마다 줄대같이 풍년모 키워놓고
설참이라 큰애기들 꽃놀이 즐겁다오

내 고향에 피고피는 아름다운 꽃이름을
누가누가 많이 찾나 내기하는 꽃놀이

봄을 먼저 알리는 그 진달래만 있을가
방긋 웃는 개나리 민들레도 있다오

진달래철 지나면 철쭉꽃이 곱지만
한여름철 향기로운 두봉화는 어떻구요

꽃이 많아 바람도 꽃향기에 실린 나라
꽃이 많아 사시절 꽃바다에 묻힌 나라

들판에만 꽃인가 가슴속에 꽃이 폈네
내 고향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꽃이랴오
올해에도 풍년으로 내 조국을 떠받드는
처녀들의 그 마음이 봄꽃보다 먼저 폈소

한여름의 이야기

정인길

찌물쿠누나
더위에 눌린 풀잎아래
늘어진 그늘
제초기 세우고 땀을 들이면
논코에선 거품 끓이는 물소리...
이삭비료 싣고 석해골로 올라가는
뜨락또르 앞이마도 빨갛게 데나부다

그래도 뿜린 불구멍처럼
하늘의 해에선 불별이 쏟아지고
강냉이밭 분수들만 좋은 때라고
넵다 물줄기를 뿜어대누나
비웃입은 분조장도 흠뻑 젖어
그속에서 경중경중 오가는 모양
김매는 젊은이들 옷겨놓는다
저봐라 수로에선 양수기물이
불별을 굴리며 가물을 놀리누나...

어 찌물쿤다 했더니
불에 끄스 숨같은 구름몽치가
삼두봉우어로 몽글몽글 오른다
한소나기 부으려나
하늘이 우르릉... 구름을 반죽한다
그러자 바람이 일어오고
사방은 어둑어둑
해가 졌다

벼며 강냉이가 설렁대누나
이제 여름이 이발인양
허연 물살을 드러낼게다
그러나 돌담입은 논과 밭은 든든하다
벌써 뿌얀 비둘기가 달려온다

바람이 터졌다
하늘땅이 번쩍! ... 번개가 쏘인다
놀라 뜬 산새들이 가랑잎처럼
산너머로 거뿔거뿔 날려간다

오, 사정없는 여름이며
너는 가물과 불별, 태풍과 소낙비
찌는듯 무덥다도 구름장을 휘뿌려치누나
너는 성미 급하다, 거세차다
누가 너의 판결앞에서 거짓을 할거나
이 땅에 바친 나의 진정만을 남겨놓는 너

누가 네 앞에서 놀라지 않을거나
그래도 나의 제초기는 발동소리 높여간다
또 들판을 잠글것 같던 폭우도 그쳐지리라
구름도 맥을 잃고 희여지리라
꿀짜기에선 내물이 도망치고
숲속 나무아지에선 새들이 젖은 것을 털고
그러면 열린 구름사이로 햇빛을 내리워
여름이며, 너는
일곱빛갈 무지개를 곱게 짜리라
그러면 논과 밭에 우거지는 푸른 빛갈
그 술렁임...

석달가물과 싸운 들이다
장마의 비바람을 이긴 들이다
김을 뽑고 흙을 매면 네벌길도 지나갔다
보라빛 꽃을 흔드는 두렁콩
이삭패는 벼포기
호함진 수염쓰는 강냉이이삭

아, 그럴 땐 견고싶어진다
물장구치는 애들을 내가에 품고
칠팔월의 맑은 물을 침병이던 여름이며
정든 총각의 땀배인 옷을 빼는
그 처녀 마음을 싣던 둥근 파문이여
쏟아지면 폭우여, 뜨겁던 불별이며

나는 논머리 밭머리에 견고만 싶어진다
나락빛 노을을 넝쿨채 끌고서
저녁해가 나의 포전에 내릴 때면
그러면 여름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을앞에 할것이나...

백두산 만병초 외2편

(중국) 김성

흰구름도 날아넘다
그대로 얼어붙은
백두산 장설속에
붉게 타는 꽃망울!

너 용사의 피방울이나
너 투사의 땀이나

항일대원들의 품에 안겨
불길로 타올랐더라

그 불꽃이 장설을 녹여
봄빛 넘치는 금수백산이나
포근한 눈속에서 오늘도
붉게 타는 백두산 만병초!

장백의 소나무

너를 믿고 네 가슴에
너처럼 살리라고
겨레의 타는 피 뿌려
민족의 웨침 새긴 글

망망한 설원 천리
장백의 눈보라속에

항쟁의 심장 불태웠고
준엄한 그 길 비쳤더라

춘추가 바뀌어 반세기
오늘도 력력한 그 글발!
아, 네가 진정 력사에 빛날
장백의 항일투사기념비여라

화전골 물레방아

삐걱쿵—삐걱쿵—
물레방아 짙는소리
보리방아소리나
귀밀방아소리나
화전골물레방아
밤도와 삐걱쿵—

못별들은 반짝반짝
개울물은 조잘조잘
이 방아는 뉘 방아냐
이 방아 찌 뭘하느냐
오손도손 속삭임
쥐도새도 모를일

밀정놈들 도적눈에
희희락락 잔치방아
헌병놈들 눈총질에

생일방아 명절방아
스리슬적 능청맞게
아슬고개 넘어가며

귀신몰래 감쪽같이
어데로들 가져가나
자유의 강산에서
봄노래 부르자며
부녀회원 안개타고
밀영지로 들락날락

삐걱쿵—삐걱쿵—
물레방아 짙는소리
날방아소리냐?
물방아소리냐?
화전골을 일떠세운
혁명의 물레방아!

개발지로 떠나며

오윤호

봄아지랑이 가물덜 때면
모양곱게 새조롱 엮어 웃음을 피워주고
앞뜨락 살구나무에 서리가 앉으면
서둘러 썰매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애지중지 공들여 키운 아들이
이제는 다 컸다고
그리도 대견해하신다는 아버지
어릴 때 아침 저녁 내 키를 재던
문지방 바람벽 눈금을 보며
내 마음의 키도 가늠해볼 아버지

내 다 자랐다고
어이 그 사랑 끝났다 하오리까
위훈을 안고 제대되는 이 아들이 자라িয়ে서
청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속깊은 그 정에 굴이 있으리까

그 마음의 깊이를
왜 모르리까
제대되는 이 아들을 위해
끓여놓은 색좋은 옷감도
어머니와 합의본 마음씨 고운 처녀도
그것만이 이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 마음의 전부가 아님을

흰머리 늘었어도 허리굽었어도
어릴 때 다름없이 기울이는 마음
자식이 잘되기 바라는 하많은 당부
때로는 아픈 때도 드시던
아버지 그 모습속에
조국이 나를 위해 기울이는 사랑

그 어이 모르리까
다 자란 오늘날도 내 모른다면
그보다 배은망덕 또 있으리까

아나이다
색날은 군복에
전승메달 번쩍이며
고향길에 들어서던 아버지처럼
내 가슴에도 빛나는 군공메달이
이 아들의 대답으로 생각하실 줄

내 제대배낭메고
이제 당이 부른 개발지로 선참 떠날 때
조국은 그날의 아버지모습 다시 보게 되리
내 달려간 개발지에서
위훈의 구슬땀 바칠적에
조국의 전후의 날 천리마를 타고 달린
그 세대의 피줄기를 이어받은
이 아들을 자랑하리라

속깊은 사랑이 어찌
뜨거운 보답을 낳지 않으리까
한가정의 문턱을 넘어
조국의 아들로 자란 오늘에
내 어이 갈길을 모르리까

떠나리다, 제대되는 이 길로
당이 부른 개발지 북방의 광산으로
이 길이 나의 고향길임을
아버지의 그 품에 안기는 길임을
나는 알고 떠나가나이다

작품창작과 문화어

박사 한정직

인간과 그의 생활을 형상적화폭으로 보여주는 문학창작에서 문화어를 올바르게 쓰는것은 인식교양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민족어의 보물고에서 문화어가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되어있다.

우리의 문화어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조선민족어의 본보기이다.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만발한 사회주의적 민족어의 본보기 말인 문화어를 수단으로 하여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사람을 형상한다는데 참다운 주체의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서의 본질적특성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아는바와 같이 언어는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 내용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할뿐아니라 사람들의 언어교양과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문학작품에서 아름답고 전투적인 문화어의 본보기를 보여주는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도덕교양과 문화성을 높이는데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화에서 문화어의 본보기를 보여주는것은 인민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공산주의적도덕교양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논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문화어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공산주의적도덕교양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언어는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며 민족문제와 밀접한 련관을 맺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있을 때 조선사람을 만나게 되면 같은 조선말을 하는 동족이라는것으로 하여 조국땅에서 평범하게 생활할 때는 감수하지 못하는 각별한 동포애, 민족애를 느끼게 된다. 또한 외국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그가 조선말을 알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다른 친근감을 가지게 된다.

언어와 민족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깊은 리해에 기초하여 작품창작에서 아름답고 전투적인 문화

어의 본보기를 보여주는것은 사람들속에서 자기 민족어를 잘 아는 사람이 민족애와 애국심이 높은 사람이라는 관점을 깊이 심어줌으로써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는것이다.

또한 작품에서 문화어의 본보기를 보여주는것은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적극 이바지한다.

우리 말은 원래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는 우수한 언어이다. 조선말에는 같은 뜻의 말도 례의범절에 따라 서로 달리 표현하는것이 적지 않다. 실례로 《어머니》와 《어머님》, 《엄마》, 《에미》라든가 《아버지》와 《아버님》, 《아빠》, 《애비》라든지 《말》과 《말씀》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기본뜻은 같으나 보통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낮잡아서 하는 말인가에 따라서 갈라진것들이다. 특히 문법구조에서는 보통말, 높이는 말, 낮추는 말, 반말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단들이 매우 정밀하게 발전되어있다.

따라서 문화어를 알맞게 써서 례의범절을 정확히 표현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서도 큰 작용을 할수 있다. 우리의 많은 문학작품들에서는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하여 그 좋은 본보기들을 훌륭하게 창조하고있다. 구체적인 한가지 실례를 영화문학 《군당책임비서》에서 주인공 차석빈이 최관배로인에게 하는 대사를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군당책임비서인 차석빈은 오랜 로동계급인 최관배에 대하여 존경과 친근감을 가지고 대한다. 그는 최관배로인에 대하여 《아버님》, 《아바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단편적인 실례를 통하여서도 일군들이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반세기동안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면서 당과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온 오랜 로동자들을 어떤 관점과 자세로 대해야 하겠는가를 뜨겁게 느끼게 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문화어를 잘 살려쓰는것은 다음으로 사람들속에서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워나가는데서도 큰 작용을 한다.

언어는 민족과 함께 문화와도 밀접한 련관을 맺고있다. 그것은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민족문화가 창조되고 발전되며 후세에 길이 전하여지는것이다. 언

어와 문화와의 호상관계로부터 언어수준은 문화수준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문화수준이 낮으면 자연히 말도 거칠고 사투리와 속된 말을 포함하여 비규범적인 말을 많이 쓰게 되는 반면에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상하고 점잖은 문화어를 쓰는것이다.

작품창작에서 사투리를 포함한 비규범적인 언어수단을 고려없이 쓰는 현상을 없애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화어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주의적 문화생활양식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가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문학예술문제에서 언어의 문화성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에서보다 특수하고도 복잡하게 나선다. 과학기술문제나 공식사무문제, 신문보도문제, 사회정치문제 등에서는 문화어만이 규범적인것으로 되어있고 사투리를 비롯한 비규범적인 언어수단들은 금물로 되어있으니 문학예술문제에서는 문학과 예술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형상적화쪽으로 보여주어야 하는것만큼 비규범적인언어수단들을 불가피하게 써야 할 경우도 있다. 이 점에서 작품의 언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작가에게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지워졌다고 할수 있다.

작가들은 사투리를 쓰는것으로써 한몫 보려고 하거나 폭소를 일으키려고 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물의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하고 사회에 건전하고도 문화적인 언어생활기풍을 세우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언어수단들을 구사하여야 할것이다. 현대물이나 력사물이나 할것없이 모든 작품에서 사투리가 불가피하다고 볼 필요도 없거니와 쓰는 경우에도 한마디로서 백마디, 천마디의 형상적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것이다.

시대와 현실에 대한 옳은 리해는 작품에서 문화어와 사투리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기초에서 언어구사를 알맞게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등교육은 더 말할것도 없고 초등교육도 해방후에 받은것만큼 그들은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문화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익혔다. 비록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봉건적 장벽과 폐쇄속에서 살던 때와는 달리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방송을 비롯한 출판통신보도물을 통하여 학습과 문화정서생활을 하는 과정에 자신도 느끼지 못하게 사투리를 버리고 문화어를 적지 않게 체득하며 또한 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리용하여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여러고장에 오가며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과정에 문화어의 소양을 높여나가고있

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아직도 어조와 억양, 어휘와 문법수단 등에서 사투리의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는것만도 사실이나 현실에 있는것이라고 하여 문학작품에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작품들에서는 사투리를 고려없이 쓴것들을 볼수 있다. 단편소설 《생의 궤도》가 그런 작품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까짓거. 난 밥만 먹여준다면 사흘이라두 기다릴 자신이 있수다래. 휴양가는 길이니께.》...

《아이구 기차라. 난 다음 역에 내릴 사람인데 이렇게 목이 멘다구야... 이거 보. 렬차원 아재, 이 기차 혹시나 여기서 밤을 새우는게 아임매?》

...

《이보라구 체네. 그 함수천 철다린 내레 좀 하는데 기관사한테 알릴수 없을까?》

길지 않은 대사에는 여러 지방의 사투리가 쓰이고있다. 휴양객의 말에서 《있수다래》, 《길이니께》는 주로는 자강도에서 쓰이는 사투리이고 녀인의 말에서 《아임매》는 함경남북도 사투리이며, 상고머리 로인 즉 오랜 로동계급의 말에서 《체네》, 《내레》는 평안남북도의 사투리이다. 이것들은 문화어로는 《있소》, 《길이니까》, 《아니오》 또는 《아니요》, 《처녀》, 《내가》등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작가는 렬차에 여러고장의 각계각층 군중이 탔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투리를 쓴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도 일반적이고 보편타당성을 띠고있는 현실이다. 봉건사회의 산물로서의 사투리는 다듬어지지도 가꾸어지지도 못한 비문화적이고 비규범적인 언어잔재인것으로 하여 마구 쓰면 인물의 사상정신적, 문화도덕적 풍모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어낸다. 작품에서 사투리는 인물의 시대적 및 지역적 또는 문화도덕적 수준을 부각하여 성격화, 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한다.

더우기 단편소설의 경우 주인공을 제외한 방계 인물에게 사투리 몇마디 쓰는것으로 인물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형상할수는 없다고 본다. 단편소설 《생의 궤도》에서는 사투리뿐아니라 웅당 문화어를 써야 할것을 비규범적인 말로 쓴것도 있다. 《일제》를 《일절》로 한것이라든지, 《가까와오니》를 《가까워오니》라고. 표현한것들을 들수 있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도 보인다.

최근에 나온 장편소설 《후대의 길》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찾아보게 된다. 작품에서는 기업가 류정하의 안해 전씨의 성격창조에서 경상도사투리를 람용하고있다. 작품의 두개의 폐지에서만도 작가는 토 《-는가요》는 《-능기요》, 《-는고》는 《-능교》, 《-오》는 《-이소》, 《-습니다》는 《-습니더》, 《-시오》는 《-이

오》, 《-라고》는 《-락교》, 《넙까》는 《-넙니꺼》 등으로 그의 대사의 거의 모든 문장에서 사투리를 쓰고있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잘 형성된것이라고 할수 없다. 그의 남편 류정하의 대사는 거의 전적으로 문화어에 의거하고있는데 그 안해의 대사는 반대이다.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지난날 일본땅에서 수난에 찬 생활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동안 총련과 출판방송보도를 통하여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는 과정에 해방후 류레없이 개화만발한 사회주의적민족어의 본보기인 문화어에 대한 소양도 높아나갈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문화어소유의 능수로 만들고 그의 방조와 지도, 영향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안해

는 사투리만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것은 생활론리에도 어울린다고 볼수없다. 또한 어휘는 다 문화어를 쓰는데 토만은 사투리를 쓰게 한것도 진실하게 안겨오지 않는다. 이러한것은 작품을 리해하는 면에서나 언어교양자적측면에서 심중히 대해야 할것이다.

우리의 작가들은 작품에서 사투리와 속된 말, 야비하고 몰상식한 말을 쓰는 현상을 없애고 때와 환경에 잘 어울리게 사람의 심리세계를 정확하게 드러낼수 있는 아름답고 섬세하며 뜻이 풍부하고 세련된 문화어를 능숙하게 플라섬으로써 문장의 명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이 노래 따라부르며

진춘근

노래와 노래가 이어 울리는
통일거리 건설장의 짧은 설참에
나섰구나 건설자도 배우도 아닌
항일의 로투사 《중창단》이

분주히 증막을 물어올리던
기중기도 잠시 긴팔을 세우고
혼합기도 볼도젤도 모두 숨을 죽였는데
땀젖은 가슴들을 흔들며 흔들며
혁명의 노래가 울려퍼진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머리에 인 흰서리
근엄한 모습 주먹을 내흔드는 저 투사는
이 노래 부르며 수령님을 모셔온
우리 혁명의 첫 전위대원

바람결에 흰저고리 날리는
내 어머니 같은분은
재봉대 밀영에서 이 노래 부르며
유격대 군복짓던 그 너대원

장장만리 조국의 광복 위한 싸움
붉은기를 지켜온 그 뜨거운 가슴에서
또다시 울리는 그 노래 두드리누나 불태우누나
모여앉은 건설자 천만의 가슴을

멀리 또 멀리 혁명은 달려왔건만
아직 우리 바라는곳까지는
멀고 또 멀어
《통일거리》를 지나 맞이해야 할
너무도 큰일들이 아직은 앞에 있어

다시 보는 눈앞의 새거리 설계도
다시 보는 눈앞의 새거리 새집들
자기의 기중기로 더 들어야 할 무게를 가늠하며
자기의 혼합기로 더 이겨야 할 물탈을 헤아리며
노래를 듣는 천만가슴으로
폭풍같은 노래가 터져오르누나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아, 백두의 그날에 시작된 노래
투사들의 심장에서 천만의 심장으로
세월을 넘어 더 높이 울리는 이 노래는
갈수록 차넘치는 우리의 힘, 우리의 신념

이 노래 따라부르며
이 노래 이어부르며
넓게 열려가는 통일거리 저너머
또다시 밝아오리라
혁명의 붉은기 펄펄 날리는
휘황한 새 승리의 아침과 아침들이!

림진강하류에서

(림진강은 하류에서 분계선을 따라 흐르고있다.)

리명수

남녘땅을 바라보며

저기가 내 조국 남녘땅인가
림진강건너 가로지른 철조망을 불안고
쓸쓸히 드러누운 저 땅이
아프게 안겨오는 저 땅이

지척이면서도 아득히 먼 땅이여
내 땅이면서도 못박아본 땅이여
그래도 눈에 보니 이름못할 정이
찌릿이 젖어드는 땅이여

새들은 자유로이 날아간다
바람도 거침없이 가고 또 온다
그런데 나는 걸음을 꺾이운채
저러오는 심장만 달래고있구나

몸이 갈수 없는곳이길래
넋이나마 밝아보는 땅이여
원췌에게 짓밟힌곳이길래
매운 분노가 서려오는 땅이여

분하다 돌을 갈아 땅을 뚜질적부터
이 땅에 땀을 묻고, 피를 묻고 뼈를 묻으며
남의 땅 한번 넘겨다본 일 없는 우리 민족이
크지도 않은 제 땅을 반이나 뜯기운것이

분하다 철면피한 불청객들이
제멋대로 박아놓은 말뚝이
오늘은 콩크리트장벽으로까지 덧쌓여
사람들의 심장에 피를 끓여주는것이

아, 지구가 깨져 부서진다 해도
갈라질수 없는 우리의 땅이여
강을 덮고 산을 깎아서라도
기어이 이어야 할 혈육의 땅이여

너는 끓여주누나 걸음 꺾이운 이 가슴에
눈물이 아니라 피를! 피를!
너는 버려주누나 걸음돌리는 이 마음에
통탄이 아니라 칼을! 칼을!

고요

조심히 내려앉아
어두운 물속에 몸숨긴 달이
겹이라도 먹은듯 하얗게 질려
소리없이 흔들리고

철조망 사이를 빠져
림진강을 건너온 남쪽바람이
하소하듯 옷자락을 흔들며
이따금 귀전을 두드릴뿐

없다 여기엔
한저녁 강변이면 어디에나 있는
낯시군들의 한가한 방울소리도
흘러내리는 달빛에 익어가는
젊은 쌍들의 속삭임소리도

없다 여기엔
평화로운 생활의 숨결이 어려
노래처럼 울리는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도
려객선의 웅글은 배고동소리도

해묵은 침묵속에
싸늘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팽팽한 공기만이 가득차 흐르는
림진강반의 고요

여기선 다만 보이는듯
강건너 숲속 저 어디선가
속심검은 눈알을 굴리며
방아쇠 당길 기회만을 노리는
야수들의 무수한 총신들이

여기선 다만 들리는듯
이 땅에 흐르는 고요를 깨뜨리려
무수한 포신들이 갈증에 입다시는 소리
무수한 땅크들이 주림에 이가는 소리

아, 정녕
소리없다 고요라, 잠잠하다 고요라
화약고의 공기마냥
무서운 폭음을 머금고
이 땅을 위협하는 림진강반의 고요여

팽팽한 너를 깨쳐버리고
생활이 공간난 이 강반에도
생활의 소음으로 가득채울 때
이 땅엔 진정 고요가 깃들리라
고요가 깃들리라, 마음 달콤히 잠글수 있는...

강물의 상봉

그리는 형제처럼
고대하는 애인처럼
마주향해 달려오는 두 강의 흐름
장벽도 철조망도 막지 못해

북남 3천리에 차고넘는
만남에의 그 갈망이
두줄기 강이 되어 흘러왔는가
그래서 이리도 설레이는가

만난다 여기
분계선에서
북녘땅을 흘러온 림진강과
남녘땅을 흘러온 한강이
서로 부르며 부둥켜안고
목메여 걸음을 못떼는듯
합수목을 굽이치는 강물의 상봉
어쩐지 눈물나는 강물의 상봉

아, 말없는 물이라도
상봉은 이러할진대
어떠하랴 사람들이 만난다면
수십년 헤어졌던 혈육들이 만난다면

서로 부르며 부둥켜안고
목메여 걸음을 못떼는듯
합수목을 굽이치는 강물의 상봉
어쩐지 눈물나는 강물의 상봉

갈망의 다리

건너보고 건너보고
또 건너본다
상상의 화판우에 조용히 뻗어가는
다리를... 림진강다리를...

귀에 쟁쟁 들리는듯
황해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귀맛 좋게 어울려 벽작대는 소리
감격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웃음들이 만나리
눈물들이 만나리
참말로 통일이 되어 이 강우에
다리가 놓인다면... 놓인다면...

말없이 흘러가는 저 푸른 물도
그날엔 들끓으며 와-와 물결치리
침울히 떨어지는 저 붉은 해도
다시 솟아오르며 활활 타번지리

눈에 삼삼 보이는듯
남에서 북에서
란간이 터지게 파도마냥 밀려와
으서지게 꺼안고 불을 부비는 사람들이

아, 그날이면 내 란간에 서서
타는해를 향하여 소리쳐 웃어본들 어떠리
교각을 안고도는 물결우에
눈물과 함께 뭉쳤던 비애를 떨어버린들 어떠리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황홀히도 보여오는 통일의 그날이어
그려볼수록 그려볼수록
저주로이 미쳐오는 분렬의 장벽이어

이제 더는 가슴타는 갈망으로
그려보고만 있을수 없는 그날이기에

이제 더는 눈물로 세월을 적시며
기다리고만 살수 없는 그날이기에
오오, 통일로 향한 나의 걸음을
재촉하고 재촉하고 또 재촉하며
이 한몸 그대로 다리가 되리라
그날에도 향한 통일의 다리가... 다리가

그날을 기다려요 어머니

황성하

이처럼 기쁜 날이면 더더욱
참가에 이윽히 서서여
화살을 박듯 눈길주시는 그곳이 어딘줄
나는 압니다 어머니

눈으로 마음으로 더듬으시는 남녘의 고향을
콩크리트장벽을 얼음마냥 부시고
지금이라도 달려갈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나이도 잊으시고
흰머리발 자락마냥 날리며 가실테지요
그뒤를 그림자처럼 쫓아 내 따르고

정말이지 가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고향인 나의 외가에
생각합니다 내 어린 시절
방학때면 외가에 놀러갔던 동무들의 자랑이
그때부터였던가요 외가에 대한 생각이
애뜻한 정으로 이 마음 휘젓곤하던것은

어머니 그래 어머니고향엔
이 검은 머리 한번 감아봤으면 하는 내물이
늘 계곡으로 흐른다지요
터질듯 익어 떨어지는 빨간 감은
얼마나 멋있을가요, 방천에 설렌다는 대나무숲은

어머니고향에 정다운 노래가락 남기며
이내 작은 자옥 찍어보지 못할가요
호두나무 둘러선 집오래를
외삼촌이랑 손잡고 왜 나서보지 못해요

내 이렇게 크도록 외가는
그리움으로만 이 가슴에 남아야 합니까

여기도 거기도
피를 나눈 혈육이 사는 땅인데
어이하여 젊은 날에 고향을 떠난 어머니
칠순이 되도록 다시 가지 못할가요
분렬의 고통에 우는 수많은 우리 겨레들을
언제까지나 달래고만 있어야 할가요

분명 내 나라, 내 땅인데
어이하여 백발의 목사와 나어린 너대생이
대륙과 대륙을 숨가빠 넘어와야 하나요
아, 머리에 인 저 하늘이 야속합니다
그 원썬들에게 벌을 내리지 못할가요 어머니!

사랑하는 강토를 철조망에 넣고
상처투성으로 만든 놈들을
이제는 들어낼 때가 왔어요
어머니 더는 물러설수 없는 90년대이니
아프다 아프다 몸부림만이 아닌
통일의 불길이 온 반도를 휩쓸어요

기다려요 어머니 힘을 내세요
갈라져있어도 남았을 어머니고향에
나랑 함께 가야지요 꿈속을 가듯
그날엔 이 땅 저 하늘 이 사람들이
정말이지 어떨가요
아, 생각만 해도 가슴울렁거려요 어머니!

통일의 열차는 달린다

김종설

하루가 10년같은 세월도 있다지만 45년이 하루같은 세월도 있었다.

통일없이 맞고 보내는 낮과 밤들이 너무도 가슴 아파 찢기는듯한 아픔으로 몸부림친 45년!

아마도 서리발 도는 칼로 마흔다섯해를 돌고돈 분단의 년륜을 토막친다면 그 토막토막마다에선 피눈물이 흐르고 통일, 통일하는 목소리가 강산을 울리리라.

얼마나 가슴조이고 애간장을 말리며 통일만을 향해온 마흔다섯해인가.

그러나 통일의 날은 좀처럼 다가서지 않았다.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에 의하여 더는 빠질래야 빠질길이 없게 된 남조선괴뢰들이 전민족앞에서 7. 4북남공동성명에 수표를 한지도 어언 18년, 조국이 분열될 때 북남삼천리에 흩어졌던 20대 청춘들의 머리엔 흰서리가 내렸고 그들을 떠나보낸 아버지, 어머니들은 통일을 보지 못한 채 끝내 숨지고말았다.

그래서 지금은 20대의 그 시절에 떠나온 고향의 박우물과 대숲과 울타리와 낫익은 골목길들과 실개천들이 세상 떠난 아버지,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아들딸들을 안타까이 부르는데도 통일의 날은 아직도 저기란 말인가?

이 땅을 둘로 갈라놓고 남녘땅에 핵무기를 1, 000여개씩이나 가져다놓은 미제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열을 올리고 파썸과 폭압에 미쳐날뛰는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들은 《대화창구일원화》를 떠벌이면서 분열을 영구화하려고 신성한 조국땅 허리에 콩크리트장벽까지 쌓아올렸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늙은이가 될 때까지, 늙은이가 저세상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다가설줄 모르는 통일의 날.

그 멀고도 끝간데없이 다가설줄 모르던 통일의 날이 열린 우리앞에 다가섰다.

나는 이것을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고 처음으로 느낄수 있었다.

통일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가.

이것은 지난 8월 15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렸던 판문점에서 있는 일이다. 뜨거운 열정과 격동, 끝없는 환희와 감격, 불타는 통일열의속에 진행된 범민족대회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결의문》을 비롯한 다섯개의 대회문건이 채택되었다.

정견과 신앙, 사상과 리념, 당파와 계급의 소속, 지어는 거주지마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흔 다섯해만에 처음으로 만나 채택하는 문건, 그 대회장에는 서로 다른 정견을 가진 정치인도 있었고 실업가도 있었으며 노동자도 있었고 농민도 있었고 각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리고 또 현실이 지난 사람들중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단한명의 반대나 기권자도 없이 다섯개의 대회문건을 만장일치로 채택 한것이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것처럼 순간에 하나가 되게 하였던가.

나는 그 이야기를 참으로 작고 별치 않은 사실을 통해 꼭 하고싶다.

그날 대회에 이어 합토제와 기념식수를 진행한 대표들은 판문각앞마당에서 통일문화축제를 가졌다.

그때 취재사업에 여념이 없던 나는 일본에서 온 해외동포들이 출연한 시와 노래이야기 《우리의 모두 통일이여》의 출연자들을 찾아 동분서주 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통일열차 달린다》의 신나는 전주에 이어 서로 꼬리를 지어 잇달아 달리는 춤판이 벌어졌다.

얼른 그쪽으로 걸음을 옮긴 나는 가슴이 뚝 메여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대회의장단석에 앉아있던 젊잖은 늙은이가 옷을 벗어젖히고 《은호기, 은호기》하며 동네집령감이나 찾듯이 북아메리카추진본부 공동의장은 호기대표를 찾는것 이었다.

그런가 하면 저 멀리 유럽의 하늘밑에서 왔다는 마흔이 훨씬 지나보이는 한 녀인은 처녀들처럼 깔깔거리며 우리 북측대표들과 한어머니 품속에서 태어난 친형제처럼 안고돌아갔다.

그 사이사이론 엄마, 아빠를 찾으며 귀엽게 뛰여다니는 아이들이 이 사람에게도 안기고 저 사람에게도 안기고...

참으로 인상깊은 화폭이었다.

누가 북측대표이고 누가 남측대표이며 누가 해외대표인지도 가려볼수 없는 정경.

그 정경이 얼마나 진실한것이었던지 나와 함께 갔던 사진기자동무는 자기가 직접 안무를 하고 북측의 예술인들과 함께 출연했던 무용 《조국의 어머니》의 주인공을 촬영한다는것이 그만 실지 주인공을 자꾸만 앞으로 밀어놓으면서 《동무 좀 비키오. 저 남측대표의 얼굴을 좀 찍게.》하고 행복한 실수까지 저질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우리 북측의 대표들이 《아이, 이 부인이 바로 무용의 주인공인 남측대표 황석영선생의 부인이 아닌가요.》 하고 즐겁게 웃었다.

그러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또한 걸작이었다.

《얼마나 좋아요. 쌍둥이 형제에게 장가는 총각처럼 북측, 남측을 가릴수 없게 되었으니말이에요.》

참말이다.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는 그 어떤 북측남측도 없고 그 어떤 체모나 위엄, 위신도 없다. 그저 다 오래전부터 하나의 조국을 섬기면서 한 피줄을 타고난 허물없는 친형제이고 혈육들이다.

이 세상 어디에 한어머니 품속에서 태어난 친형제들이 서로 체면을 차리고 체모를 갖추기 위해 애써 노력한 일을 본적이 있는가.

조상대대로 전해내려오는 명절놀이에 나온 늙은이들처럼 한아버지와 한어머니 곁에서 그 명절을 마음껏 즐기는 자식들처럼 간격없이 돌고도는 통일렬차.

이것이 바로 통일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처럼 간단한 통일을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은 45년동안이나 가로막고있었으며 7. 4북남공동성명이 나온 때로부터도 온갖 생억지를 다 써가며 18년동

안이나 끌어왔다.

그러니 이제 통일의 주인은 누구이며 분단의 원흉은 누구인가를 결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북과 남의 대결이 아니라 애국과 애국간의 대결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인 범민족련합을 결성한 우리 7천만동포는 이제 더 통일을 미루지 않으리라.

맹세코 1990년대를 넘기지 않으리라.

강이 불이 되고 땅이 일어선다 해도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조국의 성업을 이룩하리라...

그렇다! 조국통일의 주체이며 통일조국의 주인인 우리 인민은 1990년대에 기어이 백두-한나행 통일렬차를 개통하리라.

이것이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전체의 결의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임을 나는 똑똑히 느끼었다.

파도 높아지는 때이면

리영

파도 높아지는 때이면 다 만나게 되누나
번쩍 이며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불빛에
언뜻 보여오는 눈익은 저 모습들...
광-광-제방우에 물결은 휘뿌려져도
떠들썩 올려오는 귀익은 저 목소리들...

뻗어가는 제방 한끝
쌓아놓은 흙이 찢겨질가봐
괴여놓은 돌이 무너질가봐
어둠속에 손과 손들이 마주 들고
파도를 막아 쌓아가는 흙가마니 흙가마니

기타를 치며 천막가에서 부르던 노래도
땀흘리며 다져놓은 제방에 이어져있어
달밤에 거닐던 남모르는 사랑도
개고막이 전투끝낼 제방에 어리어있어

파도 높아지는 이런 때이면
서로 부르고 싶은듯싶구나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몸도 마음도 합칠줄 아는 동무들아

갈게잡이 하자던 휴일날의 약속은
때로 어기는일이 우리사이에 있었지
제방에서 벌어지는 실참의 오락회때면
슬그머니 숨는 《못난이》도 우리들속에 있었지

아무런들 어떠랴, 즐거운 그 나날
서로의 마음을 미처 몰랐단들
부닥치는 이런 어려움앞에선
서로의 그 마음 더 새롭게 알게 되는데는

진정 맑은날 좋은날엔
우리 알면 얼마나 알고 지냈던가싶구나
바람세차 파도 높아지는 이런 때이면
가슴속 진정들을 가장 뜨겁게 안아보는 때!

파도야 높겠으면 높아지라지
우뢰야 치겠으면 쳐보라지
제방을 함께 쌓아가는 그 가슴 가슴으로
제방을 함께 지킬줄도 아는 그 마음들이 깃들여
조국땅의 새 기슭은 더 아름답게 펼쳐지더라

꽃은 피고피리라

신지락

이 아침도

서둘러 펼쳐든 신문에서

나는 먼저 찾는다

수경이 그 이름을

비록 손목은 잡아보지 못했어도

어느 누가 모르랴

통일념원의 뜨거운 열기로

온 나라 밤과 마음을 휘저어놓은

수경이 너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살아도 죽어도 통일을 이루자고

주먹 높이 들어 웨치던

장하고 의로운 그 모습

세월이 흐른다고 잊혀지랴

귀기울이면

지금도 들려오누나

하나된 조국에서 살고싶다고

하나된 조국의 딸이 되고싶다고

눈물에 젖던 그 목소리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삼삼히 어려오누나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잔악한 원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통일을 그리며 밝게 웃음짓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이

꿈같이 만나고

꿈같이 헤어졌어도

우리는 너의 모습에서

하나로 된 조국

통일의 그날을 안아보았거니

평양이라 백두이라

북녘의 하늘아래

네 발길이 닿은곳마다에

네 정을 두고간 가슴마다에

수경아 너는

통일의 꽃으로 피어있어라

참말로 꽃이여라

꽃이라도

철따라 피고지는 들꽃이 아니라

피어서 영원히 지지 않고

피어서 영원히 향기를 풍기는

총칼로써도 꺾지 못하고

철창으로도 그 향기 막지 못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민족의 꽃

통일의 꽃이여라

아, 눈물속에 웃음속에

불안고 불안고 농을줄 모르며

혈육의 뜨거운 정 나누던 그 가슴속에

통일념원으로 불타는 7천만의 심장속에

뿌리를 내린 꽃이여서

자주와 민주가 질식된

정의와 진리가 짓밟힌

암흑의 동토대에서도

꺼질길 없는 민족의 넋을 안고

망울을 키워온 꽃이여서

파쑸의 광풍

그 아무리 사납고 모질어도

통일의 꽃은 피고피리라

북남 삼천리강토를 뒤덮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내 아들이 부른 노래

김덕영

요즈음은 어디서나 통일의 노래가 울리고있다.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바짝 달아오른 우리 인민의 통일열기가 그대로 하늘과 땅에 노래되어 넘치는것만 같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이달계획을 선참으로 앞당겨 끝내고 퇴근길에 오른 나의 마음은 마냥 흥겹기만 했다.

고층살림집들의 창가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새없이 흘러나온다. 어느 집에선가 아이들의 포랑포랑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온다.

나도 두돌이 갓 지나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들을 눈앞에 그리며 걸음을 다그쳤다.

문소리만 나면 뒹뒹뒹하는 걸음으로 달려나와 나의 품에 안기는 아들, 그 복동이의 모습이 눈에 삼삼히 안겨왔다.

이런 생각을 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우리 집 문 손잡이를 잡을 때였다. 정말 방안에서는 나의 그 흥겨운 생각에 장단을 쳐주듯 아드애의 짜랑짜랑한 노래소리가 울리는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두돌이 갓 지나 발음도 정확치 않았으나 아드애의 노래소리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통일, 온 민족이 몇십년을 두고 열망하고 바라는 소원...

아드애는 바로 그 소원을 어린 입술에 울리며 통일에 대한 뜨거운 노래를 부르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행복속에 태어나 행복밖에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에게 분열된 조국을 넘겨주지 않으시려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루, 한시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을 다 기울여오신다.

정녕 그 통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련사들이 피를 뿌렸고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통일을 부르며 한목숨 통일의 제단에 바치였던가.

또 분열된 조국의 아픔을 두고 내 나라 절반땅 남녘땅에서 반나절이면 너럭히 올수 있는 길을 수만리 지구를 에돌아 평양축전에 왔던 남조선 《전대협》대표 림수경학생도 얼마나 안타까이 부르짖었던가.

통일, 오직 하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아드애의 노래소리를 깨치지 않으려고 방싯 열린 문밖으로 살그머니 들어서니 성격이 그렇게도 활달하던 나의 안해도 오늘저녁만은 그린듯이 않아서 생각에 잠겼는데 아드애는 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소원은 민주
꿈에도 소원은 민주

이제는 정말 철부지 어린이까지 45년의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저 그 작은 주먹을 흔들며 통일을 부르는것이 아닌가.

노래를 끝낸 아드애는 종주먹을 꼭 그러쥐고 팔을 힘있게 내뻗치며 웨쳤다.

《조국통일!》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그 웨침소리를 듣노라니 멀리 흘러간 어린 시절의 한토막이 되살아난다.

토끼가방 달랑 메고 유치원 가던 그 시절 어느 날 앞집 자랑쟁이 용이는 촌에 있는 할아버지네

집에 또 갔다왔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할아버지네 집 뒤산에서 새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게 주렁주렁 달린 다래를 따 한바구니 가득 채운 일이며 포도넝쿨처럼 나무에 짙게 뻗어간 머루 넝쿨에 시꺼멓게 익은 머루송이를 나무에 척 올라 앉아 목이 달짝지근하게 따먹은 일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이는 뽕내려는듯 달디단 다래와 머루를 나에게도 주었다.

정말 꿀맛이었다. 용이는 날보고 《철이야, 너 흰 할아버지가 없니?》 하고 물었다.

그 소리에 나는 함께 잡고있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달음박질했다.

그날저녁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우린 왜 할아버지네 집이 없는가고 안타까이 물었다.

친할아버지는 전쟁시기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외할아버지는 제신다는데 왜 가지 않는가고 ...

그날 어머니는 처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철없는 나에게 했다.

전쟁시기 처녀였던 어머니는 경기도 파주에서의용군으로 전선에 탄원해나왔다. 그리고는 미국놈들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고 어머니는 안타까이 말했다.

고향에는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들이 있으며 앓고계시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글썽하여 남녘하늘가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나는 그 다음날 형님들이 소개쫓던 도래굽이 벼랑꼭대기로 달려올라가 수평선너머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산너머 저 남쪽 땅에 있다는 할아버지를 그리며 목놓아 웨쳤다.

《할아버지! 어디 있나요? 할아버지!》

그리고는 증오에 찬 얼굴로 손을 내흔들며 또 웨쳤다.

《미국놈 물러가라!》

《조국통일!》

나의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며 통일을 부르며 철었던 그 시절엔 아들이 통일이란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를 만날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라게 웨치던 부르짖음... 그리고

오늘 내 아들이 부른 노래.

아, 결국 통일이란 부름을 삼대가 내려오며 되받아외우도록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조국땅을 절반이나 가로타고앉아 제 세상마냥 활개치고있다.

하여 할아버지를 부르며 철없이 울던 내가 이제는 아이아버지가 되었고 것처럼 그리던 할아버지, 할머니며 삼촌, 이모들은 아직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채 그 소식조차 모르고있다.

아들의 손목을 잡고 어머님과 함께 한달음에 달려가 뵈고싶은 마음은 용암처럼 솟구치건만 눈앞에 보이는 지척도 우중충히 솟은 저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으로 하여 진리로 벌어지고말았다.

《통일》이란 말만 해도 죄인으로 물고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여 처형하는 로태우역도, 그놈은 《통일의 꽃》으로 온 세계 인민들과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던 립수경이 분렬의 장벽에 돌파구를 열고 판문점도 벗어나기전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중형을 들썩였다.

어디서나 《통일》, 《통일》을 부르짖으며 자신을 바친 꽃나이처녀를 꽃차에 태워 환영은 못 할망정 수갑을 채우다니, 이 어찌 될 말인가?

미제와 로태우괴뢰역도는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이번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려는 《전민련》대표들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판문점으로 달려오는 대학생들을 마구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통일로 나아가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인민적책동이다.

그러나 놈들이 제아무리 발악하며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피눈이 되어 날편대도 우리 인민의 불같은 통일념원은 막지 못할것이다.

밤이 지새면 새날이 오듯이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통일강령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앞에서 콩크리트장벽은 봄날의 눈석이처럼 허물어지고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오늘 내 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노래를 불렀지만 미구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남녘형제—얼싸안는 그날 내 아들은 통일의 노래를 다시 부를것이다.

하나된 조국, 통일된 조국의 노래를!...

평범한 성격속에 체현된 조국애에 대한 생동한 형상

— 단편소설 《고향의 모습》을 읽고 —

김철수

최근에 나온 단편소설 《고향의 모습》(단편소설집 《꽃피는 시절》)은 수도의 네거리에 서 있는 교통안전원처녀의 모습을 통해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작품은 교통안전원 조선희와 화물자동차운전수 인두남이의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사랑과 그 발전과정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인간들속에 고향에 대한 사랑, 평양에 대한 사랑, 나아가서 조국에 대한 크나큰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인물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물관계를 옹계 설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가 못보여주는가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또한 구성의 짜임새와 립체성도 보장한다.

소설은 인물관계를 처녀교통안전원 선희와 운전수 두남이와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것이 사랑관계로 심화발전되는 과정을 조국애와 결부시켜 생동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교통안전원 선희가 방경준 운전사의 차를 단속하는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어느날 근무를 서던 선희는 규정을 어기고 달아나는 방경준의 차를 엄격히 단속하며 그의 차를 교통안전교양실이 아니라 빨래집으로 안내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돌려보낸다.

원칙적이면서도 리치적인 선희의 모습은 친구의 차를 붙들어준 두남에게도 커다란 인상을 남겼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서로 친근해진 두남이는 자기도 모르게 교통안전원 선희를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

이처럼 소설은 작품의 첫머리에서 자기 직무에 대한 성실성과 수도시민으로서의 자각을 지닌 선희의 모습을 인상깊게 강조해주고 두남이와 선희의 성격이 더욱 생동하게 드러나도록 인물들의 심리세계를 파고들어 보여주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생활을 통해서 인물의 체험세계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 한 그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그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그려낼 때 그것은 진실하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바로 소설은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평양의 모습과 함께 발전하는 두 청년의 성장과정을 구체적인 내면세계발전과정을 통하여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어느날밤 근무를 서던 선희는 멀리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두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어 애순이한테 단속되어 교통안전교양실로 불리워들어난 두남은 그후 1년동안 네거리앞을 지나지 않는다.

1년후 살구꽃 핀 모란봉의 큰길에서 남이 버린 담배꽁초를 종이에 싸서 버리는 두남이를 보았을 때 선희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던가.

선희가 거리에서 방경준의 차를 단속한것은 교통안전원의 직무를 지닌 선희의 임무였다.

그러나 두남이의 행동은 결코 그 어떤 직무상의 요구에 의한것은 아니었다.

《나도 수도에서 산다》는 자각으로 하여 두남은 길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를 두고도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었던것이다.

직무상의 요구에 의해 수도의 거리를 어지럽히는 방경준의 차를 단속한 선희에 비해볼 때 어찌보면 두남의 행동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지만 세계가 더 높고 아름답아와보인다.

바로 이런 청년이 선희와 만나지 못한 1년 사이에 수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았겠는가를 생각하는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

1년후에 두남이를 만난 선희는 그가 참으로 돋보였다.

이것을 계기로 선희는 두남이를 새롭게 보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

그후 아무말없이 순천으로 떠나간 두남은 편지를 통해 자기가 작별하지 않고 떠나간 이유를 솔직히 말했을 때 선희는 뜨거운것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던것이다.

《선희동무,

한시를 떠나서도 살지 못할것만 같던 평양을 두고, 하루라도 못보면 그리워지던 선희를 두고 여기로 오기까지는 생각도 많고 모대김도 컸소. 하지만 평양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수도의 꽃으로 피어난 선희를 사랑하기에, 이 모든것이 나에게서는 조국으로 안겨오기에 왔소. ...나는 언제나 밝게 웃는 얼굴로 수도의 네거리에서 신호봉을 들고 서있는 선희의 모습만을 간직하겠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선희의 모습이자 내가 영원히 간직하려는 고향의 모습이요.》 두남이의 고백, 이것은 수도의 네거리를 지켜선 선희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뜨거운 분출이었던것이다.

이처럼 작품은 교통안전원 선희와 자동차운전수 두남이의 사이에 서로 오가는 사랑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되도록 인물관계를 깊이 심화시키고있다.

지난 시기 조국을 애타게 그리던 일부 작품들을 보면 그 어떤 거창한 사변이나 사건들을 통해 인물들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도식적인 작가의 사상을 강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어떤 메마른 사건들로써가 아니라 교통안전원처녀와 화물자동차운전수사이의 사랑관계를 섬세하게 펼쳐보이면서 평범한 생활속에서 움트고 자라나는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인간의 사상감정은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것이다.

때문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 즉 만사람이 누구나 체험할수 있는 생활속에서 성장하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진실하며 독자들의 감동도 커질것이다.

소설은 마치 태양의 따사로운 빛을 받으며 소리 없이 움트고 자라나는 봄날의 새싹과도 같이 우리 시대 청춘들의 가슴에 조용히 자리잡게 되는 사랑의 감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르도록 형상의 심도를 높이고있다.

소설은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새로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줄거리는 작품의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생활발전과정을 흥미있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소설은 인물들의 생활을 그들의 고유한 성격론리에 맞게 그리면서도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특색있게 밝힐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짜나가고있다.

이야기의 흐름에 정서적인 굴곡을 만들어놓으면서 관중의 마음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것은 구성이 짜인 작품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이다.

소설은 인물들의 성격이 잘 살아나도록 이야기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시종일관 커다란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소설은 작품전반에서 애정선도 새롭게 그리고 있다.

독자들은 선희와 두남이의 사랑이 작품의 마감에서 뜨겁게 맺어지는것으로 끝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작가는 독자들의 기대를 뒤집어 그들이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굴곡있게 주고있다.

작품의 첫머리에서부터 작가는 이야기를 새롭게 그리고 굴곡있게 꾸미고있다.

바쁘다는 생각으로 어지러운 차를 그대로 몰고 시내로 들어가던 경준이 선희한테 걸려 빨래집에

서 《대청소》를 하고 떠날 때 그는 물론 독자들 도 선희의 마음씨에 감복하게 된다.

소설을 읽어나갈수록 흥미와 기대는 더욱 커진다.

최신류행으로 옷차림을 한 두남이 로타리에서 선희를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가 순천에서 보낸 두남이의 편지에 반복되면서 흘러가고 흘러드는 행복의 교차점에 서있는 교통안전원의 모습이 군사복무의 나날에 그러보던 고향,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으로 안겨왔다고 고백할 때 독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다.

실로 작품은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는데서 뒤가 뻥히 들여다보이지 않게 이야기를 굴곡있으면서도 생활의 논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또한 작가는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적중한 세부들과 일화들을 정확히 골라서 인상깊게 묘사함으로써 인물들의 성격을 특징짓고 독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영향을 주고있다.

두남이가 거리에서 죽게 되는 담배꽂초세부라든가 선희가 야영갔다가 얻은 산삼꽃세부, 두남이의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준 보물방망이에 대한 일화, 그리고 선희한테 끊임없이 날아드는 사랑의 편지에 대한 세부를 두고도 잘 알수 있다.

이렇듯 소설은 평범한 교통안전원처녀와 제대군인 운전수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소설에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작품의 첫머리에 나오는 방경준운전사는 인물형상의 묘수로 볼 때 좀 빈약하다는 감이 든다. 그는 소설에서 부차적인 인물로 등장하지만 그도 역시 뚜렷한 자기의 형상적묘를 가지고 작품전반에서 선화와 두남이의 성격을 부각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했더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소설의 중심인물들인 선희와 두남이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주지 못한 약점도 없지 않다. 이것은 소설이 재미있게 읽히우기는 하되 주는 감동이 좀 약하고 주인공들의 성격을 보다 뚜렷이 부각하는데서 손해를 보는 결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은 소설이 보여준 많은 우점에 비해 극히 작은것이며 총체적으로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에 별로 손상을 주지 않는다.

작가들은 단편소설 《고향의 모습》과 같은 우리 시대 청춘들의 심장속에 간직되고 아름답게 피어 나는 사회주의애국주의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혁명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장벽은 무너져야 한다

장해명

손꼽아 이제는 마흔다섯해...

마흔다섯해 긴긴세월

나에게는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다

그 어느 행성에 보낸다 해도

이제는 가닿고 남았으련만

제멋대로 부는 바람에 띄워도

이제는 온 지구를 돌고돌아

주소에 찍여진 내 할머니 집 트랙에

몇번이고 몇번이고 내려앉았으련만

아, 장벽이 없다면

결어서도 사흘길에 가닿을

나의 아버지 고향땅에

아직도 보내지 못하고있는 편지

세상을 하직하는 침상에서

고향하늘쪽으로 머리 돌려달라시며

어린애마냥 목놓아 할머니를 부르다가

부르다가 부르다가 눈도 감지 못한채

이 아들에게 말기고 간 아버지의 편지여

대답해보라 세계여

하나의 혈육이 돌로 갈라져

마흔다섯해 긴긴세월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는

이런 비극의 땅이 또 어데 있는가

말 못하는 금수에게도

제 어미의 품이 있거늘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는

한평생 어머니와 헤어져 살아야 했고

어찌하여 이 아들은

고향땅 선산에 묻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마저 풀어주지 못하는것인가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이여

동정의 눈물 지으며

나 하나만을 위안하려 하지 마시라

조선사람 그 누구의 가슴에나

이런 상처가 새겨져있다

북남3천리 흩어져사는 가족 그 어느집에나

이런 기막힌 사연의

보내지 못하고있는 편지가 있다

분렬의 반세기에 허열게 색이 바랜 옛주소를

떨리는 펜으로 덧새겨갈 때

가슴속엔 통일의 절박감이

더욱 사무치게 아로새겨졌나니

나는 분단의 장벽을 깨뜨려야 할 사람

한장의 편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넋을 앞세우고 유골을 떠메고

기어이 장벽을 넘어가야 할

나는 분렬된 민족의 피끓는 청춘

오, 이몸을 던져서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이

한조각이라도 깨여 지는것이라면

열백번 죽어 다시 태어난대도

그 모든 생을 송두리채

분단의 장벽을 향해 폭탄처럼 내던질

끓어오르는 의문이며

아버지의 세대가 더 늙기전에

우리의 다음세대가

분렬의 쓰린 눈물을 알기전에

통일은 이룩되어야 한다

그리운 혈육들이 열싸안을

자유래왕, 전면개방은

한시바빠 실현되어야 한다

오, 분단의 장벽은

장벽은 무너져야 한다!

나의 아버지는 락동강에 있다

허창일

청명날

자손의 성의 담긴 가방 들고 꽃을 들고
이웃들 선산으로 찾아가는데
나는 한장의 사진앞에 앉아있다

상등병 견장 달고

파발총을 앞에총한 인민군대사진
아버지시다

총알이 우박치는 싸움의 날에 찍었던만
빙긋이 웃고계신다

아마도

아버지를 대신해 보탑을 잡았던
어머니를 그려보며 웃었으리
—여보 내 돌아갈 때까지
장군님 주신 땅을 잘 가꿔주소
누렁소의 여물도 아침저녁 끓여주고...

인민학교에 입학한 나에게

첫 학습장 두툼히 때어주던
그날도 생각하며 웃었으리
—애야, 미국놈을 몰아내고 아버지가 갈 때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말도 잘 들으렴

허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장군님 주신 땅도 더는 갈아 못보고
최우등생 내 성적증도 펼쳐보지 못했다
락동강도하전에서 전사했다는 통지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 집에 왔거니

싸움이 끝난 뒤 아버지를 묻은 전우들

주소도 적어주고
락도도 그려주며
가보자고 꼭 가보자고 했건만
못갔다, 청명이 수십번 지나갔어도

못간다, 이해 청명에도

분계선을 넘부는 바람소리 듣고도
《남침》이라 기겁하는 역적들
아버지 령전에
한잔술 부어드리는것조차 두려워
콩크리트장벽으로 가는길을 막고있어

오, 가슴속에 핫핫 일고이는 불!

내 몇천놈을 태워버리면
꺼질수 없는 분노의 이 불길
달래여질것이나

수류탄처럼 굳어지는 주먹! 주먹!

금시라도 터질듯한 이 두주먹
진정될것이나

한강토, 한민족을 반세기 갈라놓고도
영원한 《두개 조선》을 꾀하는놈들
악귀같은 무리들의 씨앗까지 없애치워도
이 분노, 이 원한 풀릴길 없으리

청명날

자손의 성의안고
이웃들 산소로 찾아가는데
나는 분연히 공장길에 나선다

이 길이

콩크리트장벽을 짓부셔버리고
락동강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기에!

이 길이

콩크리트장벽을 짓부시고
내 통일의 그 종착점까지
가는 길이기에!